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석사학위논문

TV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 서열문화 교육 연구

-이란 학습자를 대상으로-

2020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전공

마 희 열

Mahyar Mohammadzadeh

TV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 서열문화 교육 연구

-이란 학습자를 대상으로-

지도교수 윤대석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전공

마희열

Mahyar Mohammadzadeh

마희열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0년 7월

위 원 장 윤 여 탁 (인)

부위원장 고 정 희 (인)

위 원 윤 대 석 (인)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한류 열풍으로 인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증가한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방안을 고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이란의 한국어 학습자에게 가장 낯선 한국문화 중 하나인 서열문화 교육을 주제로 설정하였고 서열문화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는 영상매체인 TV 드라마를 활용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TV 드라마에 나타난 서열문화에 대한 내용을 해석하는 학습자의 역량을 문화 해석의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학습자가 TV 드라마의 여러 장면에 포함된 서열문화 요소 중 어떤 부분을 인지하고 기억하는지, 서열문화에 대한 이해, 해석과 비판을 이끌어내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열문화 교육의 방안을 구체화했다.

본 연구는 베리의 다문화 적응 이론 (multicultural acculturation framework)을 이론적 틀로서 채택하여 연구 목적에 맞게 변형시켰다. 한국 생활 경험이 있는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 3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으며, 이들의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수용 유형과 반응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실험 과정에서는 학습자들에게 TV 드라마 <미생>에서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장면을 시청하게 했으며 시청 직후 서술형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실험 결과를 토대로 응답자들의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수용 유형을 능동적 수용, 수동적 수용, 능동적 거부와 수동적 거부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어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학습자들의 반응 양상을 분석하여 유형별로 인지, 해석 및 평가 양상을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능동적 수용 유형과 수동적 수용 유형의 응답자는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인지 양상이 서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능동적 거부 유형의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서열문화의 요소들을 발견해낼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능동적 수용 유형의 응답자는 수동적 수용 유형의 응답자보다 미묘한 서열문화 요소들을 조금 더 포착했다는 특징이 있었다. 따라서 TV 드라

마에 나타난 한국 서열문화를 인지하는 데에는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학습자의 수용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해석 및 평가 양상을 살펴보면 이란 학습자들은 대부분 한국 서열문화에 대해 '윗사람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해석을, '아랫사람을 마음대로 대우한다'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해석을 제시했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좋다'는 측면에서 한국 서열문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엄격하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능동적 수용 유형은 상대적으로 한국 서열문화에 대해 더 긍정적인 해석과 평가를 보였으며, 능동적 거부 유형은 한국 서열문화를 보다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하는 양상이 드러났다. 즉, 한국 서열문화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한 학습자일수록 이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려고 했고 한국 서열문화를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한 학습자일수록 이를 능동적으로 거부하고자 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Ⅳ장에서는 TV 드라마 장면 분석과 학습자의 수용 유형 및 반응 양상을 바탕으로 문화교육의 목표, 내용과 방법을 제시했다.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이란 학습자의 거부감을 줄이고, 학습자들을 서열문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을 목표로 TV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 서열문화 교육 방안을 설계하였다. 서열문화에 대한 학습자들의 수용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통적인 교육 외에도 각 수용 유형의 학습자에게 적합한 개별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교육을 통해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이란문화와 차이점이 많은 한국 서열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적절하게 비판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어: 문화교육, 한국 서열문화, TV 드라마, 이란 한국어 학습자, 문화적응, 수용 유형, 반응 양상

학 번: 2017-29726

차 례

Ⅰ. 서론 ····· 1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 1
2. 연구사 검토 ····· 4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 11
1) 예비 조사 ····· 11
2) 본 조사 ····· 15

Ⅱ.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문화 교육의 이론적 고찰 ····· 17
1. 언어와 문화의 관계 ····· 17
2. 문화교육과 문화적응 ····· 21
1) 문화교육의 정의 및 필요성 ····· 21
(1) 문화간 차이 ····· 23
(2) 서열문화 ····· 27
2) 문화적응의 개념 및 이론 ····· 32
(1) 문화적응의 개념 ····· 32
(2) 문화적응의 이론 ····· 33
3. TV 드라마를 활용한 문화교육 ····· 38
1) 영상 매체를 통한 교육 ····· 38
2) TV 드라마를 통한 문화교육 ····· 41
3) TV 드라마를 통한 이란 학습자 대상 한국문화 교육 ···· 44

Ⅲ.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이란 학습자의 반응 양상 ····· 47
1.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수용 유형 ····· 48
1) 능동적 수용 ····· 52
2) 수동적 수용 ····· 53
3) 능동적 거부 ····· 55

4) 수동적 거부 ····· 56
2.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반응 양상 ····· 57
1) 한국 서열문화 요소에 대한 인지 양상 ····· 57
2)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해석 및 평가 양상 ····· 73
(1) TV 드라마 장면에 나타난 서열문화 요소에 대한 해석 및 평가 ····· 75
(2) 경험에 기반을 둔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해석 및 평가 ····· 80
3) 실제 상황에서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반응 양상 ····· 89
3. 한국 서열문화 교육을 위한 시사점 ····· 94

Ⅳ. 한국 서열문화 교육의 설계 ····· 97
1. TV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 서열문화 교육의 목표 ····· 98
2. TV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 서열문화 교육의 내용 및 방법 ··· 99
1)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인지 향상 활동 ····· 101
2)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해석과 비판 활동 ····· 104
3)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태도 형성 ····· 105

Ⅴ. 결론 ····· 110

참고문헌 ····· 113

부록 1. 설문조사 문항 ····· 121
부록 2. TV 드라마 장면의 내용 ····· 124

Abstract ····· 141

<표> 차 례

<표 1> TV 드라마 <진심이 닿다>에서 선정한 장면 ····· 13
<표 2>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수용 유형 범주와 내용 ····· 15
<표 3>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수용 유형 범주와 내용 ····· 37
<표 4> 실험 참여자 개요 ····· 47
<표 5> 상관관계 통계분석 ····· 50
<표 6> 교차분석 ····· 50
<표 7> TV 드라마 <미생>에 나타난 서열문화 요소 ····· 58
<표 8> 학습자가 서열문화를 인지한 장면의 개요 ····· 65
<표 9> TV 드라마에 나타난 서열문화 요소에 대한 인지 양상 ····· 66
<표 10> 학습자가 인지한 서열문화 요소의 양적 분석 ····· 67
<표 11> 능동적 수용 유형의 인지 양상 ····· 69
<표 12> 수동적 수용 유형의 인지 양상 ····· 70
<표 13> 능동적 거부 유형의 인지 양상 ····· 71
<표 14> 학습자의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해석 양상 ····· 74
<표 15> 학습자의 TV 드라마 장면에 나타난 서열문화 요소에 대한 해석 양상 ····· 76
<표 16> 능동적 수용 유형의 해석 양상 ····· 77
<표 17> 수동적 수용 유형의 해석 양상 ····· 78
<표 18> 능동적 거부 유형의 해석 양상 ····· 79
<표 19> 학습자의 경험에 기반을 둔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해석 양상 ····· 80
<표 20> 학습자의 경험에 기반을 둔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평가 양상 ····· 82
<표 21> 능동적 수용 유형의 해석 양상 ····· 83
<표 22> 능동적 수용 유형의 평가 양상 ····· 84
<표 23> 수동적 수용 유형의 해석 양상 ····· 85
<표 24> 수동적 수용 유형의 평가 양상 ····· 86

〈표 25〉 능동적 거부 유형의 해석 양상 ····· 87
〈표 26〉 능동적 거부 유형의 평가 양상 ····· 87
〈표 27〉 영상 1 ····· 124
〈표 28〉 영상 2 ····· 132
〈표 29〉 영상 3 ····· 133
〈표 30〉 영상 4 ····· 135
〈표 31〉 영상 5 ····· 136

[그림] 차 례

[그림 1] 이란문화와 한국문화 비교 ····· 24

Ⅰ.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한국 TV 드라마를 활용하여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 문화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한류 열풍으로 인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이란의 경우에는 2006년 이후부터 텔레비전에서 방송된 한국 역사 드라마를 통해서 한류 열풍이 불기 시작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학습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이란과 한국은 1962년 10월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한 후 1967년 4월 주 이란 한국대사관을 설치하였으며, 중동에서 최초로 60년대 초부터 한국과 교역 관계를 이루면서 문화교류 증진을 위해 1974년 문화협정도 체결하였다. 또한, 1977년 테헤란 시장의 한국 방문[1]을 계기로 서울시와 테헤란의 자매결연을 기념하여 각각 테헤란로와 서울로를 명명할 정도로 문화적 교류를 위한 노력이 있었다. 특히 현재 많은 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6년 한국 TV 드라마가 이란 사회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한류 문화 전파에 큰 역할을 하였다.[2] 주 이란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TV 드라마뿐만 아니라 K-pop과 한국어 등 한국문화에 대한 젊은이들의 관심이 증가했다고 한다. 또한, 세종학당에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이란 학생들의 입학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한국어 능력 시험 신청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류열풍과 양국 문화교류에 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

1) 1976년 6월 27일 중동지역의 건설 붐이 일었던 시기에 Gholamreza Nikpey 테헤란 시장이 서울시와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 한국을 방문, 한국의 이란 진출을 기념하며 서울시에 ‘테헤란로’를, 테헤란시에 ‘서울로’를 만들자고 제안하였다.

2) 강유진(2018), 「이란의 태권도 변천과정과 여성태권도의 성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현재까지 이란에는 체계적이고 공식화된 한국어 교육 제도가 미흡하며, 한국어 전공을 개설한 대학 또한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3] 한국인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어학당은 테헤란 세종학당 및 이스파한 세종학당 정도가 있으며, 테헤란 대학교 언어교육원의 경우 이란인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지만 횟수가 주 1회에 그치고 있어 교육적 효과는 매우 미비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대부분의 수업이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보다 독해를 위주로 진행되며, 학습자들이 배우는 내용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표현이 아닌 교과서에 나오는 공식적인 대화이다. 따라서 이란인 학습자들에게는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제대로 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나 시스템을 접할 기회가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이란의 정식 명칭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Islamic Republic of Iran)이며, 가치, 믿음, 행동거지, 사회적 상호관계 등 삶의 전반에 걸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코란(Quran) 경전[4]에 따라 이슬람교도들의 생활 문화가 구성되고 있다.[5] 또한, 이란은 페르시아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어와 전혀 다른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이슬람법은 이란의 생활문화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이란문화는 한국문화와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양국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이란의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한국문화에 적응하는 데에 많은 한계와 어려움을 나타낸다. 문화권이 서로 다른 사람들은 사고방식과 표현 방법도 다르고 이 차이가 언어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그 언어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화 간 접촉 과정에서 불완전한 의사소통으로 인한 문화충격과 같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문화적응 능력은 새로운 문화

---

3) 테헤란 대학교에서 외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주 전공 언어 외에 두 번째 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중에 한국어 과목이 있어 6학점을 수강할 수 있다.

4) 코란은 이슬람교의 유일신 ‘알라’의 예언을 받고 쓰인 것으로서 이슬람교도들이 진리로서 믿고 따르는 경전이다.

5) 강유진(2018), 「이란의 태권도 변천과정과 여성태권도의 성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에서 온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그 문화에 어울리고 그 문화에 대한 충격을 극복하게 한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이렇듯 문화적응은 새로운 문화를 배워 나가는 과정에 원어민처럼 새로운 문화로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 나가고 제 2 문화 상황 및 맥락에서 적절하게 대처하며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6)]

한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다른 나라 사람에게 잘 알려 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도구 중에 영상 매체인 TV 드라마가 있다. 대부분의 이란 학습자들은 한류를 통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한국 TV 드라마는 학습 동기 부여의 역할이 크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노출되기 힘든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유용한 학습 자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예비 조사에서는 이란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 TV 드라마를 통한 한국문화 학습 욕구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한국 TV 드라마가 이란 학습자들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란 학습자에게 가장 이해하고 적응하기 어려운 문화 경험으로 서열 문화, 술 문화, 회식 문화 등이 특히 지적됐는데, 이러한 주제를 다룬 TV 드라마를 학습시킨다면 학습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란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한국문화 중에서 서열문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한국 사회는 서열적 교류에 바탕을 두고 있는 사회이다. 보통 한국 사람들은 누군가를 처음 만나 인사를 하고 관계를 형성할 때 상대방의 나이부터 알고자 한다. 그래야만 나와 상대방 사이의 상대적 서열 위치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으며, 그에 걸맞게 어떻게 존비어를 사용할 것인지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사회의 대인 교류에서 지위, 나이 등과 같은 서열정보가 중요한 것은 적절한 존비어 사용과 같은 서열적 사회규범에 걸맞은 행동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서이기 때문이다. 한국인에게 서열사회의 행동규범을 지키는 것은 의사소통에 있어 필수적이다. 만약 규범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관계

6) 김수은(2008),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어문화 수업 개발 연구」,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3, 82쪽.

를 소원하게 만듦은 물론 갈등과 다툼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 따라서 한국문화에 있어 서열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TV 드라마에 나타난 한국 서열문화에 관한 내용을 해석하는 개별 학습자의 역량을 문화 해석의 중요한 요인으로 봤다. 학습자가 TV 드라마의 여러 장면에 포함된 서열문화 요소 중 어떤 부분을 인지하고 기억하는지, 이를 어떻게 구성해서 문화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이끌어내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한국 서열문화 교육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이란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수용 유형이 어떠한가?

둘째,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수용 유형에 따라 TV 드라마 장면에 나타난 서열문화에 대한 학습자들의 반응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셋째, 학습자들의 반응 양상을 토대로 TV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 서열문화 교육 방안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까?

2. 연구사 검토

먼저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화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문화적응의 개념과 이론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그 다음으로 서열문화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매체를 활용한 한국 문화교육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언어 교육에서 차지하는 문화의 중요성은 외국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도 의사소통이라는 언어사용 능력이 부각되고 언어와 문화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면서 한국어 교재에도 문화 교육의 비중이 증가되기 시작하였다. 초기 논의로서 조창환(1996)[7]은 한국어 교육과

연계해서 한국문화를 소개하였다. 이후부터 한국 문화교육 내용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정숙(1997)[8]은 한국어 숙달도 배양을 위한 한국 문화교육 방안을 연구하면서 문화 능력에 대한 교육적 의의와 내용을 언급해서 문화교육의 내용을 5가지 범주 (일상 생활양식, 문화적 특질을 내포하고 있는 언어적 요소, 담화 범주와 상황에 적절한 언어 형식, 정치·경제적 요소, 한국을 대표하는 문학과 예술)로 제시했다 . 조항록(1998)[9]은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 문화교육 방안을 제안했고 성기철(2001)[10], 배현숙(2002)[11], 권오현(2003)[12], 박영순(2003)[13] 등은 한국 문화교육의 의의를 확인하며 실제 교육 방안을 모색하려고 노력했다. 김대행(2003, 2008)[14], 성기철(2004)[15], 조항록(2004)[16] 등은 언어와 문화의 관계 및 한국어 문화교육의 의의와 내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국 문화교육 내용에 대한 연구들에는 이석주(2002)[17], 우인혜(2004

---

7) 조창환(1996), 「한국어교육과 연계된 한국 문화 소개 방안」, 『한국어 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7, 109-119.

8) 김정숙(1997), 「한국어 숙달도 배양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교육한글』, 한글학회, 10, 317-326.

9) 조항록(1998), 「한국어 고급 과정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한국어 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9(2), 223-237.

10) 성기철(2001), 「한국어교육과 문화교육」, 『한국어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2(2).

11) 배현숙(2002),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육 현황 및 문제점」, 『이중언어학』, 이중언어학회, 21, 178-199.

12) 권오현(2003), 「의사소통중심 외국어교육에서의 '문화' -한국의 학교 외국어교육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2.

13) 박영순(2003), 「한국어교육으로서의 문화 교육에 대하여」, 『이중언어학』, 이중언어학회, 23, 67.

14) 김대행(2003), 「한국어교육과 언어문화」, 『국어교육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2.

김대행(2008), 「언어교육과 문화인식」, 『한국어문화학』,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5(1), 1-62.

15) 성기철(2004), 「언어와 문화의 접촉-언어문화」, 『한국어문화학』,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1(1), 105-123.

16) 조항록(2004), 「한국 언어문화와 한국어교육」, 『한국언어문화학』, 국제한국언어문화학, 1(2), 193-210.

17) 이석주(2002), 「이중언어교육과 문화교육: 한국어 문화의 내용별, 단계별 목

)[18], 이길원(2007)[19], 황인교(2008)[20], 권오경(2009)[21] 등이 한국 문화교육의 내용을 범주화하여 교과 과정을 설계하는 시도를 하였다. 이수미(2008)[22]는 텍스트 읽기를 통해서 한국문화 이해의 양상을 밝히고자 했다. 김수진(2009)[23]은 문학작품을 활용하여 한국 문화교육을 전개하는 방안들을 제시함으로써 한국문화에 대한 정의적·맥락적 접근의 의의를 확보하였다.

최정순(2004, 2013)[24]은 한국 문화교육을 한국어교육과 동일한 가치로 통합하여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백과사전 식 교수 항목 나열이 학습자들이 진정한 의사소통을 위한 문화 교육적 성과를 얻는 데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2013년까지 정리한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교육의 전반적인 현황 자료를 통해 교재, 교원, 교수법과 연구를 한국어교육과 한국 문화교육의 문제로 적시하였다. 그중에 교수법에 대해서는 장기간 동안 '과제 기반 교수요목 설계'와 '의사소통적 접근법'이 강조되어 왔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더불어 '의사소통적 접근법'이 목표어와 목표문화에만 중점을 두는 것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교수법이 '상호문화이해'의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록 작성 시고」, 『이중언어학』, 이중언어학회, 21, 19.

18) 우인혜(2004),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항목 선정」, 『이중언어학』, 이중언어학회, 25, 149.

19) 이길원(2007), 「한국 문화의 교육 내용과 교육방법 연구」, 『언어와 문화』,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3(3), 159-175.

20) 황인교(2008),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 문화교육 연구」, 『언어와 문화』,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4(3), 265-287.

21) 권오경(2009),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 내용 구축 방안」, 『언어와 문화』,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5(2), 49-72.

22) 이수미(2008), 「텍스트 읽기를 통한 한국 문화 이해의 제양상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5(1), 273-291.

23) 김수진(2009), 「문학작품을 활용한 한국어문화교육 연구 -맥락 활성화에 기반한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3), 31-58.

24) 최정순(2004), 「한국어교육과 한국 문화교육의 등가적 통합」, 『언어와 문화』,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 63-81.

최정순(2013), 「한국어교육의 현황 및 발전 방향: 언어교육에서 문화교육까지 문화 간 의사소통적 접근법을 제안하며」, 『한국고전연구』, 한국고전연구학회, (27), 5-28.

강조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수업 설계와 진행 방법의 일환으로 시청각 교재를 활용하는 '시청각교수법'을 도입하여 평상의 언어를 맥락에 근거해서 가르침으로써, 문화를 실생활과 삶에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상호문화 이해를 추구해가는 문화수업을 제안하고 시도하였다.

임경순(2006)[25]은 '문화 중심의 언어와 문화 통합 교육', '문화 전문가에 의한 문화교육'을 강조하면서 한국 언어문화 교육의 목표를 문화 능력 신장으로 정하며 문화 능력을 창의적 의사소통 행위 능력으로 설명하면서 지식적 차원과 수행적 차원을 동시에 포함했다.

이타찌야나(2012)[26]는 호프스테드의 이론에 입각하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 러시아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비즈니스 맥락의 간문화적 의사소통 능력향상을 위한 문화교육 방안을 마련하였다.

김양순(2014)[27]은 한국어 등급이 중・상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TV 드라마를 활용하여 한국 문화교육과 한국어교육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봤다.

윤여탁(2015)[28]은 외국어교육에서 학습자가 목표 언어의 문화와 사회를 학습하는 것을 강조하고 학습자의 모어 문화와 목표 언어의 문화 간의 상호관계 차원에서 언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장청원(2018)[29]은 중국인 고급 학습자의 상호문화능력을 키우기 위해 학습자의 집단주의 문화에 대한 반응 양상을 분석하고 문학작품을 활용한 관념문화 교육 방안을 구안하였다. 이를 위해 관념문화의 개념과 특

---

25) 임경순(2006), 「문화 중심 언어와 문화의 통합 교수・학습 방법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한중인문학회, 19, 293-320.

26) 이타찌야나(2012), 「러시아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문화교육 연구: 비지니스 맥락의 간문화적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7) 김양순(2014), 「TV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방안 연구: 중상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8) 윤여탁(2015), 「한국 언어문화 교육의 질적 향상 방안」, 『한국언어문화학 한국언어문화학』,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12(1), 1-22.

29) 장청원(2018), 「문학작품을 활용한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 관념문화 교육 연구: 집단주의 문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성을 검토했으며 관념문화로서의 집단주의 문화의 개념과 속성을 살펴봤다. 아울러 문학작품이 관념문화를 교육하는 데 적절한 제재라는 관점에서 교육 현장에서 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필요한 원리를 제시했다.

류우진(2018)[30]은 직장생활을 반영하는 TV 드라마 <미생>을 활용하여 드라마에 나타난 한국 직장 호칭어의 사용방식과 문화적 의미 분석을 통해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홍매(2019)[31]는 한국어 교재를 통한 언어문화 교육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한국어 교재가 한국어 학습자의 사회문화적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바를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한국어교육에서 언어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회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위한 언어문화 교육의 목표에 따라 교육 내용의 선정과 교수에 기여할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였다.

한국어교육에서 문화적응에 대한 연구와 관하여 강승혜(2012)[32]에 따르면 스트레스와 문화적응 등의 문화적 요인에 관련된 연구들은 총 19편이 있었고 그중에 주목할 만한 연구들은 배현숙(2007)[33], 김정은(2008)[34], 이은정(2009)[35]의 연구들이다. 배현숙(2007)은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 문식성(literacy) 격차 해소”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김정은(2008)은 영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의 네 언어권별 문화 간 의사소통에서의 갈등 양상을 분석해서 의사소통 기술 및 가치관에 의한 갈등 양상과 가치관에 의한 양상으로 나눴다. 이은정(2009)은 한국어 학습자들의 숙달도에 따른

30) 류우진(2018), 「TV 드라마 <미생>을 활용한 한국 직장 호칭 문화 교육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1) 김홍매(2019), 「사회문화적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 교재의 언어문화 교육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2) 강승혜(2012), 「한국 문화교육 연구 동향 분석: 주제와 방법론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9(1), 1-38.
33) 배현숙(2007),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 문식성(literacy) 격차 해소 방안」, 『언어와 문화』,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3(1), 107-120.
34) 김정은(2008), 「문화 간 의사소통의 갈등 양상 분석」, 『한국어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9(2), 155-192.
35) 이은정(2009), 「한국어 학습자의 숙달도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연구했는데, 문화적 문식성의 격차를 좁히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교육 과정을 설계했다.

박우진(2015)[36]은 한국에서 문화적응을 겪는 중국 유학생이 인식하는 주관적 관점에서 소시오드라마 경험의 본질과 의미를 발견한다. 문화적응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국 유학생들에게 문화적응의 향상을 지원하는 지지체계로서 소시오드라마를 효과적인 사회복지 실천 개입방법으로 활용한 결과, 중국 유학생은 한국 유학 생활을 하면서 한국문화 속에 적극적으로 들어가 수용하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가 부족해서 자신감이 없었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푸옹마이(2016)[37]에서는 텔레비전 드라마 텍스트를 활용해 베트남 초・중・고급 한국어 학습자들이 문화충격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한국문화에 적응하게 하기 위한 교육 방안을 제안했고 학습자가 체계적으로 문화 지식을 습득하게 하기 위해서는 프레임 구성(framing) 접근법을 통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프레임과 새로운 프레임을 연결하고 확장하게 하는 문화교육 방법을 제시했다.

한편,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 서열문화 교육을 주제로 하는 연구는 드물지만 문화적인 요소로서 서열문화를 다루는 논문들이 있다[38]. 특히 한신신(2013)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TV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 높임법 교육 방안을 연구하였으며 김은경(2017)은 한국어 호칭어 교육 방안을 살펴보고 류우진(2018)은 한국 직장 호칭 문화를 교육하기 위해 TV 드라마 <미생>을 활용한 연구를 진행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교육 방법들이 다양하게 개발되면서 대중매체, 특히 TV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을 다룬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39] 대표적으로 김훈태(2017)는 한국 언어 및 문화교육

---

36) 박우진(2015), 「문화적응 어려움을 겪는 중국유학생의 소시오드라마 경험 연구」, 『학술발표논문집』,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2015(5), 261-290.

37) 푸옹마이(2016), 「베트남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화교육 연구: 텔레비전 드라마 활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8) 그중 최송현(2006), 박숙영(2007), 주명애(2011), 문찬기(2012), 한신신(2013), 박미숙.오영훈(2015), 김은경(2017), 류우진(2018) 등을 들 수 있다.

39) TV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교육 방안 연구들에서 문금현

현장에서 한국 대중문화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수업 자료로서의 대중문화가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수업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또한, 대중문화를 통한 한국문화교육은 교재 안에 제시된 문화에 대한 내용이 전통문화에만 편중되어 있는 한계를 보완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적인 내용을 다룰 수 있게 하고, 다양한 상황에 알맞은 한국어 사용을 간접 체험할 수 있게 한다고 보았다.[40]

그런데 활용할 수 있는 대중매체 종류는 TV 드라마, 영화, 만화, 광고, 뮤직비디오 등 다양하다. 이에 대해 조정래(2007)는 TV 드라마가 다른 영상 매체보다 더 사실적이고 문화적·사회적 배경들이 많이 제시되어 있으며, 한국 생활에서 쓰는 표현이 많이 나타나 있어서 학습자들에게 유용하다고 본다. 게다가 TV 드라마는 영화보다 구술성이 높고 일상성이 더 농후하며 공유성이 강하고 시의성이 뚜렷하며 분절성이 강해 TV 드라마가 영화보다 대중매체를 활용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교육에 더욱 적절하다고 본다.[41]

김훈태(2017)는 한국어 교육과 문화교육을 위해 TV 드라마를 활용하는 것에는 크게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첫째, 강의실에서 교재를 통해서 배운 한국어의 어휘, 문법, 표현 등을 TV 드라마의 대화 상황을 통해 확인하고 연습할 수 있다는 것, 둘째, 학생들이 교재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는 구어체의 특징과 그 사용 양상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 셋째, 학생들이 TV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한국의 가족관계, 학교생활, 직장생활 등에 녹아 있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알아가면서 현대 한국인의 삶의 모습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2000), 최인자(2004), 전지수(2005), 조정래(2007), 박찬숙(2008), 이윤희(2009), 푸옹마이(2009, 2016), 서현지(2010), 주소희(2010), 김윤선(2010), 한신신(2013), 김양순(2014), 왕단화(2014), 허양(2014), 심선애(2015), 김훈태(2017), 류우진(2018), Sang Nai Houy(2018) 등을 들 수 있다.

40) 김훈태(2017), 「한국의 대중문화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과 문화교육의 사례 -루마니아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드라마'의 활용사례를 중심으로-」, 『국제학술발표논문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7, 46, 50-51쪽.

41) 조정래(2007), 「〈대장금〉의 서사적 특성 연구」, 『현대 문학의 연구』, 한국문학연구학회, 31, 333-356.

다.[42] 이렇게 볼 때 한국어와 한국 문화교육에서 다른 매체보다도 TV 드라마를 활용한 수업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실용적임을 알 수 있다.

이수진(2019)[43]은 다양한 언어, 문화적 배경을 지닌 외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국가홍보영상의 복합 양식성을 활용하여 문화 이해 능력과 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 방안과 문화 읽기 방법을 접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매체를 활용한 문화교육에서 매체의 복합양식성과 학습자의 능동적 읽기를 바탕으로 문화에 대한 의미를 생성하는 교육 방안을 설계하였다.

지금까지 검토한 연구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한국 문화교육에 관한 연구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국어 교육에서 이란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이상 검토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란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TV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 서열문화 교육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이란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문화와 이란문화 간의 차이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해서 한국 서열문화에 적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화 능력이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TV 드라마가 가장 적절한 매체라는 가설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1) 예비 조사

본 연구 수행에 앞서 이란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문화에 접촉하는 데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지를 알아보고 TV 드라마 시청을 통해 한국문화에 관한 학습자들의 반응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예비 조사를 실시했다. 한

42) 김훈태(2017), 앞의 논문, 48쪽.
43) 이수진(2019), 「국가홍보영상을 활용한 한국문화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국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어 수준과 학습 기간이 서로 다른 학습자로 선정하였으며 예비 조사 대상은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에 다니는 이란인 한국어 1급~5급 학습자 7명이었다.

우선 한국문화 교육 내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한국에 살면서 어떤 한국문화가 가장 궁금하고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학습자의 답변을 수집하였다. 학습자들은 음식문화, 술문화, 회식문화 등 다양한 한국문화를 지적하였는데, 7명이 모두 공통적으로 언급한 것은 한국의 서열문화였다. 설문조사의 나머지 항목은 구체적으로 학습자들의 한국 TV 드라마 시청 빈도, TV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공부 경험, 한국인과 교류할 때 생긴 문화적 오해나 충격, 한국인과 의사소통할 때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한국 문화교육에 관한 요구와 TV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문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1차 설문조사에서 학습자들이 한국문화 중에 적응하기 힘든 것들을 확인하여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궁금해 하는 한국 서열문화 관련 상황이 담긴 TV 드라마 장면을 선정해서 예비 조사를 실시했다. 교육 자료로서의 TV 드라마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견[44]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 활용한 TV 드라마 장면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현실적이며 일상성이 짙고 현대 한국 사회와 문화를 잘 보여주는 TV 드라마 장면. 학습자들이 일상생활의 언어를 접할 수 있으며 실용성 있는 다양한 생활문화 요소도 함께 배울 수 있다. 또한, 현대 한국 사회와 한국인의 실제 생활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교육 원리와도 일치한다.[45]

2. 표준 현대 한국어가 사용된 TV 드라마 장면. 한국어 교육의 목표는 학습자들이 표준 현대 한국어와 특정 표현에 녹아 있는 한국문화를 학습하는 것이다.

3. 주요 인물이 젊은이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TV 드라마 장면. 수업

44) 푸옹마이(2009), 김양순(2014), 김훈태(2017)
45) 푸옹마이(2009), 207쪽과 김양순(2014), 45쪽.

효율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것 중 하나는 학습자들이 관심과 흥미를 더욱 가지게 되는 것이라서 학습자들과 비슷한 연령대의 배우들이 나오는 장면이 더 적합하다.[46]

4.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유발할 정도로 흥미로운 TV 드라마 장면. 학습자가 TV 드라마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느끼면 주의도 더 집중하며 학습 욕구도 높일 수 있다.

TV 드라마 <진심이 닿다>[47]에서 서열문화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장면 3개를 찾아 길이가 5분이 넘지 않도록 편집했다. 선정한 장면은 다음과 같다.

<표 1> TV 드라마 <진심이 닿다>에서 선정한 장면

시청 분량	시청 내용
제1회 36:44~38:01 (총 길이 01:17)	사무실에서 '연' 기획사 대표인 연준석과 진심의 매니저인 공혁준 사이의 대화 장면 (직급에 따른 서열)
제2회 14:00~14:52 (총 길이 00:52)	전통 식당에서 올웨이즈 로펌의 간판변호사인 권정록과 연령이 높은 클라이언트 사이의 대화 장면 (연령에 따른 서열)
제8회 24:53~25:25 28:08~31:34 (총 길이 03:57)	올웨이즈 로펌 소속 직원들 앞에서 인턴 신입사원의 자기소개와 신입사원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장면, 권정록(상사)과 오진심(비서) 사이의 대화 장면, 선배(유여름 검사)와 후배 사이의 대화 장면 (직급에 따른 서열)

예비 조사는 2019년 5월 23일에 TV 드라마 시청과 2차 설문조사 작성으로 이루어졌다. 예비 조사에서는 TV 드라마를 통해 한국문화에 대한 반응 양상을 탐색했다. 조사 진행 방법은 TV 드라마와 장면에 대한 충

46) 김훈태(2017), 49쪽.

47) <진심이 닿다>(tvN. 2019.2.6-3.28)는 이동욱, 유인나 주연의 16부작 TV 드라마로, 대한민국 최고 여배우인 오진심(오윤서)이 스캔들로 인해 더 이상 배우로 일하기 어려워지자 마지막 배역을 따내기 위해 로펌에 위장취업하면서 만난 워커홀릭 변호사 권정록과 사랑하게 되는 이야기다.

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험 목적에 관해 설명한 다음, 시청하기를 수행하며 시청한 후, 장면의 내용과 TV 드라마를 활용한 문화교육의 효과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는 방식이었다.

예비 조사를 수행한 결과, 조사 대상자들 대부분이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어 화자보다 지위, 직급, 연령 등이 높은 청자에게 높임말을 쓰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꼈다. 두 번째 장면의 경우에는 학습자들이 연령에 따른 서열보다 사회적 지위에 따른 서열에 주목했으며 두 명의 학습자만 연령에 따른 서열을 언급했다. 이는 이란에서도 나이가 많은 청자에게 높임말을 쓰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주의를 덜 집중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습자들은 세 번째 장면에서 인턴 신입사원들이 소속 직원들 앞에서 허리를 숙이고 높임말로 자기소개를 하는 것에 가장 많이 주목함을 보였다. 오리엔테이션 장면 및 상사와 비서 사이의 대화 장면에서 등장인물들이 존댓말을 쓰는 것을 회사 분위기 때문이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마지막 장면에서 학습자들은 모두 선배와 후배 사이의 서열문화를 파악할 수 있고 이것이 한국문화의 특징임을 알 수 있었다고 답했다.

한국문화와 달리 이란문화에서는 선배와 후배 사이에 높임말을 쓸 필요가 없지만, 한국어 학습자들은 대부분 선배와 후배 관계를 초급 단계부터 배우기 때문에 이런 서열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은 실제로 한국인과 접촉할 때 높임말과 반말을 쓰는 경우에 대해 많이 헷갈린다고 응답했다. 이란문화에서는 서열이라는 문화가 없기 때문에 문화 차이로 인하여 학습자들은 한국 서열문화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생활에 적응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보이는 것이었다.

전체적으로 TV 드라마 활용에 관한 모든 학습자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드문 상황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어 그런 상황 속에서는 어떠한 언어를 쓰는지를 알려주므로 효과적이라고 응답했다. 다만 한 명의 학습자가 시청 전 단계에서 TV 드라마 장면의 배경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 본 조사

본 조사에 앞서 실시한 예비 조사를 통해 한국 서열문화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생활 경험이 있는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들의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수용 유형과 반응 양상을 살펴봤다. 자료 수집은 온라인 방식으로 2020년 3월 8일에서 3월 13일까지 이루어졌다. 연구 대상자들의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반응 양상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TV 드라마 <미생>[48]에서 서열문화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장면을 선정하여 총 12분 분량의 영상 파일 5개를 학습자에게 시청하게 한 직후 서술형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서열문화에 대한 학습자들의 수용 유형을 분류하였다. 수용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베리 (Berry)의 문화적응 유형을 참조, 변형하여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수용 유형을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이란 학습자의 수용 유형을 범주화한 후 시청한 장면에 대한 그들의 반응 양상을 검토하고, 검토한 양상이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수용 여부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2>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수용 유형 범주와 내용

유형		내용
수용	능동적 수용	한국 서열문화에 대해 긍정적 이해와 문화적 필요성을 인식하여 적극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
	수동적 수용	한국 서열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해하지 않지만 한국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
거부	능동적	한국 서열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적극

48) 20부작 TV 드라마인 <미생>(tvN. 2014.10.17-12.20)은 2014년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드라마 중 하나로 인식되며, 직장인들 사이에서 미생 열풍을 불러일으키게 한 작품이자, 직장인의 애환과 현대인의 삶을 잘 보여준 작품이라 평가받고 있다. 원작에서 가져올 것은 가져오고, 각색할 건 각색하며, 따뜻하고 감성적인 연출과 현실성이 높은 게 특징이다. 또한 독백의 비중이 매우 크며, 등장인물 한두 명에 좌우되지 않고 다양한 등장인물을 조명한다.

	거부	거부하고자 하는 태도
	수동적 거부	한국 서열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해하지만 이란문화 지향성이 높아 거부하고자 하는 태도

Ⅱ장에서는 먼저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살펴본 후에 문화교육과 문화적응에 대한 이론을 검토하고 영상 매체인 TV 드라마를 활용한 문화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TV 드라마 장면에 나타난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의 수용 유형과 반응 양상을 밝히고 한국 서열문화 교육 시사점을 설명하려고 한다. Ⅳ장에서는 TV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 서열문화 교육의 목표, 내용 및 방법을 설계할 것이다.

Ⅱ.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문화 교육의 이론적 고찰

1. 언어와 문화의 관계

세계 경제의 발달로 여행이나 이민 등과 같은 인구 이동 현상이 일어나고 다른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과의 상호 접촉이 증가하고 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접촉은 그들의 문화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친다. 의사소통은 화자뿐만 아니라 청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문화 간 의사소통은 화자와 청자를 모두 고려하는 복잡한 과정이며 문화적 배경의 영향을 받는다.

의사소통에 대한 학술적 정의는 다양하지만,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스튜어트(Stewart)와 루벤(Ruben)의 정의이다. 스튜어트와 루벤에 따르면 "인간 의사소통은 관계나 집단이나 조직 그리고 사회 속의 개인들이 환경과 서로에게 적응하기 위해 메시지를 창출하고 메시지에 반응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정의를 빌어 문화 간 의사소통은 한 문화인이 다른 문화인이 사용할 메시지를 만들 때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의사소통 상황이 달라질 정도로 상징체계 및 문화적 지각이 다른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수반한다.[49]

한편, 문화 간 의사소통은 언어적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포함한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정보원과 환경의 이용에 의하여 생기고 정보원과 수신자에게 메시지 가치를 지닌 의사소통 환경의 모든 비언어 자극을 포함"하며, 구체적으로는 외모, 의복, 몸의 움직임, 몸짓, 표정, 시선의 마주침과 응시, 신체접촉, 냄새, 준언어 (목소리, 목소리 특성 등), 사투리와 억양, 공간과 거리, 시간, 침묵 등이 그것에 해당한다.[50]

---

49) L. A. Samovar, & R. E. Porter (2007). *Communication between cultures(6th ed.)* [정현숙・김숙현・최윤희 역(2013),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북스], pp19-20.

1980년대에 제2 언어와 외국어 교수학습에서 문화를 구현하는 연구는 몸동작 언어, 눈 맞춤, 그 외에 명백한 행위와 의사소통 패러다임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문화적으로 정의된 행위를 비교하는 것은 동작, 움직임, 눈 맞춤, 유형의 개념을 언급하는데, 어휘의 한계, 앵글로-아메리칸 사회밖에 존재하지 않는 관계와 정확성과 같은 일반적 주제를 말하였다.[51]

홀(Hall)은 1977년에 "문화는 의사소통이고 의사소통은 문화이다."라고 말했다. 문화와 의사소통은 분리할 수 없는, 서로 엮인 것이다. 사람들은 생활 중의 문제를 처리하고 고품질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문화를 보존하고 유지한다. 문화는 역사, 종교, 사회조직, 가치관 등 요소를 포함한 광범위의 개념이며 그 문화가 사용하는 언어에도 영향을 준다. 마르셀라 (Marsella)는 문화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공유되고 학습된 행위라고 했다. 문화에는 외적 표상 (유물, 제도)과 내적 표상 (가치관, 인식론)이 있으며 문화의 목적은 개인과 사회의 생존, 적응, 성장 및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다.[52]

언어와 문화 각각의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언어는 정보 전달과 감정을 표현하는 인간의 행위이며, 문화는 이러한 인간 행위의 모형이나 배경이다. 언어와 문화의 이러한 불가분의 관계에 관한 몇몇 학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사피르 (Sapir, 1921)는 인간이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언어는 인간이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어떤 양식을 규정한다고 말했다. 또한, 언어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 구성원들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결정한다고 했다.[53]

리버스 (Rivers, 1981)는 언어가 사회문화적 맥락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목표 언어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관한 이해

---

50) 유수연(2008), 『문화간 의사소통의 이해: 다문화시대의 소통방법』, 문화사.
51) E. Prechtl, & A. D. Lund (2007). Intercultural competence and assessment: perspectives from the INCA Project, 467-490.
52) L. A. Samovar, & R. E. Porter (2007), 앞의 책, p45.
53) E. Sapir (1921). *Language: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speech*. Harcourt Brace.

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는 언어의 습득과 더불어 후천적으로 학습하는 것이고 한 공동체 사회 구성원의 신념과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를 표현하는 수단인 언어와 문화는 밀접한 관련이 있고 상호 작용을 한다.[54]

브라운 (Brown, 2001)은 "언어는 문화의 일부분이고 문화는 언어의 일부분이다. 언어와 문화는 서로 엉켜있어서 각각의 의미를 잃지 않으면서 분리될 수 없는 관계"라고 주장하면서 제 2 언어 습득은 곧 제 2문화 습득이라고 하였다.[55] 이는 곧 언어 습득은 반드시 몸짓이나 행위 등 그 문화에 대한 이해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언어를 학습할 때마다 목표 언어의 문화에 대한 학습도 같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언어를 교수할 때에도 목표 언어 공동체의 문화적 관습, 가치관, 사고방식, 감정, 몸짓 등의 행동 양식 등을 교수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언어는 목표 언어의 사회 또는 문화에서 기능을 수행하고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목표 언어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문화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작용하는 환경 또는 배경으로 인간의 성장은 곧 그 사회의 문화를 학습하고 내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인간이 성장하면서 사회화하는 과정은 그 사회에 대한 인간의 '문화화'인 것이고, 이렇게 문화화된 인간이 다른 문화를 내재하고 있는 또 다른 인간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다른 문화와 사회를 이해해야 한다.[56]

이런 식으로 언어와 문화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바람직한 목표 언어를 제대로 학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즉, 목표 언어를 올바르게 학습하며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문화교육이 필요하다.

---

54) W. M. Rivers (2018). *Teaching foreign language skill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55) H. D. Brown (2001) [권오량・김영숙・한문섭 역(2002), 『원리에 의한 교수: 언어교육에의 상호작용적 접근법(제2판)』, 피어슨에듀케이션 코리아].

56) 서경혜(2013), 「한국 문화교육을 위한 한국인의 가치체계 연구: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언어와 문화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언어 중심의 문화 통합 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문화 중심의 언어 통합 교육이다. 언어 중심의 문화 통합 교육은 언어 교육을 일차 목표로 하며 문화교육을 같이하는 것이다. 반대로 문화 중심의 언어 통합 교육은 문화교육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며 문화교육을 하면서 그 안의 언어를 함께 교육하는 방식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언어 중심의 문화 통합 교육이 있다. 이는 언어 교육을 위해서 고안된 교육 과정에서 문화 요소는 언어의 이해와 사용을 돕는 수단이므로 문화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언어 교육에 의존하는 방식이다. 문화교육은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단계로 선별되며 언어 수업의 일부로 구조화된다. 또한, 획득한 문화 정보는 언어와 통합해서 언어능력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쓰인다. 이 구조에서의 문화교육의 목표는 언어사용에 필수적인 일상생활 문화, 언어가 암시하는 문화적 내용에 대해 학습하고 언어를 통해 학습하는 문화적 내용을 비판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문화 중심의 언어 통합 교육이 있다. 문화교육을 위해서 설계된 교과과정 속에서 언어 요소는 문화교육의 수단 또는 제2 교육 내용이 된다. 문화교육은 주로 학습자가 문화적 충격을 완화하고 이 문화 사회에 성공적으로 동화될 수 있는 요소 또는 지적 호기심이나 개인적 흥미로 알고 싶어 하는 문화 요소를 대상으로 한다 (이미혜, 2005; 374쪽). 본 연구는 이란 학습자들에게 한국 서열문화를 우선적으로 이해시키며 적응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문화 중심의 언어 통합 교육에 해당된다.

목표 언어의 문화를 이해하면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 기능을 습득하고 언어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학습자들은 외국어 학습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또한, 이러한 교육은 학습자들이 자국 문화의 한계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계를 보고 균형 잡힌 관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문화교육은 학습자들에게 두 문화 간의 사회적 거리를 좁히고, 목표문화에 관한 다양한 가이드를 통해 통찰력을 개발하며, 문화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 등에 대해 알게 함으로써 문화충격을 최소화해 주는 것이다 (김귀석・이

수경, 2003; 66쪽).

2. 문화교육과 문화적응

이 절에서는 이란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를 이란 학습자들이 한국문화를 학습하고 그에 적응하는 과정을 방해하는 주요 장애 요인으로 판단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는 상호 문화적 관점에서 관련 문화 개념을 살펴볼 것이다. 이론적 고찰을 근거로 하여 Ⅲ장에서는 TV 드라마를 통한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이란 학습자들의 반응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장에서 우선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육의 정의와 필요성을 논의한 후, 이란과 한국의 문화 간 차이와 각 국가의 서열문화를 살펴보며, 문화적응의 개념과 이론을 고찰할 것이다.

1) 문화교육의 정의 및 필요성

문화교육은 문화와 교육의 합성어로서, 단순하게 말하자면 문화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뜻한다. 문화는 영어의 culture나 독일어의 Kultur 등을 번역한 낱말이다. 이들은 라틴어 cultura에서 유래하여 17세기 이래로 유럽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낱말은 처음부터 농경과 정신적 재산의 돌봄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쓰였다. 문화의 개념은 후자의 뜻에서 점차 한 민족이나 사회의 정신적·예술적 표현의 총체라는 의미로 형성되어 갔다. 오늘날 문화라는 말은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하나는 교양 있고 세련되었으며 예술적인 면을 가리키는 것으로, 일반적인 개념이다. 교양 있고 세련된 사람을 두고 문화인이라 부르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 하나는 인류에게만 볼 수 있는 사유, 생활방식 중에서 유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학습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습득하고 전달받은 것의 총칭을 의미한다. 문화는 인간 생활의 전반적인 영역에 포함되어 있고 언어는 그 문화를 공유하고 계승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운다는 것은 그 나라가 속한 언어권의 언어에 대

해서도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외국인 학습자들의 가장 큰 목표는 원어민과 문제없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함이며, 따라서 과거의 언어만 전달하는 방식이 아닌 현실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의사소통능력은 언어능력과 문화능력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사소통능력은 문법적인 언어의 기능은 물론 사회문화적인 상황에서의 적절하고 정확하게 언어를 구성하는 능력과 이해하는 능력까지 필요로 한다. 따라서 언어의 4가지 기능인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외의 목표 언어 사회 구성원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까지 이해할 수 있는 문화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박영순(2003)은 문화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면, 첫째, 언어이해 교육의 효율성을 높기 위해, 둘째, 언어교육의 정확성을 위해, 셋째,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 넷째, 올바른 번역과 통역을 위해, 다섯째,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해, 여섯째, 목표 언어 사회의 전문적인 연구를 위해 문화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리버스(Rivers, 1968)도 외국어 교육의 목표를 언어학적 기능과 문화적 기능으로 구분하고 언어 습득 이상의 지적 능력과 교양, 국제적 의사소통 능력 등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문화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는데 첫째, 외국어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지적 능력을 키우는 것, 둘째, 외국어로 쓴 문학작품과 철학을 통해 학생의 개인적 교양을 늘리는 것, 셋째, 학생들에게 언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관한 이해를 증대시켜 외국어 학습을 통해 모국어의 기능을 보다 잘 이해하는 것, 넷째, 학생들에게 외국어 독해 능력을 키워줌으로써 최근의 저술, 연구 및 정보에 접할 수 있게 하는 것. 다섯째, 학생들이 또 다른 언어적, 행동적 그리고 문화적 틀 안에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 여섯째,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이 배우고 있는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에 대해 공감함으로써 그들에 대해 보다 폭넓은 이해를 하도록 하는 것, 일곱째, 학생들에게 외국인들과 구두와 서신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 하였다.[57]

문화교육은 실제 그 사회의 상황에 맞는 언어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구사하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의사소통의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여 충족시킴으로써 동기를 강화하여 학습 효과를 높인다. 서현지(2010)[58]는 초급 단계에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사할 때의 행위규범, 한국어의 호칭이나 경어법 등의 기본적인 문화를 이해하고, 중급 단계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문화는 물론 그 속에 담긴 배경, 가치관 등의 이해와 더불어 한국의 전통문화와 풍습을 알고자 자국 문화와 비교하여 문화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으며, 고급 단계에서는 문화 간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의 정치・경제・철학 등의 전반적인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 수용하고 창조하며 목표문화의 다양한 문화적 현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고 하였다.

개인 간이든 집단 간이든 문화 간 접촉은 곧바로 상호 간 이해와 문화 적응을 이뤄내기보다는 오히려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별하는 고정관념을 더 강화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다른 사람들에 관한 판단을 공정하고 정직하게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문화에 대한 이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 장에서는 한국문화교육의 접근을 위해 우선 한국문화와 이란문화를 비교하고자 한다. 그 후에 한국문화 중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서열문화를 살펴볼 것이다.

(1) 문화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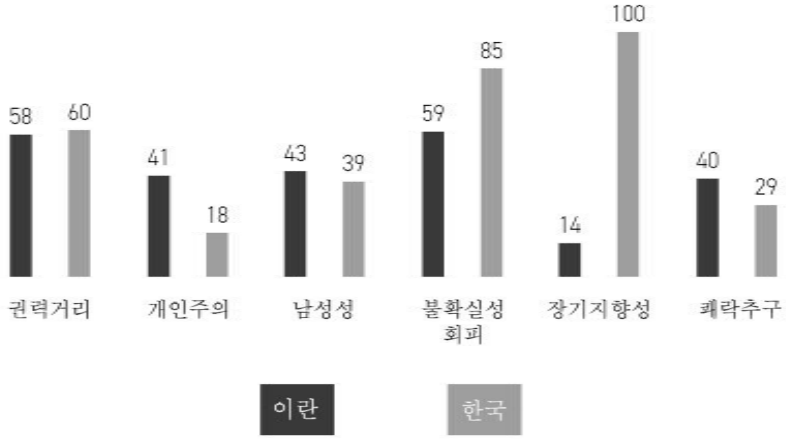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은 대체로 문화와 관련된다. 상호문화 연구에서 문화 간의 차이를 구별하는 데 행동 유형을 분석하는 분류법을 고안한 연구자로는 대표적으로 사회학자이자 비교문화

57) 당영화(2015), 「TV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 문화교육 방안 연구」, 세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재인용

58) 서현지(2010), 「TV드라마를 활용한 한국 문화교육 방안 연구-드라마<가문의 영광>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하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학자인 호프스테드(Geert Hofstede)가 있다. 호프스테드는 문화를, 한 집단의 구성원들과 다른 집단의 구성원들을 달라지게 하는 집합적 '정신 프로그램(software of the mind)'으로 보았다. 그는 한 사람의 정신 프로그램은 그 사람이 자라고 생활경험을 축적한 사회 환경 속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며, 그 프로그램의 형성은 가족 안에서 시작되고, 이어서 이웃, 학교, 직장, 동아리, 지역사회 안에서도 일어난다고 보았다.

호프스테드는 국가 간 문화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문화의 6차원을 개발하여 각 나라의 문화 가치를 측정하였다.[59] 호프스테드의 문화 차원에 따른 한국문화와 이란문화 간 차이는 다음의 도표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이란문화와 한국문화 비교

도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이란문화와 한국문화는 개인주의·집단주의 (Individualism·Collectivism), 불확실성 회피 (Uncertainty Avoidance), 장기지향성 (Long Term Orientation), 쾌락추구·절제 (Indulgence·Restraint)의 순으로 차이가 나타나며 권력거리 (Power Distance)와 남성성·여성성 (Masculinity·Femininity) 차원에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 수 있다.

59) G. Hofstede, G. J. Hofstede, & M. Minkov (2010).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먼저 권력거리는 사회 속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차원으로 이는 국가 내의 사회계층, 교육수준, 직종, 학교, 직장에서의 권력거리를 반영하며 그 국가의 정부, 사상과도 관련이 있다. 권력거리는 또한 부하들이 상사들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키는 감정적 거리에 관한 것이다. 권력거리 지수는 한 국가에서의 의존관계를 말해주는데 지수의 크기에 따라 상사와 부하직원간의 상호의존관계의 크기가 달라진다. 권력거리 지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국과 이란 점수가 각각 60점과 58점으로 계층 사회이며 사람들은 계층 질서를 받아들이고 자기가 소속된 계층에서 위치가 있으며 더 이상의 정당화는 필요하지 않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조직 내에서의 위계는 내재된 불평등, 중앙 집중의 보편화를 반영하며 하부 계층에서는 행동 지침을 부여 받고 이상적 지도자는 일종의 자애로운 군주로 간주된다.

개인주의·집단주의에서의 전자는 개인 간의 구속력이 느슨한 사회이며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과 자기의 직계 가족을 돌보면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후자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결속력이 강한 내집단에 통합되어 있으며 일생동안 무조건적으로 내집단에 충성하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 집단이 개인을 지속적으로 보호해주는 사회를 말한다. 개인주의 지수에 대해서는 한국과 이란 점수가 각각 18점과 41점으로 집단주의 사회로 간주되며, 이는 가족, 확장된 가족 또는 확장된 관계 등의 구성원 집단의 밀착된 장기간 헌신에서 분명해진다.

남성적 문화 및 여성적 문화와 같은 남녀 역할 유형의 안정성은 사회화의 문제인데, 남성성 여성성 차원이 잘 인식되지 않는 이유는 이 차원이 국가의 부와 전혀 무관하다는 데에 있다. 개인은 남성적이면서 동시에 여성적일 수 있지만 국가문화는 어느 한쪽이 아니면 다른 쪽이 우세하다. 한국과 이란은 남성성 지수에서 39점과 43점으로 여성적 사회로 간주된다. 여성적 국가에서 중점은 “살아남기 위해” 일하는 데 주어지며, 관리자는 동의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람들은 평등, 연대와 노동생활의 질을 소중히 여긴다.

불확실성 회피문화와 수용문화에서의 “불확실성 회피란 한 문화의 구

성원들이 불확실한 상황이나 미지의 상황으로 인해 위협을 느끼는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국은 불확실성 회피 지수가 85점으로 세계에서 가장 불확실성 회피성이 높은 나라 중 하나이다. 이란도 이 분야 59점으로 불확실성 회피에서 높은 평점을 받았다. 높은 불확실성 회피성을 보이는 나라는 견고한 신념과 행위규범을 유지하고 이단적 행위와 사상에 비관용적이다.

장기지향 문화와 단기지향 문화의 차원에서 장기지향은 미래의 보상을 지향하는 미덕의 수양을 의미한다. 특히 끈기와 절약 가치에서 그렇다. 단기지향은 과거 및 현재와 연관된 미덕의 수양을 의미하고 특히 전통 존중, 체면 유지, 사회적 의무의 이행가치에서 그렇다. 이 차원은 처음에 ‘유교적 역동성(Confucian dynamism)’이라는 이름이었다가, 나중에 장기지향성으로 명명했다. 장기지향성 지수에서 한국은 100점으로 가장 실용적이고 장기지향적인 사회의 하나이다. 하나의 유일한 전능한 신의 개념은 한국에 친숙하지 않다. 사람들은 도덕과 실제적인 좋은 사례들에 따라 삶을 영위한다. 14점을 받은 이란은 매우 규범적인 문화적 지향성을 나타낸다. 그러한 사회의 사람들은 절대 진리를 확립하는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란 사람들은 전통에 대한 존중, 미래를 위해 절약하는 데 상대적으로 작은 성향을 보여주며, 빠른 결과 성취에 중점을 둔다.

자적 문화와 자제 문화 차원에서 자적은 재미있게 지내기, 삶 즐기기와 연관된 인간의 기본적 자연적 욕망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충족을 허용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자적과 반대인 자제는 그러한 욕구 충족이 엄격한 사회적 규범에 의해 규제되고 억제될 필요가 있다는 확신을 나타낸다. 쾌락추구 지수 29점을 획득한 한국과 40점의 이란은 절제 사회의 하나로 보인다. 이 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가진 사회는 냉소주의와 염세주의의 경향이 있다.

이처럼 호프스테드의 문화 6차원을 통해서 드러난 한국문화와 이란문화의 특성을 파악해 보았다. 이상에서 보듯이 호프스테드의 문화개념은 어떤 문화를 다른 문화와 구분하게 하는 그 문화만의 고유한 특성에 주

목한다. 이러한 개념을 통하여 하나의 문화권의 구성원들이 다른 문화권 구성원들과 다른 행동과 사고방식을 가지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서열문화는 호프스테드의 문화 6차원 중에서 권력거리에 해당된다. Adler(2002)에 의하면, 권력거리가 큰 사회는 서열을 중시하고, 권력거리가 작은 사회는 서열을 중요시하지 않는다.[60] 심지어 권력거리가 큰 사회에서는 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하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과는 다른 사람으로 여기는 경향을 보인다.[61] 위에서 확인했듯이 유교문화에 기초한 한국과 이슬람 문화를 키워나갔던 이란은 둘 다 계층 사회이지만 이란의 서열문화 양식은 한국 서열문화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점을 알아내는 것은 한국 서열문화 교육에 기여할 수 있다.

(2) 서열문화

대인 교류에 관한 기존 사회심리학의 연구는 대등적인 교류 특성을 보편적인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을 전제해왔다. 그러나 심리 인류학자인 피스크(Fiske, 1990)는 관계 맺음의 양상을 공동체적 공유관계, 권위적 서열관계, 대등적 상응 관계, 시장적 가치 관계 4가지 유형으로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62]

첫째, 공동체적 공유관계에서는 관계 맺음의 중요한 요인으로 공동체의 성원의식이 작용하며, 가족관계, 친밀한 연인, 친구 관계가 대표적이다. 이 관계에서는 개인의 능력보다 공동체 성원에 대한 배려심과 아끼는 마음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둘째, 권위적 서열 관계의 경우에는 집단 내에서 신분, 위계, 서열에 의해 역할이 구분되며 관계가 맺어지는 형태로 관료조직, 군대, 기업조

---

60) N. Adler (2002). *International Dimensions of Organizational Behavior*, Cultural Difference Studies, South Western Press, p60.

61) 최윤희(2003), 「이문화관리와 문화적 가변성의 차원에 관한 일 고찰」, 『국제지역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7(4), 212쪽.

62) A. P. Fiske (1990). Relativity within Moose (“Mossi”) culture: Four incommensurable models for social relationships. *18*(2), 180-204.

직 등이 대표적이다. 조직의 목표달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상명하복의 규범이 중요하고, 상위 서열의 사람들에게는 결과에 대한 책임이 부여된다.

셋째, 대등적 상응 관계에서는 호혜적 상응 교류가 규범으로 작용하며, 동료, 친구 관계가 대표적이다. 이 관계에서 성원들 각자는 독립적인 존재들로써 서로 대등하다. 개인의 능력, 재능과 같은 자원과 관련 없이 동일한 개인으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옳고 그름의 판단은 모든 성원들이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모든 성원들이 합의에 의한 규범을 준거로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시장적 가치 관계에서는 교류의 형평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대부분의 상업적 거래 관계가 이에 해당한다. 이 관계의 유지 원리는 목적 달성을 위해 구성된 조직 내 성원 간 혹은 조직간 협동관계에서 각자가 기여한 만큼 거두는 것이다.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했는가에 따라 옳고 그름의 판단이 이루어진다.

4가지 관계 유형은 모든 문화권에서 나타나지만, 문화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유형은 각기 다르다. 그러나 기존의 사회심리학에서는 대등적 상응관계와 시장적 가치 관계의 현상에만 주안점을 두었고 동아시아 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권위적 서열 관계와 공동체적 공유관계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63]

서구 사회에서 대인 교류는 대등하고 독자적인 인격체 간의 관계 맺음을 전제하고 있다.[64] 반면 한국에서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상대방의 서열에 따라 마땅히 지켜야 할 서열적 규범이 존재한다.

한국은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대할 때 태도와 행동이 공손해야 하며, 언어표현에 있어서도 존대어를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서열적 규범은 한국의 일상적인 대인 교류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직장 상사, 선배 등의 서열 관계상의 교류에서는 친구, 동료와 같은 대등한 관계의 교류와는 확연히 다른 대인 교류 행동

63) 한규석(2009), 『사회심리학의 이해(3판)』, 학지사.

64) R. T. Hogan, & N. P. Emler (1978). The biases in contemporary social psychology, Social research. *45*, 478-534.

양상을 보인다. 즉 상대방의 서열이 자신보다 높을 경우에는 서열적 규범에 걸맞은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한국 사회에서의 대인 교류는 손윗사람-손아랫사람, 선배-후배, 연장자-어린사람, 상사-부하의 관계처럼 서열적인 교류 양상이 뚜렷하다. 한국 사회에서 이들의 관계 맺음은 서열에 따른 역할과 규범이 보다 명확하게 구분되며, 교류 관계가 일방향적으로 작용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즉, 한국 사회에서 대인 교류는 수직적 형태로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역할, 위치가 명확히 구분되고, 관계가 지속되는 한 크게 변화 없이 서열적 위치가 유지된다. 물론 교류행위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친밀감과 같은 정적 정서가 증가하며 상대방 행동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서 초기의 경직된 서열적 교류 형태가 완화되기도 한다.[65] 그러나 일반적으로 서열적 교류 규범의 파괴는 윗사람이 허용하는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한 번 맺어진 서열 관계는 서로 역전되지 않으며, 관계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다.

한국인의 대인 교류가 지닌 가장 현저한 특징은 서열의 정립에 있다.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대인 교류는 초기 단계에서 상대방의 나이 혹은 사회적 신분과 관련된 서열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며, 명시적 확인 절차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암묵적으로 상대방의 서열정보를 추측해 교류행위를 계속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66]

한국인의 대인 교류에서 서열정보의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 자신의 서열적 위치에 따라 교류 상황에서 요구되는 언어와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명시적인 서열 확인의 절차는 관계 형성 및 지속에서 서열성을 확인하는 언어표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낯선 사람과의 만남에서 한국인은 거리낌 없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몇 학번이신지?” 등과 같이 관계의 서열정보를 확인하고자 한다. 명시적 확인 절차는 대인 교류에 있어 상대방과 자신의 서열적 위치를 명확하게 해줌으로써 자신의 적절한 행동 범위와 역할을 규정함과 동시에 상대방

65) 최송현(2006), 「서열적 교류에서 나타나는 대인평가의 준거차이」,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6) 한규석(2009), 앞의 책.

의 관계역할과 행동 범위의 적절성을 제한한다.

첫 만남에서 서로 존칭어를 사용하던 두 사람은 명시적 서열 위치 확인을 통해 이전과 다른 언어사용이 허용되며 임시적으로 대등적 관계에 놓였던 당사자들은 이후 서열적 관계 형태로 대인 교류를 지속하게 된다. 아랫사람은 존칭어 사용을 유지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서열적 위치를 확인해 주기도 한다.

반면에 윗사람은 이전의 통속적인 존칭어 사용의 압력에서 벗어나 언어사용의 통제력을 크게 가질 수 있다. 바로 이것이 한국인의 대인 교류에서 나타나는 명시적 서열 확인에 따른 관계 재정립이라 할 수 있다. 명시적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인은 대인 교류에서 암묵적으로 관계적 서열 위치를 추정한다. 직접 상대방의 서열정보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외현적 정보를 바탕으로 상대방과 자신의 관계 위치를 추정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한국 사회에서의 대인 교류는 친구와의 교류를 제외하면 선배, 연장자, 선생, 상사 등의 손윗사람과의 교류이거나 후배, 학생, 부하 등의 손아랫사람과의 교류이다. 나이에 따른 서열의 성립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고, 대인 교류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 분노, 다툼, 관계의 소원함 상당 부분은 서열성에 의해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한국 사회에서의 서열성은 일단 성립되면 상황 맥락마다 바뀌기보다는 두 사람의 관계의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 잡아 상황에 구애받지 않으며 거의 영구적으로 작용한다는 특징이 있다.[67] 이러한 특징으로 교류의 서열성이 상황 맥락에 따라 국한적으로 작동하는 이란과 같은 나라와의 서열성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란 사회에서는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은 청자에게 높임말을 쓰는 문화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어가 복잡하지 않다. 예를 들면 평소에 나이 차이나 조직에서 지위적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에도 한국과는 다르게 서열을 따지지 않고 높임말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어색함이나 서

67) 국민호(2007), 『동아시아 발전과 유교문화』, 전남대학교 출판부.

먹서먹함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이다.

사퍼르 모가담(A. Saffar Moghaddam, 2009)[68]은 페르시아어와 한국어의 '예절' 개념을 비교하였다. 언어학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어와 한국어에는 공손함을 표현하는 언어적 자질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이란과 한국 사회 사이에는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유사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란과 한국 사회에서 공손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권력, 상관성, 성별, 나이, 사회적·문화적 지위를 꼽았으며 한국 사회에서 예의 체계가 형성한 데에는 사회 계층 구조와 유교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지적하였다.

이란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있으며, 부모와 가족에게 반말을 하더라도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존댓말을 쓰도록 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비슷한 또래인 선후배 간에서는 존대를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나이와 학년에 상관없이 다 친구가 될 수 있다.

위계질서는 군대나 정치인들의 대인관계에서 엄하게 작동하며 학교와 일부 직장의 경우 회사 분위기에 따라 존재하지만, 그 외 대부분의 경우에는 엄격하게 따지는 편이 아니다. 예를 들면 윗사람을 만날 때에도 일상적인 표현으로 인사를 하고 때로는 두 손을 모으고 인사를 표현하지만 고개나 허리를 숙이지 않는다. 이렇듯 이란은 서열문화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한국의 서열문화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양상 차이로 인해 한국어의 경어체계에 익숙하지 못한 이란인 학습자가 서열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실수를 범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 즉 한국 사회에서의 생활과 문화적응에 필요한 한국의 서열문화를 이해하고 이에 맞는 행동양식을 갖추어야만 어려움 없이 원만한 대인관계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TV 드라마를 활용한 이란 학습자들에게 한국 서열문화를 학습시킬 목적으로 그들의 서열문화에 대한 반응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

68) 사퍼르 모가담(2009), 「한국어와 페르시아어에서의 예절 요소 비교」, 『이란의 문화연구 저널』, *2*(1), 77-97.

2) 문화적응의 개념 및 이론

(1) 문화적응의 개념

문화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획득, 공유, 전달하는 행동양식과 생활양식이다 (Uba, 1994). 그리고 적응은 주어진 환경 조건에 맞추어 자기 자신을 변용시켜 나가는 일련의 과정으로써 개인의 주체적인 능동성과 의지가 강조된 개념이다 (김귀옥, 2000). 따라서 문화적응이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이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의 결과로 일어나는 변화"로 정의된다 (Berry, Kim, Minde & Mok, 1987; 조인영, 2010). 이는 새로운 문화적 환경에 접촉하며, 적응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문화 간 접촉의 결과로 발생하는 사회문화적 및 심리적 변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Berry, 2003; Coll & Patcher, 2002). 실제로, 서로 다른 집단 간에 상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적응할 때 적응하는 집단이 더욱 달라져서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권복순, 2009).

문화적응 개념을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화 (enculturation)와 문화적 변화 (cultural change)의 개념 및 의미상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문화화는 개인이 속한 집단의 언어, 가치, 규범 등을 배우는 과정이다 (Berry et al., 1992; Castro, 2003, p8). 이에 비해 문화적응은 서로 다른 문화와의 접촉을 통해서 이차적인으로 문화적 습득을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의미상의 차이를 지닌다. 그리고 문화적 변화는 한 문화권 안에서 발명 또는 혁신 등과 같은 내적인 사건으로 인해 변화가 야기될 경우, 이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반면, 문화적응은 변화의 근원이 한 문화권 내에서가 아니라, 반드시 다른 문화와의 접촉에 의한 것일 경우 유발되는 변화의 과정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Berry, 1995; Castro, 2003, p8).

베리 (Berry, 1997)는 새로운 문화로 이주하는 개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험하게 되는 문화적응을 접촉 이전의 시기, 접촉기, 갈등기, 위기

기, 적응기 5단계로 구분하면서 문화적 적응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첫째, 개인이 다른 나라 사회와 문화로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 문화적응의 어려움은 난민이나 이민자들이 살던 사회에서 다른 나라로 이주한 뒤 새로운 언어, 문화, 규범, 규칙, 관습 등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이다 (Gibson, 2001). 이런 문화적응 과정을 경험하는 것은 한 개인에게는 위기를 동반하고 특히 유학생들에게는 대학생활에 적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Neuman, 2001; 김태동, 2009).

둘째, 문화적응은 문화적 적응의 단계, 문화적응의 유형, 사회와 개인 또는 집단의 영향을 받는다. 문화적응의 유형에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체류 기간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 요인이고 사회에서의 편견과 편차별, 그리고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 (노유성, 2004).

셋째, 개인 또는 집단이 새로운 사회와 문화 규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문화적응을 정의했는데 문화적응 과정에서 익숙한 환경을 떠나야 하는 상실감은 개인의 적응 능력에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했다(Berry, 1997).

넷째, 문화적응의 중요한 측면에는 인간관계의 변화가 있다. 문화적응의 과정에서는 적응자가 이전의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얻었던 정보를 잃거나 적응 이전에 구축한 관계들 간의 교류가 어려워지고 친밀했던 사람들을 통해 얻었던 사회적 지지도 상실할 위험이 있다. 사회적 지지 외에도 일상적인 결정 또는 판단에 있어서도 새로운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향이 강하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걱정마저도 자신의 신념이나 성격을 통해 추측하게 된다 (Smart, & Smart, 1995).

(2) 문화적응의 이론

이론적으로 문화적응을 설명하는 모델은 동화 모델로도 불리는 단일차원 모델 (unidimensional/one-dimensional model)과 정착국의 문화와 모국문화의 독립적인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이중차원 모델 (two-dimensional/

bidimensional model), 그리고 개념 구성상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다차원적 모델 (multidimensional model)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69], 문화적응에 대한 개념화와 측정은 단일차원 모델에서 다차원적 모델로 발전해 왔다.[70]

단일차원 모델이란 문화적응을 한쪽 차원에는 민족적 고유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특성이, 반대쪽 차원에는 주류사회의 문화에 동화되는 특성이 있는 양극적 상황으로 보는 관점으로 개인의 문화적응은 이러한 단일차원에서 고유문화에서 주류 문화로 옮겨가는 과정으로 설명되고 있다.[71] 즉, 이 모델에 따르면 문화적응이란 하나의 문화적 정체성으로부터 다른 문화적 정체성으로 이동하는 과정이고,[72] 개인이 주류사회 문화에 적응할수록 자신의 고유문화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문화적응의 과정에서 주류사회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에 익숙해짐과 동시에 고유의 민족적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중차원모델을 제시하였다.[73] 이 모델은 문화적응을 자신의 고유문화를 유지하는 차원과 주류사회의 문화에 적응하는 독립된 두 차원으로 보고, 각 차원의 수준에 따라 문화적응의 유형을 구분했다.

베리의 문화적응 이론은 다차원모형 문화적응으로서 한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다문화주의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게 됐다 (Berry, 2001). 베리 (1990)는 개인 또는 집단이 새로운 문화를 접할 때 기존의 고유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에 가치를 두는지와 새로운 주류사회의 문화를 얼마나 수용하는지에 따라 문화적응을 통

69) L. J. Cabassa (2003). Measuring acculturation: Where we are and where we need to go,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25*(2), 127-146.
70) J. B. Unger, A. Ritt-Olson, K. Wagner, D. Soto, & L. Baezconde-Garbanati (2007). A comparison of acculturation measures among Hispanic/Latino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36*(4), 555-565.
71) V. S. Castro (2003). Acculturation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Greenwood Press: Westport · Connecticut · London.
72) S. Kang (2006). Measurement of acculturation, scale formats, and language competence: Their implications for adjustment,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7*(6), 669-693.
73) J. W. Berry, U. Kim, S. Power, M. Young, & M. J. Bujaki (1989). Acculturation attitudes in plural societies. *38*(2), 185-206.

합(integration), 동화(assimilation), 분리(separ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의 네 가지 유형으로 범주화했으며, 다음과 같이 각 유형을 정의하였다.

첫째, 통합 (integration)은 개인이 이미 가지고 있던 자신의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 및 전통 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주류사회의 문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이다. 이는 기존의 문화와 새로운 문화를 비교해서 거부하거나 받아들이면서 두 문화를 통합하는 유형이다.

둘째, 동화 (assimilation)는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류사회 문화에 대해서만 긍정적인 관계 형성과 상호작용을 추구하거나 선호하고 기존의 고유문화가 새로운 문화에 동화되어서 변화하는 과정이다.

셋째, 분리 (separation)는 동화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기존의 문화적 가치와 자신의 고유문화에 관한 정체성은 강하게 유지하지만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지 않고 다른 집단과의 접촉을 피하고자 하는 유형이다.

넷째, 주변화 (marginalization)는 고유문화와 정체성을 부정하며 새로운 문화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모두와 문화적, 심리적 접촉을 피하며 어디에도 적응하지 못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기존문화와 주류사회 양쪽 모두 상호작용을 거부하는 성향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문화적응 모델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문화적응 형태는 주류사회 또는 기존 사회 중에 한쪽 사회에만 편향되는 것이 아니라 양쪽 사회에 균형을 이루는 통합이며, 양쪽 모두를 거부하는 주변화의 경우가 가장 비적응적인 문화적응 형태로 여겨진다(정정희, 2006). 한국문화 적응교육에서 역시 학습자가 기존의 고유문화를 새로운 문화에 변화하지 않으면서도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적응을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는 이러한 베리의 문화적응 이론을 근거로 문화적응 유형에 관한 구분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후의 후속 연구들에서도 문화적응 이론으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란 학습자들의 한국 서열문화 적응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 베리

(2006)[74]의 다문화 적응 이론 (multicultural acculturation framework)을 채택하였다. 다문화 적응 이론은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서 한국인과 같은 소수 이민자들의 문화 적응 태도와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본 연구의 참여자와 같은 소수집단 (non-dominant groups)이 어떻게 주류 문화에 적응하는지를 연구하는 데 적합하다고 보았다.

베리는 문화에 대한 적응을 네 가지 유형으로 범주화하였지만, 이 이론은 문화 일반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문화에 대한 적응 양상을 살펴보기에는 한계를 지닌다. 즉, 동일한 사람이더라도 문화 일반을 대상으로 했을 때와 특정 문화를 대상으로 했을 때 반응 양상이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베리의 이론을 다시 살펴보면 개인이나 집단이 새로운 문화를 접할 때 고유문화를 유지하는지와 주류문화를 수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문화적응 유형을 범주화하였다. 서열문화는 한국 특유한 문화이다. 이란에도 유사한 문화를 찾아볼 수는 있지만, 한국의 서열문화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란 학습자들에게 한국 서열문화를 적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이란 서열문화를 유지하는지 보다는 한국 서열문화를 수용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두어서 서열문화에 대한 수용 유형을 수용과 거부 두 가지 양상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수용성을 좀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해서 학습자의 경향을 고려하여 이러한 두 가지 양상을 다시 능동적·수동적으로 세분화하고자 한다. 즉, 학습자가 한국 서열문화를 수용하든 거부하든 선택적으로 그런 결정을 했는지, 혹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이러한 세부적인 유형 분류는 학습자의 반응 양상을 더 자세히 살피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이란 학습자들의 수용 유형 분류를 위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학습자들의 반응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능동적 수용은 한국 서열문화에 대해 긍정적 이해와 문화적 필요

74) J. W. Berry (2006). Acculturation: A conceptual overview. In M. C. Bornstein & L. R. Cote(Eds.), Acculturation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Measurement and development.

성을 인식하여 이를 적극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한국의 서열문화를 수용하는 데 있어 한국문화와 서열문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이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의미한다.

반면에 수동적 수용은 능동적 수용과는 달리 한국 서열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해하지 않지만 한국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이를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한국의 서열문화를 수용하는 데 있어 긍정적 이해를 하지 않지만 사회생활 적응을 위해서 수용하는 자세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거부 유형을 보면, 능동적 거부는 한국 서열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이를 적극 거부하고자 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한국의 서열문화에 대해 옳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용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자세를 의미한다.

수동적 거부는 한국 서열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해하지만 이란문화 지향성이 높아 이를 거부하고자 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한국 서열문화에 대해 어느 정도 그 문화적 적응을 위해 수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이란인으로서의 자국의 문화를 존중하여 이를 거부하는 자세를 의미한다.

〈표 3〉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수용 유형 범주와 내용

유형		내용
수용	능동적 수용	한국 서열문화에 대해 긍정적 이해와 문화적 필요성을 인식하여 적극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
	수동적 수용	한국 서열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해하지 않지만 한국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
거부	능동적 거부	한국 서열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적극 거부하고자 하는 태도
	수동적 거부	한국 서열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해하지만 이란문화 지향성이 높아 거부하고자 하는 태도

홀의 가장 유명한 논문 중 하나인 “기호화/기호해독(Encoding/decoding)” 은 미디어 문화연구에서 중요한 연구 분석틀로 활

용되어 왔다. “기호화/기호해독”에서 홀은 미디어 수용자들이 메시지를 해석하고 그로부터 의미를 생산하는 방식이 다양함을 지적했다. 홀은 수용자들의 메시지 해독방식을 크게 헤게모니의 지배적인 정의를 따르는 ‘선호적’ 해독, 기본적으로는 지배적인 정의를 따르지만 부분적으로 대안적인 의미를 생산하는 ‘타협적’ 해독, 그리고 지배적인 정의를 전면 거부하는 ‘대항적’ 해독으로 구분하여 미디어 담론을 둘러싼 이데올로기적 투쟁과 지배 이데올로기의 전복 가능성을 이론화하였다.[75] 이를 참조할 때,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수용 유형 역시 수용과 거부만으로 이분화할 수 없으며 타협적인 거래의 유형 역시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학습자들의 수용 유형 분류의 편의를 위하여 이러한 이분법적인 도식을 선택하였다.

지금까지 이란 학습자들이 한국 서열문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한국 서열문화를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문화적응의 이론을 고찰했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Ⅲ장에서는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학습자들의 수용 유형과 반응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들은 TV 드라마를 통해 한국 서열문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한다는 점에서 반응의 정도가 다를 수도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Ⅲ장에서는 이란 한국어 학습자들이 TV 드라마를 통한 한국 서열문화와의 간접적인 접촉에서 나타낸 반응 양상을 실제로 살펴보고, 앞서 고찰한 문화적응에 관한 이론을 적용하여 그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3. TV 드라마를 활용한 문화교육

1) 영상 매체를 통한 교육

인간은 영상과 같은 매체를 사용하여 타인과 소통한다. 이때 사용하는

75) S. Hall, D. Hobson, A. Lowe, & P. Willis (1980). *Culture, Media, Language: Working Papers in Cultural Studies* [임영호 편역(1996), 『스튜어트 홀의 문화이론』, 한나래].

매체는 음성언어에서 문자로, 책이나 신문, 라디오나 TV, 영화, 인터넷 등으로 발전해 왔다. 이에 따라 인류의 문화는 구어 문화에서 문자 문화로, 인쇄 문화로, 영상 매체로, 디지털 문화로 이행해 왔다. 음성언어, 문자, 인쇄 매체, 영상 매체와 같은 매체의 발달과 그 역사를 살펴보면, 어떠한 매체가 그 시대를 주도하였느냐에 따라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 양식은 물론, 문화 양식에까지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현대 매체 환경은 급격히 문자, 음성, 음악, 이미지, 영상 등이 결합된 복합양식 매체 환경으로 이행되고 있다.

한국의 국어교육에서는 현대의 주류 소통언어와 소통 방식으로 부상하고 있는 매체언어(media language)를 이용한 국어 능력의 신장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매체언어 교육도 소통과 소통을 통한 문화 능력 신장을 모두 아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76]

언어 교육에 있어서 매체 활용에 대한 효과는 이미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대표적인 시청각 교육 매체인 비디오, 영화, DVD 같은 수단을 통해 상호문화 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청각 자료는 학습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며 정보를 제공하고 시연하는 동시에 이를 분석하기 위해 시나리오를 제공한다. 특히 상호문화 교육을 위한 비디오의 길이는 약 10분이 적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영화 같은 시청각 자료는 생생한 음성과 영상으로 다른 문화의 실제 삶의 상황과 그 문화에 대한 다른 시각을 생성케 해 준다.

매체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에서 콘텐츠 자체가 문화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거나, 학습자가 영상 시청을 통해 새로운 관점에서 문화를 해석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도 교육적 의의가 있다. 외국인 학습자가 매체에 제시된 문화의 여러 측면을 포착하고 심층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한국문화에 대한 해석을 심화시킨다. 이 과정에서는 매체와 문화에 대한 학습자의 경험과 지식이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 매체 환경의 특성은 대개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편재성, 중첩성, 그리고 누적성이 그것이다. 편재성은 매체를 비켜간 일상적 삶을 상

76) 윤여탁・최미숙・김정자・정현선・송여주(2008), 『매체언어와 국어교육』,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매체가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 삶 주위에 매체가 편재해 있는 정도는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다양한 매체의 편재는 매체 간 합성을 통한 증폭, 시너지 등으로 이어지며, 비슷한 내용과 감각이 매체를 옮겨가면서 누적적으로 전달된다. 이처럼 매체의 3가지 특성은 매체가 만들어 낼 사회적 영향력을 더욱 키워왔다.[77]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매체에 대한 논의를 좀 더 폭넓게 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현 매체 환경의 3가지 특성을 매체의 언어적 작동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매체가 재현하는 것은 인간, 자연, 집단, 사건 등이지만 이것들이 반드시 언어적 작동 과정을 통해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주체와 정체성 형성과정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경우 언어적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매체의 재현을 통한 주체 만들기, 정체성 형성이 부호화를 통한 언어 작동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부호가 묻히고 있는 물질성 등에 의한 비언어적 작동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영상 매체 내의 속도, 색감, 음감, 전체적 느낌 등의 물질성도 주체와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 전에 없이 빨라진 화면 전환은 전과 달리 빠르게 속도전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매체의 재현, 재현의 물질성을 통한 감수성 형성이 가능하고, 이 감수성은 어떤 형식으로든 이데올로기적 과정과 연관성을 가진다. 지배 이데올로기적 감수성, 정체성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78]

영화나 TV 같은 영상 매체는 문자언어를 읽고 쓰는 능력과의 또 다른 능력을 요구한다. 영화와 TV는 문자언어와 음성언어 해독 능력뿐만 아니라 상징과 이미지를 읽어 내는 능력을 요구한다. 그러나 인쇄 매체가 문자 해독 능력에 따라 지식의 이해에 제한이 있었던 것에 비해, 영화나 TV는 시청각매체로서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형태로 지식과 정보를 수용

77) 한국언론학회 미디어교육위원회(2005), 『학교로 간 미디어』, 다할미디어, 37-38쪽.
78) 한국언론학회 미디어교육위원회, 위의 책, 38-39쪽.

할 수 있다. 즉 이미지를 통해 지식과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책이나 신문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매체이며, 수용자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력에 있어 더 폭발력을 지닌 매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영화나 TV 등의 영상 매체는 다수의 수용자가 동시에 정보를 수용할 수 있게 하는 대중매체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 매체의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대상으로 TV 드라마를 선택하였다. 이미지 중심의 메시지는 학습자를 한국어 능력으로 구분하던 기존의 수업 방향을 넘어설 수 있다. 문화교육에서는 다양한 언어 수준의 학습자들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통합적인 수업을 지향할 수 있다. 이는 문화 읽기의 다양성을 확보하면서 학습자 기반의 상호문화 수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매체에 반영된 문화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문화교육에서 능동적인 학습자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는 한국어 구사 능력이 높지 않지만 문화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은 학습자들이 문화교육에서 한국어 능력 기준의 획일적인 분류에서 벗어나 다른 수준의 학습자들과 함께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게 한다.

2) TV 드라마를 통한 문화교육

문화를 교육하는 것은 언어를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충족시키며 학습 동기를 강화시키고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문화교육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문화교육을 통하여 얻어지는 목표 언어 사회에 대하여 학습자가 이 문화 사회에서 겪는 문화충격을 극복하고 목표 언어 사회에의 적응을 도와준다. 이처럼 문화교육은 목표어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이끌어 언어를 배우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TV 드라마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가장 가까운 언어를 보여주고 있고 여러 계층의 등장인물들이 서로 갈등과 화합을 반복하는

가운데 언어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장르이다. TV 드라마는 등장인물의 성격에 따라 화법이 달라지는 양상을 잘 살펴볼 수 있으며, 문어보다는 구어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등장인물 사이의 대화를 보면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들이 주고받는 행동들을 통해서 인간의 다양한 삶과 그들의 행동을 통해 사회의 산물인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습득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언어와 실생활에서도 만날 수 있는 등장인물의 능동적인 모습은 학습자로 하여금 흥미 유발과 몰입을 가능하게 하며, 이러한 흥미 유발과 몰입은 학습효과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고려해 볼 때 TV 드라마를 통한 교육은 매우 그 교육적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교육에 있어 TV 드라마는 가장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다. TV 드라마는 언어와 환경이 목표어 사회에서 직접 유래하고 있으므로 학습자에게 살아있는 언어를 제공하며 문화와 관습까지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게 한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학습자의 조건에 맞추어서 수정・보완한 TV 드라마 자료를 활용한다면 학습자로 하여금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접촉을 가능하게 하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더글(Dougill, 1987)[79]에 의하면 TV 드라마 활동은 대화의 틀을 제공하고 언어사용에 있어서 예측불허성을 허용하며, 교실과 실제 세계 사이를 연결해 주는 교량 역할을 하며 학생들의 창조성을 발휘하게 한다. 또 신체적 활동을 하게 하여 긴장을 완화시키고 자신감을 주며 동기를 유발시킨다. 더글의 주장은 특히 학습능력이 다양한 학급이나 학생 수가 많은 학급에 효과적이다.

이상에서 볼 때 TV 드라마는 사회적, 문화적, 지적, 정서적 측면에서 교육적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언어 교육의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형식의 TV 드라마이든 드라마에는 다양한 형태의 언어를 수반하는 대화가 내재되어 있으며 학생들로 하여금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맥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언어 학습의 목적이 의사

79) J. Dougill (1987). *Drama activities for language learning*, London and Basingstoke: Modern English, p3.

소통 능력의 신장이라고 할 때, 의사소통 능력이란 음성언어는 물론이고 몸짓, 발짓, 표정 등의 비음성적 언어와 억양, 강세, 음조, 전달속도 등의 준언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80] 그런 점에서 언어의 모든 요소를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TV 드라마야말로 언어 교육의 가장 훌륭한 매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화교육 도구로서의 유용성을 인식하고 매체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V 드라마 영상자료는 교사가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을 짧게 편집해서 필요한 부분만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TV 드라마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TV 드라마는 시공간적 제약이 없어 수업현장 어디에서나 활용이 가능한 시청각 자료이기 때문에 필요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다. 이러한 뛰어난 접근성은 학습자들이 언제든지 쉽게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된다.

물론 TV 드라마와 같은 시청각 자료 활용에 대한 여러 논쟁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예컨대 비전문적이고 질이 낮은 자료를 사용하거나, 교사가 제시된 영상 내용을 적절히 소개하지 못하거나 의도하는 바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여 적절한 토론을 이끌지 못하게 되는 경우,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는 문화교육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단점이 존재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시청각 자료 활용을 통한 언어와 상호문화교육의 장점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 즉 시청각 자료는 상호문화 교육의 참여자들의 느낌과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교실 안에서 사실상 재현하기 곤란한 주제를 다루는 데 용이하다. 또한 관찰하고 분석하기 위해 재생할 수 있으며 내용과 사용된 방식에 따라 모든 학습 유형에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시청각 자료는 부분적으로 특정한 목표를 선정할 수 있으며 사례 연구와 비판적 사건을 제시하는 데 유용하다.[81]

김염(2013)[82]은 소리와 영상이 누락된 교재를 활용한 한국의 문화를

80) J. Dougill (1987), 위의 책, p8.
81) S. M. Fowler, & J. M. Blohm (2004). An analysis of methods for intercultural training. *3*, 37-84.
82) 김염(2013),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문학 영상텍스트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59쪽.

가르치고자 할 때,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을 학습자들의 상상력에만 맡기는 것보다 한국의 대중문화의 중심인 TV 드라마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에게 영상 자료를 통해 보여주는 것은 더 효과적인 교육방법이라고 하였다. 드라마는 책에 없는 움직이는 영상과 소리를 담아 독자들을 이에 대해 상상 안 해도 되는 편리함 때문이다. 특히 문화 산물이나 비언어적 문화를 교육하는 데 생동감 있는 이미지로 더욱 더 효과가 있고 학습자들의 재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는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 동기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일까?" 일 것이다. 따라서 한국문화에 열광하는 이란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류에 관한 영상자료를 교육 자료로 활용한다면 학습 동기 유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은 자명한 이치이다. 특히 TV 드라마 출연자들이 구사하는 대사는 실생활 담화이므로 듣기와 말하기 기능 신장을 위한 실용성 있는 듣기와 말하기 교재 내용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에 익숙하게 되고 실생활과 관련된 과제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3) TV 드라마를 통한 이란 학습자 대상 한국문화 교육

본 연구는 이란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문화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이란 한국어 학습자에게 한국문화에 노출되는 빈도를 높여서 한국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교육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한국문화에 노출하는 기회가 부족한 이란 학습자들에게 한국문화를 접하는 경험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다. 물론 한국인과 의사소통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을 늘려서 한국인의 생각과 행동 속에서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배우는 경험이 가장 유익할 것이다. 하지만 자국에서 한국어를 학습해야만 하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고 한국문화를 접촉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이란을 비롯한 외국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한국 TV 드라마를 활용하는 것은 유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실제로 학습자들의 조사에서도 90% (27/30명)가 한국 TV 드라마를 통해 한국문화와 사회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 받는다고 응답하고 있는 점에서 TV 드라마를 통해 한국 문화가 성공적으로 널리 확산된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란에서는 2006년 한국 TV 드라마 '대장금'을 시작으로 '해신', '주몽', '동이', 등이 이란 사회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한류 문화 전파에 큰 역할을 하였다. 주이란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대장금의 경우 이란 국영 TV를 통해 방영되었을 당시 시청률이 90%에 육박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문화에 대한 젊은이들의 관심이 증가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한국 TV 드라마는 이란 사람들에게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이 되어 왔다.

마지디・후쉬만드(N. Majidi, & Z. Hooshmand, 2010)[83]는 한국 TV 드라마가 이란에서 인기가 많은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이란 젊은이들 384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란 사람들이 한국 TV 드라마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드라마 속 한국문화와 이란문화의 유사점", "주인공의 영웅적 자질", "등장인물들의 다양하고 화려한 옷차림", "드라마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스토리", "도덕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 "드라마의 흥미로운 이야기", "드라마의 행복한 결말"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TV 드라마가 이란에 주목을 받는 다른 이유로는 "부모와 나이가 많은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에 대한 강조"가 지적되었는데, 이는 이란 사람들에게는 존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란인들이 한국 TV 드라마에 관한 관심을 가지는 이유 중 하나는 한국문화와 이란문화의 유사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배경, 지리적 거리, 종교적 사상 등으로 인해 양 나라의 문화 간에 존재하는 차이점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 특히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은 한국 서열문

83) 마지디・후쉬만드(2010), 「한국 TV 드라마가 이란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이유에 대한 검토」, 『이란의 문화연구 저널』, *11*(11), 167-195.

화는 2절에서 살펴봤듯이 이란문화와의 서열성과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TV 드라마 활용을 통해 상대 나라와의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그 문화에 대한 지식을 쌓는다면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상황에 따라 적절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문화 간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시키며 한국 서열문화에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Ⅲ.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이란 학습자의 반응 양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생활 경험이 있는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들의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반응 양상을 살펴봤다. 자료 수집은 온라인 방식으로 2020년 3월 8일에서 3월 13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실험 대상자들의 나이는 18세부터 40세까지이고, 여성 27명과 남성 3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한국 거주 기간, 한국어 학습 기간 및 방식, 한국문화나 한국인과의 접촉 기간, 한국어 급수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실험 대상자는 언어연수생 9명, 학부생 10명, 대학원생 11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어 급수 기준으로 구분하면 초급 8명, 중급 10명, 고급 12명으로 나뉜다. 또한, 한국 거주 기간은 1개월부터 9년까지, 한국문화나 한국인과의 접촉 기간은 6개월부터 14년까지 다양하다. 실험 참여자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4> 실험 참여자 개요[84)]

성별	출생연도	학적	한국어 급수	한국 거주 기간	한국문화나 한국인과의 접촉 기간	기호
남	1989	대학원생	고급	3 년 6 개월	10 년	A-A-1
여	1998	학부생	고급	2년	2년 6개월	A-A-2
여	1993	언어연수생	초급	6개월	6개월	A-A-3
여	1996	학부생	고급	1년 5개월	2년	A-A-4
여	1993	학부생	중급	1년 1개월	5년	A-A-5
여	1997	학부생	고급	2년	4년	A-A-6
여	1997	학부생	고급	2년	5년	A-A-7
여	1992	언어연수생	초급	3개월	12년	A-A-8
여	2000	언어연수생	초급	4개월	5년	A-A-9
남	2002	언어연수생	초급	1개월	2년	A-A-10
여	1996	학부생	고급	3년	3년	P-A-1

84) 실험에 대한 분석을 편리하게 제시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를 기호화하였다. 실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응답자를 수용 유형에 따라 'active acceptance'(능동적 수용), 'passive acceptance'(수동적 수용)와 'active rejection'(능동적 거부)으로 나누었으며 약자로 각각 [A-A-번호], [P-A-번호], [A-R-번호]로 표기하였다.

여	1992	대학원생	중급	7개월	14년	P-A-2
여	1997	학부생	고급	4년	4년	P-A-3
여	1999	학부생	중급	2년	2년	P-A-4
여	1990	대학원생	중급	6개월	12년	P-A-5
여	1997	언어연수생	중급	3개월	5년	P-A-6
여	1996	대학원생	중급	6개월	14년	P-A-7
여	1994	언어연수생	중급	1년 4개월	1년 4개월	P-A-8
여	1994	대학원생	고급	1년 6개월	6년	P-A-9
여	1979	대학원생	초급	3년	3년	P-A-10
여	2001	언어연수생	초급	4개월	6년	P-A-11
여	1992	언어연수생	고급	1년 6개월	9년	P-A-12
여	1997	학부생	고급	5년	10년	A-R-1
여	1989	대학원생	중급	1년 6개월	2년	A-R-2
여	1993	언어연수생	고급	1년 3개월	9년	A-R-3
여	1990	대학원생	중급	4년	8년	A-R-4
여	1999	학부생	중급	1년 1개월	1년 1개월	A-R-5
남	1984	대학원생	고급	9년	9년	A-R-6
여	1991	대학원생	초급	7개월	7개월	A-R-7
여	1987	대학원생	초급	1년 7개월	5년	A-R-8

본 실험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학습자의 인적사항을 수집한 뒤 서열문화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시하였다. 그 후 TV 드라마 <미생>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등장인물의 사진, 이름, 호칭, 나이와 직위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한국 서열문화의 특징이 잘 나타난 TV 드라마의 장면을 시청하도록 요청했다. 총 12분 분량의 영상 파일 5개를 제시하였다. 시청 후에는 TV 드라마 장면과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10개의 서술형 질문에 응답하게 하였다. 대부분의 학습자가 설문지를 페르시아어로 작성했으며 일부만이 한국어로 응답하였다. 설문조사 문항은 [부록 1]과 같다.

1.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수용 유형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의 응답에서 도출한 반응을 토대로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이란 학습자의 수용 유형을 분류화하였다.

한국 서열문화가 필요한 문화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란에도 비슷한 서열문화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한국과의 차이를 말씀해 주세요. 둘 중에 어느 것을 더 선호하시나요? 한국에서는 한국의 서열문화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귀하께서는 서열에 대한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평소에 한국 사람들을 만났을 때 서열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셨나요? 드라마 시청 후 한국 사람을 만났을 때 한국 서열문화에 따라 행동을 하시겠나요?

실험에 참여한 응답자 중에서 22명 (73.3%)은 한국 서열문화를 수용하는 경향을, 8명 (26.7%)은 한국 서열문화를 거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란과 한국의 문화 차이가 커서 한국 서열문화를 수용하는 학습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연구자의 기대와는 다르게 한국 서열문화를 수용하는 응답자 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문화 이해를 위한 다양한 홍보 자료와 동영상과 같은 온라인 매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한국의 문화적 환경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험 대상자의 ‘한국어 급수’, ‘한국 거주 기간’과 ‘한국문화나 한국인과의 접촉 기간’ 중에 어느 변수가 ‘수용 유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통계분석을 통해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이때, 성별은 변수로 고려하지 않았다. 실험에 참여한 남학생 수가 여학생 수에 비해 현저하게 적어서 응답자들의 반응 양상을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할 경우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상관관계 통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상관관계 통계분석

상관관계

		한국어 급수	한국 거주 기간	한국문화나 한국인과의 접촉 기간
수용 유형	Pearson 상관	.014	.345	.089
	유의확률 (양측)	.940	.062	.641
	N	30	30	30

*.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통계분석에 의하면 이 변수들과 '수용 유형' 사이에 유의한/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는 실험에 참여한 학습자 수가 많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실험 대상자의 '학적', '한국어 급수', '한국 거주 기간' 및 '한국문화나 한국인과의 접촉 기간' 중 각 변수와 '수용 유형' 간의 교차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교차분석

학적 * 수용 유형 교차표

			유형			
			능동적 수용	수동적 수용	능동적 거부	전체
학적	언어연수생	빈도	4	4	1	9
		학적 중 %	44.4%	44.4%	11.1%	100.0%
	학부생	빈도	5	3	2	10
		학적 중 %	50.0%	30.0%	20.0%	100.0%
	대학원생	빈도	1	5	5	11
		학적 중 %	9.1%	45.5%	45.5%	100.0%
전체		빈도	10	12	8	30
		학적 중 %	33.3%	40.0%	26.7%	100.0%

한국어 급수 * 수용 유형 교차표

			유형			
			능동적 수용	수동적 수용	능동적 거부	전체
한국어 급수	초급	빈도	4	2	2	8
		한국어 급수 중 %	50.0%	25.0%	25.0%	100.0%
	중급	빈도	1	6	3	10
		한국어 급수 중 %	10.0%	60.0%	30.0%	100.0%
	고급	빈도	5	4	3	12
		한국어 급수 중 %	41.7%	33.3%	25.0%	100.0%
전체		빈도	10	12	8	30
		한국어 급수 중 %	33.3%	40.0%	26.7%	100.0%

한국 거주 기간 * 수용 유형 교차표

			유형			
			능동적 수용	수동적 수용	능동적 거부	전체
한국 거주 기간	1년 미만	빈도	4	5	1	10
		한국 거주 기간 중 %	40.0%	50.0%	10.0%	100.0%
	1년에서 2년 사이	빈도	2	3	4	9
		한국 거주 기간 중 %	22.2%	33.3%	44.4%	100.0%

	2년에서 3년 사이	빈도	3	1	0	4
		한국 거주 기간 중 %	75.0%	25.0%	0.0%	100.0%
	3년 이상	빈도	1	3	3	7
		한국 거주 기간 중 %	14.3%	42.9%	42.9%	100.0%
전체		빈도	10	12	8	30
		한국 거주 기간 중 %	33.3%	40.0%	26.7%	100.0%

한국문화나 한국인과의 접촉 기간 * 수용 유형 교차표

			유형			
			능동적 수용	수동적 수용	능동적 거부	전체
한국문화나 한국인과의 접촉 기간	3년 미만	빈도	4	2	3	9
		한국문화나 한국인과의 접촉 기간 중 %	44.4%	22.2%	33.3%	100.0%
	3년에서 6년 사이	빈도	4	4	1	9
		한국문화나 한국인과의 접촉 기간 중 %	44.4%	44.4%	11.1%	100.0%
	6년에서 9년 사이	빈도	0	2	1	3
		한국문화나 한국인과의 접촉 기간 중 %	0.0%	66.7%	33.3%	100.0%
	9년에서 12년 사이	빈도	1	1	3	5
		한국문화나 한국인과의 접촉 기간 중 %	20.0%	20.0%	60.0%	100.0%
	12년 이상	빈도	1	3	0	4
		한국문화나 한국인과의 접촉 기간 중 %	25.0%	75.0%	0.0%	100.0%
전체		빈도	10	12	8	30
		한국문화나 한국인과의 접촉 기간 중 %	33.3%	40.0%	26.7%	100.0%

교차분석에 의하면 언어연수생 중에 서열문화를 8명이 수용했고 1명만 거부하였다. 수용한 학습자의 절반이 능동적이고 나머지 절반은 수동적이긴 하지만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응답자들이 한국문화와 그 속에 있는 서열문화를 더 수용하겠다는 모습을 보인다. 학부생에 반하여 대학원생 중에 한국 서열문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한 학습자 1명으로 가장 적었다. 그리고 한국 서열문화를 거부하는 응답자들은 대부분 대학원생이었다.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수용 유형은 한국어 급수에 따라 유의미한 패턴을 보이지 않지만, 중급 학습자 중에는 능동적 수용이 제일 적으며 수동적 수용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한국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학습자 중에 한국 서열문화를 수용하는 응답자가 다른 기간보다 제일 많았다.

한국문화나 한국인과의 접촉 기간을 보더라도 한국 서열문화를 수용하는 응답자는 대부분 '3년 미만'과 '3년에서 6년 사이' 그룹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한국문화를 접촉하기 시작할 때에는 호기심을 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 경험하는 문화를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이란 학습자의 수용 유형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1) 능동적 수용

TV 드라마 <미생> 장면을 시청한 뒤 10명의 대상자가 한국 서열문화에 대해 능동적 수용 반응을 보였다. 이 학습자들은 대부분 고유문화와 한국 서열문화의 차이를 삶의 사실로 존중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수용적 반응을 보였다. 즉, 한국 서열문화가 이란문화와 차이를 보이는 것을 '좋거나 나쁜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반응을 '능동적 수용'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아래에서 그들의 수용적 반응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서열문화는 윗사람을 존중하는 정도면 좋은 문화라고 생각해서 한국 서열문화를 배우고 그대로 행동하기로 했어요. [A-A-1] 어느 나라에서 살면서 그 나라의 문화를 따르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A-A-2] 제 생각에는 이런 문화가 좋은 문화이며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모든 사회에서 그 사회의 문화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한국문화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A-A-3] 다른 나라에서 일상생활에 익숙해지려면 그 나라 문화를 수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열문화도 따라야 하며, 저도 서열문화를 지켰더니 한국 사람들도 저를 더 존중했습니다. [A-A-4] 저는 한국 사람들처럼 행동하도록 해봤고 서열문화도 따르도록 했어요. [A-A-5]

서열문화가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기 위한 도움이 되는 문화라고 생각하며 한국의 기본적인 문화 중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한국에 오면 그걸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A-6]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서열문화를 좋아하고 한국인처럼 말하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A-A-7]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이 문화를 접할 때가 없었지만 한국문화에 적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A-8] 서열문화는 한국 사람들이 다 받아들인 문화라서 모두가 그걸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A-9] 저는 서열문화가 좋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서열문화대로 말하고 행동하기가 어렵고 헷갈립니다. [A-A-10]

능동적 수용 유형의 응답자 중 8명이 여학생이며 2명이 남학생이었다. 언어연수생 4명, 학부생 5명, 대학원생 1명이 있었으며 한국어 급수 기준으로 초급 4명, 중급 1명, 고급 5명이 있었다. 이들은 한국 거주 기간이 1개월부터 3년 6개월까지, 그리고 한국문화나 한국인과의 접촉 기간이 6개월부터 12년까지 다양했다.

2) 수동적 수용

TV 드라마 <미생> 장면을 시청한 후에 12명의 대상자가 한국 서열문화에 대해 수동적 수용 반응을 보였다. 이 학습자들은 한국의 서열문화를 지향하긴 하지만 대부분 이를 옳거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한국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 서열문화도 수용하기로 한 것이었다. 이러한 반응들을 '수동적 수용'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아래에서 그들의 수용적 반응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저는 서열문화는 좋다고 보지는 않지만 완전히 없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P-A-1]

외국인이 한국에서 살고 싶다면 한국문화를 따를 수 밖에 없어요. 그 문화를 따르는 게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뜻이 아니라 어쩔 수 없다는 뜻이에요. [P-A-2]

제가 한국에서 사는 동안에 그거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람들을 대할 때 이 문화를 무시하면 제가 예의 없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P-A-3]

제가 직장에서만 어쩔 수 없이 서열문화를 따르지만 직장이 아니면 따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문화에서 온 외국인이고 그걸 따르기가 어려워요. 한국인들도 이해해 줘요. [P-A-4]

한국 서열문화가 드라마에 나온 회사 같은 분위기에서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문화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무시하면 쓸데없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살려면 그 나라 문화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P-A-5]

한국 사람들은 한국어를 할 줄 알고 한국문화에 대해 아는 외국인에게 서열문화를 따라야 하기를 기대해요. 그래서 한국문화를 따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P-A-6]

서열문화는 어느 정도 좋지만 어떤 경우에는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 살려면 한국문화를 따르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신념도 보호하고 싶습니다. [P-A-7]

저는 서열문화가 아랫사람 입장에서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한국에서 계속 허리를 숙이면서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P-A-8]

저는 한국에 오는 것을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에 한국문화에도 익숙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가끔은 서열문화가 과해서 불편해요. [P-A-9]

한국 서열문화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문화라고 생각해서 좋지 않다고 보지만 한국에서 잘 살려면 이 문화에 익숙해야 한다고 봅니다. [P-A-10]

서열문화는 외국인의 마음에 든 문화가 아니지만 한국의 기본적인 문화라서 그걸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P-A-11]

서열문화는 필요한 문화라고 생각하지만 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란을 떠나고 한국에 이주했으니 이 문화도 따라야 해요. [P-A-12]

수동적 수용 유형의 응답자 12명이 모두 여학생이었다. 언어연수생 4명, 학부생 3명, 대학원생 5명이 있었으며 한국어 급수 기준으로 초급 2명, 중급 6명, 고급 4명이 있었다. 이들은 한국 거주 기간이 5개월부터 4년까지, 그리고 한국문화나 한국인과의 접촉 기간이 1년 4개월부터 14년까지 다양했다.

3) 능동적 거부

TV 드라마 <미생> 장면을 시청한 8명의 대상자가 한국 서열문화에 대해 능동적 거부 반응을 보였다. 이 학습자들은 한국 서열문화의 규범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며 이를 긍정적으로 보지 못했다. 즉, 한국 서열문화가 인간의 가치를 동등하게 존중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자신의 고유문화를 더 선호하고 간직하며 한국의 서열문화를 거부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반응들을 '능동적 거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아래에서 그들의 거부적 반응 양상을 살피려고 한다.

외국인은 굳이 한국 서열문화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일할 때 따르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한국 서열문화가 저한테 크게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A-R-1]
서열문화가 아랫사람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데 왜 그건 필요한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걸 따르지 않고 보통 한국 친구들과만 이야기해서 높임말 쓸 필요도 없어요. [A-R-2]
이란 사람으로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개념이 저에게는 아예 낯설지 않고 잘 이해하지만, 한국 서열문화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를 줍니다. [A-R-3]
저는 서열문화를 참을 수가 없고 그걸 보더라도 기분이 나빠져요.

이란에서도 사람들 사이에 존중이 있지만 강제적이지 않고 선택적이며 아랫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A-R-4] 저는 서열문화를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란에서는 사람들이 동등적으로 자기를 표현할 수 있고 서열은 한국처럼 엄하지 않아요. [A-R-5] 서열문화는 옛날부터 한국에 있었고 한국 사회를 위한 좋은 결과가 있었지만, 외국인이 꼭 그걸 따라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A-R-6] 한국에서 살고 있어서 서열문화를 접할 때가 있었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화가 필요한 문화라고 보지만 제 생각에는 수정돼야 합니다. [A-R-7] 한국문화를 모욕하지 않는 정도만 서열문화를 따르지만 한국인처럼 행동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유연성 있게 중간적으로 행동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A-R-8]

능동적 거부 유형의 응답자 중 7명이 여학생이며 1명이 남학생이었다. 언어연수생 1명, 학부생 2명, 대학원생 5명이 있었으며 한국어 급수 기준으로 초급 2명, 중급 3명, 고급 3명이 있었다. 이들은 한국 거주 기간이 7개월부터 9년까지, 그리고 한국문화나 한국인과의 접촉 기간이 7개월부터 10년까지 다양했다.

4) 수동적 거부

본 실험에서 이란 한국어 학습자 대상자 중에 한국 서열문화에 대해 수동적 거부 반응을 보인 응답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서열문화를 거부하는 응답자들은 모두 능동적 거부 반응을 보였다. 수동적 거부의 경우에는 학습자가 한국 서열문화를 긍정적으로 이해하지만, 이란 문화 지향성이 높아서 한국 서열문화에 적응을 못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들은 한국 서열문화에 대해 어느 정도 그 문화적 적응을 위해 수용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이란인으로서 자국의 문화를 존중하여 이

를 거부하는 반응을 보인다. 이러한 반응들을 ‘수동적 거부’ 유형으로 분류하였지만 본 실험에서 이 유형에 속한 응답자가 없었다.

지금까지 이란 학습자들을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수용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TV 드라마 <미생> 장면에 나타난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각 유형 학습자의 반응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반응 양상

본 실험에서 선정된 TV 드라마 <미생> 장면은 대부분 회사 분위기에서 상사와 부하의 관계를 보이며, 팀 속에서 인턴 신입사원-대리-과장의 상하관계, 전무가 들어올 때 일어서 인사하는 행동, 신입사원의 실수 때문에 과장이 전무 앞에 사과하는 상황, 차장이 퇴근할 때까지 인턴도 퇴근 못 하는 상황 등이 포함되었다. 마지막 장면은 인턴의 어머니와 인턴과 대리 사이에 나이 서열에 초점을 둔 장면이었다. 자세한 장면들의 내용은 [부록 2]와 같다.

1) 한국 서열문화 요소에 대한 인지 양상

TV 드라마 장면에 나온 한국 서열문화 내용을 시청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이란문화와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된다. 학습자는 이란문화에 대한 지식, 이해와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삼아 이란과 대조되는 한국 서열문화의 특성을 인지한다. 한국의 서열문화에 대해 수용 혹은 거부 반응을 보이면서 이란 학습자는 서열문화가 자신의 문화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한다. 이러한 반응 양상을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인지’ 반응 양상으로 구분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TV 드라마 장면에는 한국 서열문화 요소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한국 서열문화 요소를 상황과 관계에 따라 분류하면, 권력 거리와 지위/직위에 따른 서열이 기본이 되며, 종속 변수로는 나이, 성별, 친소 등이 서열의 행동 양식에 영향을 미친다. TV 드라마에 나타

난 서열문화 요소는 크게 언어적 양식과 비언어적 양식으로 구분된다. 언어적 요소는 언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이며 비언어적 요소는 언어 외적인 표현으로 몸짓, 손짓, 표정 등을 포함한다. 한국 서열문화 요소에 대한 학습자의 인지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각 장면에 나타난 서열문화 요소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표 7> TV 드라마 <미생>에 나타난 서열문화 요소[85]

장면	상황과 관계에 따른 서열	언어적 서열문화 요소	비언어적 서열문화 요소	비고
V1 S1	지위/직위에 따른 서열, 친소가 영향을 미침	오과장이 들어올 때 김동식 대리가 높임말로 인사하자 오과장은 "응!" 이라고 답한다.	김동식과 장그래가 고개를 돌려서 오과장을 본다. 김동식이 먼저 인사한다. 오과장은 힐끔 보고 자리로 간다.	영업3팀의 과장, 대리, 신입사원은 매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다. 특히 오랫동안 같이 일해 온 오과장과 김대리는 서로 충분한 친분을 쌓은 상태이다. 그래서 김대리가 상사인 오과장에게 일어나지 않고 앉아서 인사를 했던 것이다.
	지위/직위에 따른 서열	인턴 신입사원 장그래가 김동식 대리에게 높임말을 하지만 김동식이 반말을 한다.	장그래가 "네!" 라고 답하면서 고개를 살짝 숙인다.	
V1 S2		김석호와 장그래가 서로	김석호가 장그래에게	김석호와 장그래가 둘 다

85) TV 드라마에 대한 분석을 편리하게 제시하기 위해 각 장면을 기호화하였다. 'video'(영상)를 약자로 [V], 'scene'(장면)을 약자로 [S]으로 명명하여 학습자가 시청한 순서대로 [V번호S번호]로 표기하였다.

		존댓말을 한다.	감사하다고 할 때 두 사람 모두 허리를 숙인다.	인턴 신입사원이라서 지위가 동등하다.
V1 S3	지위/직위에 따른 서열	인턴 김석호가 오과장과 김대리에게 높임말로 자기소개를 한다.	김석호가 오과장과 김대리에게 꾸벅꾸벅하면서 자기소개를 한다. 오과장과 김대리는 말없이 본다.	
V1 S7	권력 거리와 지위/직위에 따른 서열		최전무를 본 사원들은 멈춰서며 급히 허리를 숙이고 인사를 한다. 앉아 있던 사람들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마찬가지로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한다. 최전무는 웃으며 끄덕끄덕한다.	
V1 S9	권력 거리와 지위/직위에 따른 서열	최전무가 들어올 때 김대리는 높임말로 인사하고, 최전무는 “응!” 이라고 답한다.	최전무가 들어 올 때 인턴, 대리, 과장은 모두 벌떡 일어나서 허리를 숙이면서 인사한다. 최전무는 끄덕한다.	
		오상식이 최전무에게 “무슨 일로 여기까지?” 라고 물어봤지만 최전무가 아무 말도 안 한다.	최전무가 답하는 대신에 수행부장이 오상식 앞으로 이전에 나왔던 이면지를 내민다.	
		수행부장이 반말로 “로비에서 주웠네!” 라고 답한다.	오상식이 당황하면서 고개를 올리고 놀란 모습으로 본다.	모두들 장그래가 로비에서 이면지를 떨어뜨렸다고 생각하였지만, 먼저 비난을 받고 사과한 사람은 오과장이었다.
		오상식이 높임말로 “죄송합니다.” 라고 한다.	최전무가 오상식을 바라보고 오상식은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한다.	
			김동식이 화난	

			얼굴로 장그래를 노려보듯 본다.	그리고 신입사원은 전무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오과장이 장그래에게 “가만 있지 못해?!” 라고 반말한다.	장그래가 최전무에게 사과하고 싶었지만, 오상식이 “가만 있지 못해?!” 라고 무섭게 말해서 장그래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래를 본다. 최전무가 장그래를 쳐다 본다.	
		최전무가 오상식에게 반말로 “잘하자!” 라고 한다. 오상식은 “예!” 라고 답한다.	최전무가 빙긋 웃으며 오상식에게 말한다. 오상식은 고개를 숙이면서 답한다.	
			최전무가 장그래를 흘깃 보고 간다. 최전무가 나갈 때 사무실의 모든 사람들은 또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한다.	
V1 S10	권력 거리와 지위/직위에 따른 서열	김대리가 장그래에게 낮춤말로 “너 새대가리야?” 라고 하자, 장그래가 높임말로 “죄송합니다. ” 라고 답한다.	김대리가 손을 허리에 대며 장그래를 비난한다. 장그래는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며 사과한다.	먼저 김대리가 장그래를 비난한 후 오과장도 비난한다. 여기에서 한국 서열문화의 특징인 위계질서의 양상이 잘 드러난다.
		김대리가 장그래에게 낮춤말로 “내가 문서 보안 몇 번 얘기했어?! 엉?!” 이라고 한다.	김대리가 장그래에게 소리를 지른다.	
		오과장이	장그래가 놀라서	

		장그래에게 낮춤말로 “나가!” 라고 한다.	고개를 돌려 쳐다본다.	
		오과장이 장그래에게 낮춤말로 “나가라구 이 새끼야!” 라고 욕을 한다.	오과장이 버럭 장그래에게 소리를 지른다. 장그래는 고개를 숙여 아래를 본다.	
V2 S1	권력 거리와 지위/직위에 따른 서열, 성별이 영향을 미침	인턴 신입사원 안영이가 하대리를 “대리님!” 이라는 호칭으로 부른다.	하대리가 고개를 돌려 안영이를 내려다본다.	하대리는 안영이의 상사이며 상대적으로 직급이 높고 나이가 많다. 하지만 안영이가 여자이기 때문에 하대리는 그를 더 낮게 보고 자신의 권력을 써서 그를 복종시킨다.
		하대리가 안영이에게 반말하지만 안영이가 높임말로 답한다.	하대리가 담배 피우면서 편히 서 있지만 안영이가 두 손을 모으고 서 있다.	
		하대리는 “내가 여자랑 일이 안 된다는 거야!” 라고 한다.	하대리가 안영이를 비난한다. 안영이가 고개를 조금 떨구고 듣는다.	
		하대리가 낮춤말로 “뭐가 이렇게 뻣뻣해? 죄송하다고 안 해?” 라고 말한다. 안영이는 높임말로 “죄송합니다. ” 라고 한다.	하대리가 안영이의 사과를 기대한다. 안영이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한다.	
		하대리가 안영이에게 낮춤말로 “가봐! 꼴도 보기 싫어!” 라고 욕을 한다.	안영이가 아무 말 없이 꾸벅하고 돌아서서 간다.	
V3 S1	지위/직위에 따른 서열	천과장이 들어올 때 김대리는	김동식과 장그래가 벌떡 일어나서 천과장을 본다.	

		높임말로 인사하며 천과장은 “응!” 이라고 답한다.	천과장은 끄덕하며 자리로 간다.	
		장그래가 높임말로 인사한다.	천과장이 장그래를 보자마자 장그래가 허리를 숙이며 인사한다.	
	지위/직위에 따른 서열, 친소가 영향을 미침	천과장이 신입사원 장그래를 “장그래 씨!” 라고 부르고 존댓말한다. 장그래는 높임말로 “네, 감사합니다.” 라고 답한다.	장그래가 허리를 숙이며 감사를 표한다.	천과장은 장그래의 상사이며 상대적으로 직급이 높고 나이가 많지만, 처음 만난 사이이고 아직 서로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반말을 하지 않는다.
V3 S2	지위/직위에 따른 서열, 친소가 영향을 미침	천과장이 김대리에게 반말하지만 김대리가 존댓말로 답한다.	천과장이 웃으면서 김대리에게 “회의실로 가지!” 라고 해서 간다. 김대리가 천과장을 보고 웃으며 일어나 따라 간다.	천과장과 김대리는 예전에 친했던 사이라서 천과장이 김대리에게 반말하고 김대리도 긴장 없이 편하게 답한다.
V3 S3	권력 거리와 지위/직위에 따른 서열	천과장이 김대리에게 낮춤말로 “회사가 장난이야? 내가 니 친구냐?” 라고 하며 김대리는 존댓말로 “아닙니다.” 라고 답한다.	천과장이 김대리를 싸하게 쏘아보며 “장난 하냐?” 라고 한다. 김대리는 고개를 떨구고 답한다.	회의실에서는 천과장이 회사에서 장난을 치고 위계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여 김대리에게 벌을 준다. 이를 통해 전에 친한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과 사를 구별하여 회사에서는 상하 관계를
		천과장이 김대리에게 “3년 전, 너랑 나랑 뺑이쳤던[86] 즐거운 기억은	천과장이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서 있지만 김대리가 두 손을 모으고 서 있다.	

		그대로 두라고, 구질구질하게 평생 가져가지 말고!” 라고 한다.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4 S1	지위/직위에 따른 서열	오차장이 “장그래!” 라고 호칭 없이 부른다. 장그래가 “예?” 라고 답한다.	앉아 있는 오차장이 장그래를 부른다. 장그래가 벌떡 고개를 돌리고 일어나서 오차장을 본다.	모두들 퇴근하고 회사에 오차장과 장그래만 남았을 때, 장그래는 할 일이 없지만 오차장이 퇴근을 하지 않아 함께 남아 있다. 오차장이 허락한 후에야 비로소 퇴근을 한다.
		오차장이 장그래에게 반말하지만 장그래가 높임말로 답한다.	오차장이 앉아서 얘기하지만 장그래가 똑바로 서서 답한다.	
			장그래가 똑바로 오차장 얼굴을 보고 얘기하지만 오차장이 장그래 얼굴을 보지 않고 답한다.	
V5 S1	지위/직위에 따른 서열, 나이에 따른 서열	장그래가 김동식에게 존댓말하지만 김동식이 반말한다.	장그래가 먼저 자기 집에 들어가고 김동식이 장그래를 따라서 들어간다.	
V5 S2	나이에 따른 서열, 친소가 영향을 미침	장그래와 장그래의 어머니는 서로 반말한다. 장그래는 자기의 어머니를 “엄마!” 라고 부른다.	장그래가 들어오는데 장그래의 어머니는 돌아보지도 않는다.	장그래의 어머니는 장그래와 김동식보다 나이가 많지만, 친소에 따라 언어와 행동 양식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장그래의 어머니와 장그래는 모자간이라서 나이 차이 상관없이 서로 반말을 한다. 하지만 장그래의 어머니와
		김동식과 장그래의 어머니는 서로 존댓말로 인사하고 얘기한다. 김동식은 장그래의 어머니를 “어머니!” 라고 부른다.	장그래의 어머니가 돌아서다가 김동식을 보고 깜짝 놀란다. 김동식과 장그래의 어머니가 숙이며 서로 인사한다. (김동식이 먼저 인사한다.)	

		장그래의 어머니가 장그래에게 “너 이놈의 자슥!”이라고 욕을 한다.	김동식의 농담을 안 받은 장그래의 어머니가 장그래를 때리면서 비난한다. 장그래가 고개를 조금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기만 한다.	김동식은 서로 모르는 사이라서 나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 다 서로 존댓말 쓰고 숙이며 공손하게 인사한다. 이를 통해 한국 서열문화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공손하게 대우할 뿐만 아니라 손님과 모르는 사람도 공손하게 대우하기를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5 S3	나이에 따른 서열, 친소가 영향을 미침	장그래의 어머니가 김동식에게 공손하게 “그럼 편히 있다 가세요.”라고 한다.	장그래의 어머니와 김동식이 엉거주춤 일어나서 서로 숙이며 절한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TV 드라마 영상 파일에는 한국 서열문화가 나타난 장면 13가지가 있었다. 학습자들이 서열문화 요소를 인지한 장면은 총 10가지였으며, 능동적 수용과 수동적 수용 유형에 해당하는 학습자들이 언급한 장면의 총수는 각각 9가지로 동일했다. 능동적 수용 유형에서는 4명이 장면을 언급했으며 가장 많은 장면을 포착한 학습자가 9가지 장면을 언급하고 1인당 평균은 5장면으로 나타났다. 수동적 수용 유형에서는 7명이 장면을 언급하고 제일 많은 장면을 포착한 학습자가 4가지 장면을 언급했으며 1인당 평균은 2.4장면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학습자들과 능동적 거부 유형의 응답자들은 구체적인 장면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TV 드라마 장면 중에서는 [V2S1]이 가장 많이 언급됐으며 능동적 수용 유형에서 4명, 수동적 수용 유형에서 6명이 이 장면에서 한국 서열

86) “빵이치다”라는 말은 흔히 군대에서 사용하는 은어로써, “힘든 일을 하다, 어려운 일로 고생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회에서는 주로 예비군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 예를 들어 군대에서 제설작업을 오랫동안 하는 경우라던지, 진지구축 등 여러 가지 포괄적인 힘든 군대 생활을 일러 “빵이친다”, “빵이쳤다”라고 한다.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인용)

문화를 인지하였다.

<표 8> 학습자가 서열문화를 인지한 장면의 개요

	장면	수용 유형		
		능동적 수용	수동적 수용	전체 (명)
1	V1S1		[P-A-2]	1
2	V1S3	[A-A-1]		1
3	V1S7	[A-A-1]	[P-A-2]	2
4	V1S9	[A-A-1], [A-A-4], [A-A-7]	[P-A-1]	4
5	V1S10	[A-A-1], [A-A-7], [A-A-8]	[P-A-1]	4
6	V2S1	[A-A-1], [A-A-4], [A-A-7], [A-A-8]	[P-A-1], [P-A-2], [P-A-5], [P-A-6], [P-A-9], [P-A-12]	10
7	V3S1			0
8	V3S2			0
9	V3S3	[A-A-1], [A-A-8]	[P-A-2]	3
10	V4S1	[A-A-1], [A-A-4]	[P-A-9], [P-A-12]	4
11	V5S1			0
12	V5S2	[A-A-1], [A-A-4]	[P-A-7], [P-A-9]	4
13	V5S3	[A-A-1], [A-A-4]	[P-A-7], [P-A-9]	4

각자 개별적인 인식을 가진 응답자들이 TV 드라마에 나타난 서열문화 요소를 얼마만큼 잘 포착하고 어떤 것들을 서열문화로 인지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아래와 같은 질문에 응답하게 하였다.

드라마 장면에서 한국 서열문화가 어떤 식으로 나타났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코딩해서 TV 드라마에 나타난 한국 서열문화 요소에 대한 학습자의 인지 양상을 다음과 같이 범주화하여 수용 유형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9> TV 드라마에 나타난 서열문화 요소에 대한 인지 양상

구분	키워드	수용 유형			
		능동적 수용 (명)	수동적 수용 (명)	능동적 거부 (명)	전체 (명)
상황과 관계에 따른 서열	지위/직위에 따른 서열	9 (90%)	12 (100%)	7 (87.5%)	28 (93.3%)
	권력 거리에 따른 서열	2 (20%)	2 (16.7%)	2 (25%)	6 (20%)
	나이에 따른 서열	10 (100%)	10 (83.3%)	4 (50%)	24 (80%)
	성별 변수	2 (20%)	2 (16.7%)	0 (0%)	4 (13.3%)
	친소 변수	2 (20%)	0 (0%)	0 (0%)	2 (6.7%)
언어적 서열문화 요소	윗사람에게 높임말하기	4 (40%)	7 (58.3%)	3 (37.5%)	14 (46.7%)
	아랫사람에게 반말하기	4 (40%)	6 (50%)	4 (50%)	14 (46.7%)
	윗사람에게 공손하게 인사하기	0 (0%)	3 (25%)	1 (12.5%)	4 (13.3%)
	아랫사람에게 가볍게/편하게 인사하기	0 (0%)	2 (16.7%)	1 (12.5%)	3 (10%)
	아랫사람에게 욕을 하는 것	0 (0%)	1 (8.3%)	1 (12.5%)	2 (6.7%)
	호칭어 쓰기	0 (0%)	1 (8.3%)	0 (0%)	1 (3.3%)
	서열에 따라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7 (70%)	2 (16.7%)	1 (12.5%)	10 (33.3%)
비언어적 서열문화 요소	윗사람 앞에서 허리나 고개를 숙이기	2 (20%)	3 (25%)	1 (12.5%)	6 (20%)
	아랫사람은 실수하지 않았을 때에도 죄송하다고 하기	3 (30%)	2 (16.7%)	0 (0%)	5 (16.7%)
	윗사람보다 먼저 퇴근하지 않기	2 (20%)	2 (16.7%)	0 (0%)	4 (13.3%)
	아랫사람을 낮게 보는 것	2 (20%)	2 (16.7%)	0 (0%)	4 (13.3%)
	아랫사람을 복종시키는 것	1 (10%)	1 (8.3%)	1 (12.5%)	3 (10%)
	윗사람 앞에서 예의를 차려서 정자세로, 꼿꼿이, 반듯하게	1 (10%)	1 (8.3%)	0 (0%)	2 (6.7%)

	서는 것				
	공과 사를 구별하여 회사에서는 서열을 따르기	2 (20%)	0 (0%)	0 (0%)	2 (6.7%)
	윗사람이 화낼 때 아랫사람은 고개를 떨어뜨리고 아무 말 없이 경청하기	1 (10%)	0 (0%)	1 (12.5%)	2 (6.7%)
	윗사람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서기	1 (10%)	0 (0%)	0 (0%)	1 (3.3%)
	아랫사람 앞에서 편하게 서기	1 (10%)	0 (0%)	0 (0%)	1 (3.3%)
	아랫사람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	0 (0%)	1 (8.3%)	0 (0%)	1 (3.3%)

TV 드라마 장면에 나타난 '지위/직위에 따른 서열'을 인지한 응답자 28명 (93.3%)으로 가장 많았으며, '나이에 따른 서열'을 언급한 참여자 24명 (80%)으로 그 뒤를 이었다. 나이에 따른 서열보다 지위/직위에 따른 서열이 더 많이 인식된 이유는, 이란에서도 나이가 많은 청자를 공손하게 대우하고 높임말을 쓰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학습자의 주의를 덜 집중시켰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서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나머지 변수들을 포착한 응답자가 많지 않았다.

언어적 서열문화 요소에서는 '윗사람에게 높임말하기'와 '아랫사람에게 반말하기'는 둘 다 46.7%로 제일 많이 인지됐으며, 명확히 지정된 비언어적 서열문화 요소로는 '윗사람 앞에서 허리나 고개를 숙이기'가 20%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학습자들은 전체적으로 7가지 언어적 서열문화 요소와 12가지 비언어적 서열문화 요소를 인지하였다. 유형별 인지한 서열문화 요소의 양적 분석은 다음과 같다.

<표 10> 학습자가 인지한 서열문화 요소의 양적 분석

구분		수용 유형			인지된 전체 요소
		능동적 수용	수동적 수용	능동적 거부	
상황과 관계에 따른	인지된 요소의 총 개수	5	4	3	5
	가장 많이 제시한	5	3	3	

서열	학습자가 인지한 요소의 개수				
	1인당 인지한 요소의 평균 개수	2.5	2.2	1.6	
	1인당 인지한 요소의 평균 비율	50%	44%	32%	
언어적 서열문화 요소	인지된 요소의 총 개수	3	7	6	7
	가장 많이 제시한 학습자가 인지한 요소의 개수	3	4	4	
	1인당 인지한 요소의 평균 개수	1.5	1.8	1.4	
	1인당 인지한 요소의 평균 비율	21.4%	25.7%	20%	
비언어적 서열문화 요소	인지된 요소의 총 개수	11	8	4	12
	가장 많이 제시한 학습자가 인지한 요소의 개수	7	4	3	
	1인당 인지한 요소의 평균 개수	2.3	1.2	0.5	
	1인당 인지한 요소의 평균 비율	19.2%	10%	4.2%	

1인당 인지한 요소의 평균 비율을 비교하면 모든 유형에서 상황과 관계에 따른 서열이 가장 많이 인지됐으며, 언어적 서열문화 요소가 비언어적 서열문화 요소보다 잘 인지되었다. 한국어 교육의 대상이 되는 내용은 거의 다 언어적이기 때문에, 학습자가 학습된 내용을 어렵지 않게 찾아냈지만, 학습되지 않았던 비언어적 요소를 포착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1인당 평균 비율은 능동적 수용 유형이 수동적 수용 유형보다 높았으며, 수동적 수용 유형은 능동적 거부 유형보다 높았다. 단, 언어적 서열문화 요소의 경우 능동적 수용 유형보다 수동적 수용 유형에서 1인당 평균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인지 양상을 수용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응답자가 각 서열문화 요소를 어느 장면에서 인지했는지를 언급한 경우, 장면 기호를 응답자의 번호 뒤에 표기했다. 응답자의 번호 뒤에 장면 기호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응답자가 전반적으로 서열문화 요소를 언급했지만

어디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인지했는지를 밝히지 않은 것이다. 응답자의 번호 뒤에 '*'가 있는 경우, 응답자가 서열문화 요소를 이란문화와의 비교 속에서 인지하였음을 의미한다. '*'가 없는 경우, 응답지에 그러한 비교가 언급되지 않아 응답자가 한국문화 자체 속에서 서열문화 요소를 인지했을 수도 있다. 먼저 능동적 수용 유형에 속한 응답자들 각각의 인지 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 11> 능동적 수용 유형의 인지 양상

구분	키워드	[A-A-번호]에서 응답자의 번호 및 언급한 장면의 기호
상황과 관계에 따른 서열	지위/직위에 따른 서열	1*, 3*, 4, 5, 6, 7, 8*, 9, 10
	권력 거리에 따른 서열	5, 8*
	나이에 따른 서열	1*[V5S2][V5S3], 2, 3*, 4[V5S2][V5S3], 5, 6, 7, 8*, 9, 10
	성별 변수	4[V2S1], 8*[V2S1]
	친소 변수	1[V3S3], 8*
언어적 서열문화 요소	윗사람에게 높임말하기	1*, 4, 5, 10
	아랫사람에게 반말하기	1*, 4, 5, 10
	서열에 따라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3, 4, 5, 6, 8, 9, 10
비언어적 서열문화 요소	윗사람 앞에서 허리나 고개를 숙이기	1*[V1S3][V1S7], 10
	아랫사람은 실수하지 않았을 때에도 죄송하다고 하기	1[V1S9][V1S10], 4[V1S9], 7[V1S9][V1S10][V2S1]
	윗사람보다 먼저 퇴근하지 않기	1[V4S1], 4[V4S1]
	아랫사람을 낮게 보는 것	4[V2S1][87], 8[V1S10][V2S1]
	아랫사람을 복종시키는 것	8[V2S1]
	윗사람 앞에서 예의를 차려서 정자세로, 꼿꼿이, 반듯하게 서는 것	1[V2S1]
	공과 사를 구별하여	1[V3S3], 8[V3S3]

	회사에서는 서열을 따르기	
	윗사람이 화낼 때 아랫사람은 고개를 떨어뜨리고 아무 말 없이 경청하기	4[V1S9][88]
	윗사람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서기	1[V2S1]
	아랫사람 앞에서 편하게 서기	1[V2S1]

다음으로 수동적 수용 유형의 각 응답자의 인지 양상은 아래와 같다.

<표 12> 수동적 수용 유형의 인지 양상

구분	키워드	[P-A-번호]에서 응답자의 번호 및 언급한 장면의 기호
상황과 관계에 따른 서열	지위/직위에 따른 서열	1, 2, 3, 4, 5, 6, 7, 8, 9, 10, 11, 12
	권력 거리에 따른 서열	3, 6[V2S1]
	나이에 따른 서열	1, 3, 4, 5, 6, 7[V5S2][V5S3], 9[V5S2][V5S3], 10, 11, 12
	성별 변수	2[V2S1], 9[V2S1]
언어적 서열문화 요소	윗사람에게 높임말하기	2, 3*, 5*, 6, 7, 9, 11
	아랫사람에게 반말하기	2, 3*, 6, 7, 9, 11
	윗사람에게 공손하게 인사하기	2*[V1S1][V1S7], 3*, 12*
	아랫사람에게 가볍게/편하게 인사하기	2*[V1S1][V1S7][89], 12*
	아랫사람에게 욕을 하는 것	12[V2S1]

87) [A-A-4]가 [V2S1]에서 여자 직원이 상사한테 무시를 당하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하고 사과하면서 예의를 지킨다는 것을 서열문화 요소로 인지했다.

88) [A-A-4]가 세부적으로 [V1S9]에서 '장그래는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모든 상사에게 예의 있게 행동한다.', '억울한 일이 생겨도 아무 말 못 하고 사과만 한다.', '최전무가 왔을 때 생긴 문제 때문에 장그래 대신 오과장이 사과한다.' 및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회사에서 상사에게 무조건 예의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서열문화 요소로 언급하였다.

	호칭어 쓰기	11
비언어적 서열문화 요소	서열에 따라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4, 5*
	윗사람 앞에서 허리나 고개를 숙이기	2[V1S7], 3*, 5*
	아랫사람은 실수하지 않았을 때에도 죄송하다고 하기	1[V1S9][V1S10][V2S1], 2
	윗사람보다 먼저 퇴근하지 않기	9[V4S1], 12[V4S1]
	아랫사람을 낮게 보는 것	2[V2S1], 9[V2S1]
	아랫사람을 복종시키는 것	2[V2S1][V3S3]
	윗사람 앞에서 예의를 차려서 정자세로, 꼿꼿이, 반듯하게 서는 것	5*[V2S1]
	아랫사람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	9[V2S1]

마지막으로 능동적 거부 유형의 각 응답자의 인지 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 13> 능동적 거부 유형의 인지 양상

구분	키워드	[A-R-번호]에서 응답자의 번호 및 언급한 장면의 기호
상황과 관계에 따른 서열	지위/직위에 따른 서열	2, 3, 4, 5, 6, 7, 8
	권력 거리에 따른 서열	3, 5
	나이에 따른 서열	3, 4, 5, 8
언어적 서열문화 요소	윗사람에게 높임말하기	3, 5, 6
	아랫사람에게 반말하기	1, 3, 5, 6
	윗사람에게 공손하게 인사하기	6
	아랫사람에게	6

89) [P-A-2]가 이란문화에서는 인사한 사람이 지위에 상관없이 더 나은 반응과 인사를 받는다고 했다.

	가볍게/편하게 인사하기	
	아랫사람에게 욕을 하는 것	1[90]
	서열에 따라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5
비언어적 서열문화 요소	윗사람 앞에서 허리나 고개를 숙이기	6
	아랫사람을 복종시키는 것	6
	윗사람이 화낼 때 아랫사람은 고개를 떨어뜨리고 아무 말 없이 경청하기	6

표 11, 12, 13에서 각 학습자가 개별적인 인지 양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수용 유형별로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능동적 수용 유형 중에서 [A-A-1]은 제일 많은 요소를 뽑아냈으며 12가지를 인지하였다. 수동적 수용 유형 중에서는 [P-A-2], 거부 유형 중에서는 [A-R-6] 각각 10가지와 8가지로 가장 많은 요소를 인지하였다. 반면, 몇몇 응답자는 관계에 따른 서열만을 언급했고 자세한 요소를 다루지 못했다. 이렇게 볼 때 모든 유형에서 서열문화 요소를 많이 포착한 응답자도 있었고 하나밖에 언급하지 못한 응답자도 있었다.

수용 유형을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능동적 수용 유형과 수동적 수용 유형의 응답자들은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인지 양상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단, 능동적 수용 유형의 응답자들은 수동적 수용 유형의 응답자들보다 미묘한 서열문화 요소들을 조금 더 포착했다는 특징이 있었으며 각 서열문화 요소를 어느 장면에서 인지했는지와 이란문화와 비교했는지를 더 자세히 서술하였다. 하지만 능동적 거부 유형의 응답자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서열문화 요소를 뽑아내는 데 그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요소를 어느 장면에서 인지했는지와 이란문화와 비교했는지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수용성

90) [A-R-1]이 “대부분 장면에는 윗사람이 아랫사람 실수했다고 소리 지르거나 말을 함부로 하는 장면들이었다”라고 했다.

이 높을 때 TV 드라마를 통한 서열문화 인지 수준도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실험 참여자들이 TV 드라마 장면에 나타난 많은 서열문화 요소 가운데 일부만을 언급하는 데 그친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 응답자가 장면을 한 번만 시청했다. 대부분의 응답자에게는 이 TV 드라마가 낯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해하는 동시에 모든 서열문화 요소를 찾는 일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둘째, 응답자가 영상을 모두 시청한 후에 질문에 대답했다. TV 드라마 장면을 시청할 때에는 서열문화 요소를 어느 정도 인지했지만 모두 다 명심하지 못해 설문지에 응답할 때에는 일부만을 서술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응답자가 시청하는 과정에서 어떤 서열문화 요소를 인지했더라도 그것을 자연스럽다고 느껴서 언급하지 않았다. 넷째, 일부 응답자는 각 장면에서 인지한 서열문화 요소를 명확히 언급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반복되거나 많이 나타난 요소만을 장면 언급 없이 서술했다. 다섯째, 인내심이 부족한 일부 응답자는 응답을 자세하게 서술하지 않았다. 실험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능동적 거부 유형의 응답자들은 한국 서열문화에 관심이 많지 않아 대답을 회피하거나 질문에 대한 응답을 성의껏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응답자의 수용성과 관심은 실험의 질문에 얼마나 자세하고 꼼꼼히 응답했는지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2)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해석 및 평가 양상

학습자가 TV 드라마 장면 속 등장인물 간의 관계에서 작용하고 있는 서열문화를 어떻게 해석해내고 평가하는지를 밝히기 위해 아래와 같은 질문에 응답하게 하였다.

드라마 장면에서 한국 사람들은 나이와 지위에 따라 상대방을 어떻게 대우했나요?

드라마를 통해 한국 서열문화를 보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한국의 서열문화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란에도 비슷한 서열문화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한국과의 차이를 말씀해 주세요. 둘 중에 어느 것을 더 선호하시나요?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이란 학습자들의 해석과 평가 양상이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났는데, 각각의 표현을 번역하거나 그대로 인용하기보다는 같은 내용의 답변들을 코딩하여 범주화했다. 학습자들은 TV 드라마 장면에 나타난 서열문화 요소와 자신의 경험에 기반한 한국 서열문화를 각각 해석하고 평가하였다. 우선 그들의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해석과 평가 양상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수용 유형별로 비교하기 위해 아래의 표에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장면에 나타난 서열문화에 대한 응답과 경험에 기반을 둔 서열문화에 대한 응답을 합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해석을 대표적인 키워드로 삼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하였다.

<표 14> 학습자의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해석 양상

평가	키워드	수용 유형			
		능동적 수용 (총 10명)	수동적 수용 (총 12명)	능동적 거부 (총 8명)	전체 (총 30명)
		[A-A-번호]에서 응답자의 번호	[P-A-번호]에서 응답자의 번호	[A-R-번호]에서 응답자의 번호	
긍정적	윗사람을 존중한다.	10명 (100%)	10명 (83.3%)	4명 (50%)	24명 (80%)
		1, 2, 3, 4, 5, 6, 7, 8, 9, 10	1, 2, 3, 5, 6, 7, 9, 10, 11, 12	1, 3, 7, 8	
부정적	아랫사람을 마음대로 대우한다.	6명 (60%)	7명 (58.3%)	7명 (87.5%)	20명 (66.7%)
		2, 4, 5, 6, 7, 8	1, 4, 5, 6, 8, 11, 12	1, 2, 3, 4, 5, 7, 8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이용한다.	5명 (50%)	4명 (33.3%)	3명 (37.5%)	12명 (40%)
		1, 3, 4, 5, 7	1, 2, 5, 6	2, 3, 4	

	아랫사람은 자기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1명 (10%)	5명 (41.7%)	5명 (62.5%)	11명 (36.7%)
		4	1, 2, 6, 8, 12	2, 3, 5, 7, 8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24명의 이란 학습자가 한국 서열문화를 '윗사람을 존중한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가장 많이 해석하고, 그 다음으로는 20명이 그것을 '아랫사람을 마음대로 대우한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능동적 수용 유형 중에서 100%와 수동적 수용 유형 중에서 83.3%로 대부분 응답자는 서열문화를 전자의 의미로 해석하였지만, 능동적 거부 유형 중에서 50%만 그러한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냈다. 반면에 능동적 거부 유형 중에서 87.5%로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부정적인 후자의 의미로 한국 서열문화를 해석하였다. 표에 제시된 각 유형의 응답 퍼센트에 의하면, 능동적 수용 유형은 한국 서열문화를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하며 능동적 거부 유형은 한국 서열문화를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한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여기에서 서열문화를 능동적이나 수동적으로 수용하면서도 부정적으로 해석과 평가를 한 학습자, 그리고 서열문화를 거부했지만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과 평가를 한 학습자는 타협적인 형태를 보여준다.

(1) TV 드라마 장면에 나타난 서열문화 요소에 대한 해석 및 평가

TV 드라마 장면에 나타난 서열문화 요소에 대한 학습자의 해석 양상을 코딩한 뒤, 비슷한 것들끼리 묶고 다음과 같이 범주화하였다.

<표 15> 학습자의 TV 드라마 장면에 나타난 서열문화 요소에 대한 해석 양상

평가	키워드	수용 유형			
		능동적 수용 (명)	수동적 수용 (명)	능동적 거부 (명)	전체 (명)
긍정적	윗사람을 존중한다.	9 (90%)	3 (25%)	2 (25%)	14 (46.7%)
	아랫사람은 무조건 예의를 지킨다.				
	윗사람을 공손하게 대우한다.				
부정적	윗사람은 예의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5 (50%)	3 (25%)	6 (75%)	14 (46.7%)
	아랫사람을 마음대로 대우한다.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한다.				
	아랫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				
	아랫사람을 무시한다.				
	아랫사람을 낮게 본다.				
	아랫사람을 강제한다.				
	아랫사람은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	1 (10%)	5 (41.6%)	3 (37.5%)	9 (30%)
	윗사람에게 무조건 복종한다.				
	아랫사람은 억울할 때 아무 말 못 하고 사과만 한다.				
	아랫사람은 자기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이용한다.	1 (10%)	3 (25%)	0 (0%)	4 (13.3%)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일을 많이 시킨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비난할 때 아랫사람은 무조건 사과해야 한다.	1 (10%)	1 (8.3%)	0 (0%)	2 (6.7%)

	여자가 무시된다.	1 (10%)	1 (8.3%)	0 (0%)	2 (6.7%)

TV 드라마 장면에 나타난 서열문화 요소를 '윗사람을 존중한다.'와 같은 긍정적인 의미로, 그리고 '아랫사람을 마음대로 대우한다.'와 같은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한 응답자가 각각 14명 (46.7%)으로 가장 많았다. TV 드라마 장면에 나타난 서열문화 요소에 대한 나머지 해석 양상은 전부 부정적이었으며 대표적으로 '윗사람에게 무조건 복종한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이용한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비난할 때 아랫사람은 무조건 사과해야 한다.' 및 '여자가 무시된다.'라는 4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TV 드라마 장면에 나타난 서열문화 요소에 대한 각 유형 응답자들의 해석 양상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해석 키워드를 수용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응답자가 어느 장면에 초점을 두고 서열문화 요소를 해석했는지를 밝힌 경우, 장면 기호를 응답자의 번호 뒤에 표기했다. 먼저 능동적 수용 유형에 속한 응답자들 각각의 해석 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 16> 능동적 수용 유형의 해석 양상

평가	키워드	[A-A-번호]에서 응답자의 번호 및 언급한 장면의 기호
긍정적	윗사람을 존중한다.	1, 2, 3, 7, 9, 10
	아랫사람은 무조건 예의를 지킨다.	6
	윗사람을 공손하게 대우한다.	4, 5
부정적	윗사람은 예의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4
	아랫사람을 마음대로 대우한다.	5, 6, 7[V1S10][V2S1]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한다.	2
	아랫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	7[V1S10]
	아랫사람을 무시한다.	7

	아랫사람은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	4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일을 많이 시킨다.	7[V2S1]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비난할 때 아랫사람은 무조건 사과해야 한다.	7[V1S9][V1S10]
	여자가 무시된다.	8[V2S1]

다음으로 수동적 수용 유형의 각 응답자의 해석 양상은 아래와 같다.

<표 17> 수동적 수용 유형의 해석 양상

평가	키워드	[P-A-번호]에서 응답자의 번호 및 언급한 장면의 기호
긍정적	윗사람을 존중한다.	10, 11
	아랫사람은 무조건 예의를 지킨다.	3
부정적	아랫사람을 마음대로 대우한다.	8, 11
	아랫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	6
	아랫사람을 강제한다.	6[V2S1]
	아랫사람은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	2[V3S3]
	윗사람에게 무조건 복종한다.	1, 6, 8
	아랫사람은 자기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12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이용한다.	5[V2S1]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일을 많이 시킨다.	1[V2S1]
	아랫사람은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2[V2S1]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비난할 때 아랫사람은 무조건 사과해야 한다.	1[V1S9][V1S10]
	여자가 무시된다.	2[V2S1]

마지막으로 능동적 거부 유형의 각 응답자의 해석 양상은 다음과 같

다.

<표 18> 능동적 거부 유형의 해석 양상

평가	키워드	[A-R-번호]에서 응답자의 번호 및 언급한 장면의 기호
긍정적	윗사람을 존중한다.	7, 8
부정적	윗사람은 예의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5
	아랫사람을 마음대로 대우한다.	2, 4, 7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한다.	1
	아랫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	3, 7
	아랫사람을 낮게 본다.	4
	아랫사람을 강제한다.	3
	윗사람에게 무조건 복종한다.	3
	아랫사람은 억울할 때 아무 말 못 하고 사과만 한다.	2
	아랫사람은 자기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8

능동적 수용 유형의 학습자들에게는 긍정적인 해석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 서열문화가 상대적으로 좋은 문화라고 생각하여 TV 드라마에서도 서열문화에 긍정적인 측면에 더 주의를 기울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거부 유형 중에는 장면에 나타난 서열문화 요소를 긍정적으로 해석한 응답자는 2명밖에 없고 부정적인 해석이 많이 나타났다. 그 원인은 원래 한국 서열문화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거부 유형의 응답자들이 TV 드라마 장면에 나타난 서열문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부정적인 측면에 더 집중한 것에 있다고 분석된다.

TV 드라마 장면에 나타난 서열문화 요소를 구체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도 6명이 있었다. [A-A-3], [A-A-8]과 [A-R-2]는 회사에서 서열 관계가

매우 ‘엄격하다.’라고 하였다. [A-A-7]은 [V1S9], [V1S10], [V2S1]을 언급하여 회사의 상하관계가 ‘과하다.’라고 했다. [P-A-3]은 회사가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이라고 해서 서열문화가 ‘심하다.’라고 부정적으로 봤지만 “어르신들한테 예의를 지키는 것은 정말 보기 좋습니다.”라고 하여 서열문화의 일부 측면을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A-A-7]과 [A-R-4]는 장면에 나타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마음대로 대우하기 때문에 서열문화가 ‘옳지 않은 문화다.’라고 평가했다.

(2) 경험에 기반을 둔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해석 및 평가

학습자들은 TV 드라마에 반영된 서열문화 양상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경험과 연계하여 한국의 서열문화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였다. 학습자의 해석 양상을 코딩한 뒤, 비슷한 것들끼리 묶고 다음과 같이 범주화하였다.

<표 19> 학습자의 경험에 기반을 둔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해석 양상

평가	키워드	수용 유형			
		능동적 수용 (명)	수동적 수용 (명)	능동적 거부 (명)	전체 (명)
긍정적	윗사람을 존중한다.	10 (100%)	8 (66.7%)	2 (25%)	20 (66.7%)
	윗사람을 공손하게 대우한다.				
	예의 교육을 위한 문화	1 (10%)	0 (0%)	0 (0%)	1 (3.3%)
	책임감과 근면성	2 (20%)	0 (0%)	0 (0%)	2 (6.7%)
부정적	윗사람은 예의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5 (50%)	5 (41.7%)	1 (12.5%)	11 (36.7%)
	아랫사람을 마음대로 대우한다.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한다.				
	아랫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				
	아랫사람을 무시한다.				
	아랫사람을 낮게 본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강제한다.	4 (40%)	2 (16.7%)	3 (37.5%)	9 (30%)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이용한다.				
	아랫사람은 자기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0 (0%)	0 (0%)	1 (12.5%)	1 (3.3%)
	아랫사람은 억울할 때 아무 말 못 하고 사과만 해야 한다.	0 (0%)	0 (0%)	1 (12.5%)	1 (3.3%)

능동적 수용 유형의 경우, 모든 응답자가 한국 서열문화를 '윗사람을 존중한다.'와 같은 것으로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2가지 특유한 긍정적인 해석 양상도 나타났다. 이 유형은 한국 서열문화를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기 위한 문화'라고 해석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거부 유형 중에서는 한국 서열문화를 '윗사람을 존중한다.'와 같은 것으로 해석한 응답자 2명밖에 없었으며 대부분 서열문화를 부정적으로 해석해냈다. 이들은 한국 서열문화를 기본적으로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을 강압하고 강제하여 복종시키기 위한 문화'라고 해석한다고 볼 수 있다.

학습자들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다양한 측면의 평가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평가를 하기 위해 한국 서열문화 자체에 대해 생각해보기도 하고 한국 서열문화를 이란문화와 비교해보기도 하였다.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응답자의 평가 양상을 크게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로 나누어서 코딩한 뒤, 비슷한 것들끼리 묶고 다음과 같이 범주화하였다.

<표 20> 학습자의 경험에 기반을 둔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평가 양상

평가	키워드	수용 유형			
		능동적 수용 (명)	수동적 수용 (명)	능동적 거부 (명)	전체 (명)
긍정적	서열문화 덕분에 상대방을 존중해서 좋다.	9 (90%)	9 (75%)	0 (0%)	18 (60%)
	서열문화는 한국의 개발에 큰 역할을 했다.	3 (30%)	1 (8.3%)	3 (37.5%)	7 (23.3%)
	서열문화는 한국인의 책임감과 근면성의 바탕을 이룬다.	2 (20%)	0 (0%)	0 (0%)	2 (6.7%)
부정적	엄하다.	6 (60%)	10 (83.3%)	5 (62.5%)	21 (70%)
	과하다.				
	심하다.				
	너무하다.				
	엄격하다.				
	옳지 않은 문화다.	5 (50%)	8 (66.7%)	5 (62.5%)	18 (60%)
	좋지 않은 문화다.				
	존중이 상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4 (40%)	5 (41.7%)	3 (37.5%)	12 (40%)
	오직 서열로만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아랫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2 (20%)	4 (33.3%)	3 (37.5%)	9 (30%)
	아랫사람의 기분과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아랫사람에게 부담이 된다.				
	아랫사람에게 부정적인 심리적 효과를 준다.				
	강제적이다.	1 (10%)	0 (0%)	2 (25%)	3 (10%)

한국 서열문화를 '엄격하다.'와 같은 부정적인 표현으로 평가한 응답자 21명 (70%)으로 제일 많았다. '서열문화 덕분에 상대방을 존중해서 좋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그리고 '옳지 않은 문화다.'와 같은 부정적인 표현으로 평가한 응답자가 각각 18명 (60%)으로 그 뒤를 이었다. 수용 유형의 응답자는 대부분 한국 서열문화를 긍정적

으로 평가한 반면, 거부 유형 중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3명 밖에 없었다.

경험에 기반을 둔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각 유형 응답자들의 해석과 평가 양상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해당 키워드를 수용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어떠한 서열문화 해석 양상에 대해 평가한 것인지를 응답자가 명확하게 밝힌 경우, 해석 양상 기호를 응답자의 번호 뒤에 표기하였다. 응답자의 번호 뒤에 해석 양상 기호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응답자가 어떠한 서열문화 요소나 해석 양상을 평가했는지를 언급하지 않아 한국 서열문화를 전반적으로 평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응답자의 번호 뒤에 '*'가 있는 경우, 응답자가 한국 서열문화를 이란문화와의 비교 속에서 평가하였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교했는지에 대해서는 각 유형의 해석과 평가 양상 표 아래에 서술하였다. '*'가 없는 경우, 응답지에 그러한 비교가 언급되지 않아 응답자가 한국 서열문화 자체에 대해 생각하여 그렇게 평가했을 수도 있다. 먼저 능동적 수용 유형에 속한 응답자들 각각의 해석과 평가 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 21> 능동적 수용 유형의 해석 양상[91]

평가	키워드	기호	[A-A-번호]에서 응답자의 번호
긍정적	윗사람을 존중한다.	[I1]	1, 2, 3, 4, 5, 7, 8, 10
	윗사람을 공손하게 대우한다.		6, 9
	예의 교육을 위한 문화	[I2]	5
	책임감과 근면성	[I3]	8, 9
부정적	아랫사람을 마음대로 대우한다.	[I4]	5
	아랫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		4, 6, 7

91)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학습자의 평가 양상은 어떠한 해석과 연계되는지를 편리하게 제시하기 위해 비슷한 것들끼리 묶은 해석 양상을 기호화하였다. 'interpretation'(해석 양상)을 약자로 [I]로 명명하여 순서대로 [I번호]로 표기하였다.

	아랫사람을 낮게 본다.		8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강제한다.	[I5]	1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이용한다.		3, 4, 5

<표 22> 능동적 수용 유형의 평가 양상

평가	키워드	[A-A-번호]에서 응답자의 번호 및 언급한 해석 양상의 기호
긍정적	서열문화 덕분에 상대방을 존중해서 좋다.	1*[I1], 3*[I1], 4[I1], 5[I1], 6[I1], 7[I1], 8[I1], 9[I1], 10[I1]
	서열문화는 한국의 개발에 큰 역할을 했다.	5[I2], 8*[I3], 9
	서열문화는 한국인의 책임감과 근면성의 바탕을 이룬다.	8[I3], 9[I3]
부정적	엄하다.	1*, 4, 6*[I4], 7*, 8*[I4], 9*
	과하다.	
	심하다.	
	너무하다.	
	엄격하다.	
	옳지 않은 문화다.	1*[I5], 4[I4][I5], 5[I4], 6*[I4], 8[I4]
	좋지 않은 문화다.	
	존중이 상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1, 4[I4], 7[I4], 9
	오직 서열로만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아랫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8*[I4]
	아랫사람에게 부정적인 심리적 효과를 준다.	5[I5]
	강제적이다.	2[I1]

‘서열문화 덕분에 상대방을 존중해서 좋다.’ 라고 평가한 [A-A-1]과 [A-A-3]은 이란문화에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올바른 것이지만 한국문화에서는 상대방을 더 많이 존중한다고 하였다. ‘서열문화는 한국의 개발에 큰 역할을 했다.’ 라고 한 [A-A-8]은 이란에는 이러한 문화가 없어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자기 노력으로 승진하는 것보다 상사와 친해져서 승진하는 사원들도 있다고 하였다.

한국 서열문화를 ‘엄하다.’, ‘과하다.’, ‘심하다.’, ‘너무하다.’, ‘엄격하다.’라고 평가한 [A-A-4]을 제외하면 나머지 5명은 이란에서도 나이가 많은 사람을 존중하고 윗사람을 공손하게 대우하는 문화가 있지만, 한국에서처럼 예를 들면 허리를 숙이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한국 서열문화를‘옳지 않고 좋지 않은 문화.’라고 평가한 [A-A-1]과 [A-A-6]은 이란에서는 상사가 부하를 대하는 태도가 한국과는 다르다고 언급했다. 한국 서열문화를 ‘아랫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A-A-8]은 한국 회사와 이란 회사의 분위기를 비교한 후, 상하관계가 그리 엄격하지 않은 이란에서는 아랫사람이 한국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하였다.

‘존중이 상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직 서열로만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부정적으로 서열문화를 평가한 응답자들은 한국 서열문화가 인간의 가치를 동등하게 존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인간은 나이와 지위 등에 상관없이 사람으로서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A-A-2]는 한국 서열문화에서 ‘윗사람을 존중한다.’라는 것을 강제적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다음으로 수동적 수용 유형의 각 응답자의 해석과 평가 양상은 아래와 같다.

<표 23> 수동적 수용 유형의 해석 양상

평가	키워드	기호	[P-A-번호]에서 응답자의 번호
긍정적	윗사람을 존중한다.	[I1]	1, 2, 3, 5, 6, 9, 12
	윗사람을 공손하게 대우한다.		7
부정적	윗사람은 예의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I4]	5
	아랫사람을 마음대로 대우한다.		4, 8, 12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한다.		12
	아랫사람을 무시한다.		1
	아랫사람을 낮게 본다.		5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강제한다.	[I5]	6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이용한다.		2

<표 24> 수동적 수용 유형의 평가 양상

평가	키워드	[P-A-번호]에서 응답자의 번호 및 언급한 해석 양상의 기호
긍정적	서열문화 덕분에 상대방을 존중해서 좋다.	2[I1], 3[I1], 5[I1], 7[I1], 8, 9[I1], 10, 11, 12[I1]
	서열문화는 한국의 개발에 큰 역할을 했다.	10
부정적	엄하다.	2*[I5], 3, 4[I4], 5*[I4], 7*, 8[I4], 9*, 10, 11*, 12[I4]
	과하다.	
	심하다.	
	너무하다.	
	엄격하다.	
	옳지 않은 문화다.	1[I4], 2[I5], 4[I4], 5[I4], 6[I5], 7, 8[I4], 9
	좋지 않은 문화다.	
	존중이 상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5[I4], 6, 7, 11*, 12
	오직 서열로만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아랫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2[I5], 4[I4]
	아랫사람의 기분과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2[I5]
	아랫사람에게 부담이 된다.	2[I5], 4[I4]
	아랫사람에게 부정적인 심리적 효과를 준다.	2[I5], 9, 12[I4]

한국 서열문화를 ‘엄하다.’, ‘과하다.’, ‘심하다.’, ‘너무하다.’, ‘엄격하다.’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10명 중 5명은 이란에서 서열문화가 비교적 온건하다고 하였다. 한국 서열문화에서 ‘존중이 상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한 [P-A-11]은 인간의 가치가 서열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많은 나라에서는 상호 존중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음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능동적 거부 유형의 각 응답자의 해석과 평가 양상은 다음

과 같다.

<표 25> 능동적 거부 유형의 해석 양상

평가	키워드	기호	[A-R-번호]에서 응답자의 번호
긍정적	윗사람을 존중한다.	[I1]	1, 3
부정적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한다.	[I4]	8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강제한다.	[I5]	2, 3, 4
	아랫사람은 자기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I6]	5
	아랫사람은 억울할 때 아무 말 못 하고 사과만 해야 한다.	[I7]	7

<표 26> 능동적 거부 유형의 평가 양상

평가	키워드	[A-R-번호]에서 응답자의 번호 및 언급한 해석 양상의 기호
긍정적	서열문화는 한국의 개발에 큰 역할을 했다.	4, 6, 7
부정적	엄하다.	1*, 3*, 5*, 7[I7], 8*[I4]
	과하다.	
	심하다.	
	너무하다.	
	엄격하다.	
	옳지 않은 문화다.	1, 2[I5], 4[I5], 5, 7[I7]
	좋지 않은 문화다.	
	존중이 상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5, 6, 8
	오직 서열로만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아랫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3*
	아랫사람의 기분과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1, 5[I6]
	아랫사람에게 부담이 된다.	3[I5]

	아랫사람에게 부정적인 심리적 효과를 준다.	3[I5]
	강제적이다.	2[I5], 4*[I5]

4명의 응답자는 이란에도 서열문화가 있지만, 한국 서열문화처럼 심하지 않다고 하였다. [A-R-1]은 한국 서열문화를 “빨리 없어져야 되는 문화, 일본 군인식 문화”라고 판단했으며 “서열문화는 이란에 아예 없지는 않지만 한국처럼 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즉 막내면 회사에서 청소해야 하거나 윗사람이 귀찮아하는 일을 다 대신에 해줘야 하는 법이 없습니다.”라고 했다. 한국 서열문화가 ‘아랫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라고 한 [A-R-3]은 이란에서는 이러한 문화에 항상 자발적으로 따랐고 부담 같은 것을 느끼지 않았지만, 한국에서는 서열문화를 따르지 않으면 직장생활에 큰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다. 한국 서열문화를 ‘강제적이다.’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A-R-4]는 이란에서는 본인이 스스로 상대방을 존중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더 편하다고 했다.

전반적으로 한국 서열문화를 긍정적으로만 평가한 응답자는 2명에 불과했는데 둘 다 능동적 수용 유형의 응답자([A-A-3], [A-A-10])였다. 한국 서열문화를 부정적으로만 평가한 응답자는 9명이 있었는데 그중 1명은 능동적 수용 유형의 응답자([A-A-2]), 3명은 수동적 수용 유형의 응답자([P-A-1], [P-A-4], [P-A-6]), 그리고 5명은 능동적 거부 유형의 응답자([A-R-1], [A-R-2], [A-R-3], [A-R-5], [A-R-8])였다. 능동적·수동적 수용 유형의 이 4명은 한국의 서열문화를 지향은 하지만 실제 한국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의 서열문화를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머지 19명은 서열문화를 어떤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어떤 측면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대부분 응답자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좋다.’라는 측면에서 한국 서열문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지만 ‘엄격하다.’라는 측면에서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수용 유형별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를 비교하면 수용성이 높을수록 평가를 더 긍정적으로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한국 서열문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학습자일수록 이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려고 했고 한국 서열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학습자일수록 이를 능동적으로 거부하고자 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3) 실제 상황에서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반응 양상

이란 학습자 중 몇 명은 실생활에서도 한국 서열문화와 관련된 경험이 있었다.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서로 다른 수용 양상을 보인 학습자들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아래와 같은 질문에 응답하게 하였다.

한국에서는 한국의 서열문화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귀하께서는 서열에 대한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평소에 한국 사람들을 만났을 때 서열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셨나요? 드라마 시청 후 한국 사람을 만났을 때 한국 서열문화에 따라 행동을 하시겠나요?

능동적 수용 유형의 응답자는 대부분 서열문화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 위한 문화라고 본다. 한 사회에 살면 그 사회의 문화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서 한국 서열문화도 따르려고 한다고 하였다.

> 제 생각에는 이런 문화가 좋은 문화이며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모든 사회에서 그 사회의 문화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한국문화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A-A-3]

한국 생활 경험이 많지 않은 학습자는 서열문화를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한국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열문화도 수용하고자 했다.

>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이 문화를 접할 때가 없었지만

한국문화에 적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A-8]

[A-A-3], [A-A-5]와 [A-A-9]는 한국인들이 외국인에게 한국 서열문화를 꼭 따라야 하기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지금까지 서열문화와 관련된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이란문화와 한국문화가 공통점이 많아서 아직까지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없었지만 제가 지금 한국어를 배우는 중이라서 윗사람과 말할 때 실수한 적이 있는데 친절하게 수정해 주셨어요. [A-A-3]

[A-A-1]과 [A-A-4]는 한국에 살면서 항상 상대방을 공손하게 대우하고 서열문화를 지켰더니 한국인들도 대부분 자신을 존중해주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때로는 나이 많은 사람을 공손하게 대우하더라도 경시당한 적도 있었다고 했다.

서열문화가 윗사람을 존중하는 정도라면 좋은 문화라고 생각해서 한국 서열문화를 배우고 그대로 행동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윗사람이 그걸 오용해서 아랫사람을 낮게 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저는 아랫사람을 절대 그렇게 대우하지 않아요.

저는 한국에 살면서 항상 상대방을 공손하게 대우하고 한국인들도 대부분 상호적으로 저를 공손하게 대우해 줬어요. 하지만 몇 개월 나이 차이 때문에 저를 강제하고 복종시키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만나 본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한국문화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고 생각하고 조금 지나면 친해져서 친구처럼 대우할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몇 개월이더라도 나이 차이가 있으면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마침내 관계를 끊었어요. 나이 차이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낮게 보고 명령하는 것이 어이가 없다고 봐요. [A-A-1]

이 응답자들은 한국 서열문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능동적으로 수용했지만 부정적인 측면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 즉, 한국 서열문화를 무조

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지만 서열에 관한 다른 측면을 비판적인 관점으로 판단하기도 한다.

수동적 수용 유형의 응답자는 대부분 한국 서열문화가 옳거나 좋은 문화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한국에서 잘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국문화에 적응하고 한국 서열문화를 수용하기로 했다.

> 저는 서열문화가 좋다고 보지는 않지만 완전히 없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윗사람의 행동에 따라 서열문화를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윗사람의 행동이 옳지 않다고 보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윗사람을 존중하고 고개 숙이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따라요. [P-A-1]

[P-A-2], [P-A-4]와 [P-A-5]는 한국 서열문화를 수용했지만, 외국인이라서 서열문화를 제대로 따르지 못하더라도 한국인들이 이해해 주고 따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여 가능한 한 모국문화에 따라 행동한다고 했다.

> 저도 한국인들과 만날 때 처음에는 한국문화에 따라 행동하도록 해봤는데 제가 외국인이라서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따지지 않는 모습을 봐서 자기 모국문화에 따라 더 행동하기로 했어요. [P-A-2]
>
> 저는 직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서열문화를 따르지만, 직장이 아니면 따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문화에서 온 외국인이라서 그걸 따르기가 어려워요. 한국인들도 이해해 줘요. [P-A-4]

반면에 [P-A-8]과 [P-A-9]는 한국에서 외국인이 한국인과 뚜렷이 차이가 있는데 한국문화도 제대로 따르지 못하면 차이가 더욱 많이 나서 한국 사회와 어울리지 못한다고 하였다.

> 저는 한국에 오는 것을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에 한국문화에도 익숙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가끔은 서열문화가 과해서 불편해요. 제가 이 문화를 따르지 않으면 남들과 떨어져 있게 될 텐데 저에게 유리하지 않아요. 특히 제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원래 한국인과 뚜렷이 구별되어 있어요. [P-A-9]

[P-A-2], [P-A-4]와 [P-A-5]는 외국인이라는 것과 한국인과 구별되어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이러한 차이 때문에 한국 서열문화를 따를 때 좀 더 자유롭게 행동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P-A-8]과 [P-A-9]는 반대로 이러한 차이점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여 이 차이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서열문화를 무조건 열심히 따르려고 노력해서 불편함을 느꼈다. 이 두 그룹 간의 차이는 학습자의 성격과 사고방식에 달려 있을 수도 있고, 그들이 접촉했던 한국 사람들의 행동 방식 때문일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능동적 거부 유형의 응답자는 대부분 한국 서열문화를 긍정적으로 보지 못했으며 외국인이 그를 따라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한국 서열문화가 인간의 가치를 동등하게 존중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그것을 거부하기로 했다.

> 서열문화가 아랫사람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데 그게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걸 따르지 않고 보통 한국 친구들과만 이야기해서 높임말 쓸 필요도 없어요. [A-R-2]

[A-R-1]은 한국 서열문화가 의미 없는 문화라고 판단하여 한국에서 서열문화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였다.

> 외국인은 굳이 한국 서열문화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일할 때 따르지 않았습니다.
>
> 개인적으로 한국 서열문화가 저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대학교 다닐 때도 후배들한테 “반말해도 괜찮다, 선후배 이런 거 외국인들한테 의미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서열문화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A-R-1]

[A-R-2]는 학교에서 친구들이 나이에 따른 서열 때문에 그를 누나/언니 호칭으로 부를 때 불편했다고 하였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공손하게 나를 부르고 싶어할 때 가끔 누나나 언니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예 마음에 안 들고 오히려 불편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나를 내 이름으로만 불러 달라고 했어요. [A-R-2]

[A-R-3]은 한국에 짧은 기간 동안 머무르는 외국인에게는 한국인처럼 서열문화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기대되지 않는다고 언급하여 가능한 한 편한 대로 행동했다고 하였다.

외국인으로서 한국문화를 제대로 따르는 것이 기대되지 않아요. 특히 짧은 기간만 한국에 사는 외국인은요. 제가 만나본 한국인들은 저에게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A-R-3]

[A-R-7]과 [A-R-8]은 한국 서열문화를 완전히 필요가 없는 문화로 보지는 않으면서도 엄격한 조건들이 수정되어 유연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봤다. 그래서 한국 서열문화를 긍정적으로 이해하지 않았지만, 한국문화를 존중한다는 것을 보이는 정도로만 그것을 따르도록 하고 모국문화도 유지하면서 절충하여 행동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화가 필요한 문화라고 보지만 제 생각에는 수정돼야 합니다.

한국에서 살고 있어서 서열문화를 접할 때가 있었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인들이 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껴서 힘들었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이제는 서열에 관한 상황에서 이런 문화가 저한테도 중요하지만 제 행동이 약간 다를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A-R-7]

한국문화를 모욕하지 않는 정도만 서열문화를 따르지만 한국인처럼 행동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유연성 있게 중간적으로 행동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A-R-8]

이란 학습자들은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했다. 학습자의 행동에는 자신의 나이, 성격, 사고방식, 신념과 관념, 한국어 수준, 한국 거주 기간, 한국문화와 접촉 기간, 접촉한 한국인들의 태도와 행동 방식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추측될 수 있다.

3. 한국 서열문화 교육을 위한 시사점

본 실험에서 살펴본, TV 드라마에 나타난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반응 양상이 서열문화 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수용 유형을 살펴본 결과, 실험에 참여한 응답자의 73.3%가 한국 서열문화를 수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나아가 실험 대상자의 '한국어 급수', '한국 거주 기간', '한국문화나 한국인과의 접촉 기간' 중에 어느 변수가 '수용 유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지를 통계 분석한 결과, 각 변수는 수용 유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서열문화 교육에 있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수준과 같은 사회학적 특징이 크게 고려할 변수가 아님을 의미한다. 이러한 미미한 편차는 한국문화 이해를 위한 다양한 홍보 자료와 동영상과 같은 온라인 매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한국의 문화적 환경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서열문화와 같은 문화교육에 있어 TV 드라마 등의 영상매체를 활용한 교육 방안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수용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은 필요하다. 한국 서열문화에 따른 학습자의 반응 양상이 수용 유형별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서열문화를 수용하는 학습자의 경우 TV 드라마를 통한 교육을 실시하되, 한국 서열문화를 거부하는 학습자의 경우 공통적인 교육 이외에 추가적인 보완 교육이 필요하다. 여기서 보완 교육은 서열문화 요소를 잘 인지하게 하고 학습자의 해석과 평가를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완하도록 하는 활동으로 구성될 수 있다.

둘째, 학습자가 TV 드라마를 통해 한국 서열문화를 인지하는 과정에

유형별로 차이가 있었다. 물론 각 유형마다 서열문화 요소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포착한 응답자도 존재했고 거의 인지하지 못한 응답자도 있었다. 그러나 학습자가 초점을 둔 장면과 인지한 요소의 개수는 능동적 수용 유형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동적 수용 유형이 그 다음이며, 거부 유형의 학습자들이 제일 적은 요소에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TV 드라마에 나타난 한국 서열문화를 인지하는 데에는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학습자의 수용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곧 한국 서열문화를 거부하는 학습자의 경우 TV 드라마를 통한 서열문화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때 이러한 학습자에 대해서는 TV 드라마와 함께 보충 자료나 방법을 활용하는 등의 보완된 형태의 서열문화 교육이 필요하다. 한편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어 교육의 내용이 되는 언어적 요소는 잘 찾아냈지만, 학습되지 않았던 비언어적 요소는 잘 포착하지 못했다. 따라서 TV 드라마를 시청하기 전에 학습자의 주의를 비언어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교사는 학습자가 TV 드라마 장면에서 인지한 서열문화 요소를 얼마만큼 언급 가능한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인지하고, 그에 따라 학습자에게 적절한 안내를 줘야 한다.

셋째, TV 드라마 장면에서 학습자가 관심을 두는 서열문화 요소가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 학습자가 특정 장면 및 요소에 집중하는 이유는 개인의 다양한 영상·문화 지식에 해당하는 인지적인 측면, 감상에서 드러나는 정의적 측면과 관련되어 있는데 관심사가 유사한 경우에도 해석과 평가의 방향은 다르게 전개됨을 보였다. 예를 들면, 이란 학습자들은 대부분 한국 서열문화에 대해 '윗사람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해석을, '아랫사람을 마음대로 대우한다'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해석을 제시하였다. 또한,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좋다'는 측면에서 한국 서열문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엄격하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능동적 수용 유형은 상대적으로 한국 서열문화에 대해 더 긍정적인 해석과 평가를 보이며, 능동적 거부 유형은 한국 서열문화를 보다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하는 양상이 드

러났다. 한국 서열문화 교육 과정에서 이러한 해석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지면, 학습자는 자신의 해석과 평가를 공유하면서 서로 다른 배경을 지닌 학습자들이 TV 드라마에 나타난 한국 서열문화를 받아들이는 양상의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다. 학습자는 나아가 서열문화를 긍정적으로 판단한 그룹과 부정적으로 판단한 그룹 사이에 토론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의 서열문화를 수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이란 학습자들은 대부분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 서열문화를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교육 과정에서 교사가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학습자의 태도를 형성시키기 위한 교육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때 역할극은 이러한 태도 형성을 위해 적합한 방법이다. 역할극에서 학습자는 다양한 서열 관계와 상황을 체험하며 상기의 상황에서 적절하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교사로부터 검토 받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설령 학습자가 한국 서열문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지는 못하더라도 이러한 학습은 학습자들이 한국 사회에 살면서 한국 사람들과 서열에 대한 갈등이 생기지 않기 위해 한국 서열문화에 적응하도록 체험하고 연습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TV 드라마는 학습자의 표현을 바탕으로 경어법 학습 및 오류 수정을 가능하게 하는데 장면에 등장하는 요소들은 서열에 따라 경어법과 호칭을 설명하기 위한 좋은 수업 자료가 된다. 학습자의 경어법이 올바르게 사용되는지 확인하고 이를 구체적인 장면을 통해 교육할 수 있기 때문에 경어법 교육 자료로써 활용 가능성 역시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란 학습자가 TV 드라마에 나타난 한국 서열문화에 접촉하는 과정에서 보인 반응 양상을 살펴본 결과, 위와 같은 한국 서열문화 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시사점을 고려하여 실제적인 교육 방안을 설계하고자 한다.

Ⅳ. 한국 서열문화 교육의 설계

이 장에서는 Ⅲ장의 TV 드라마 장면 분석과 학습자 반응 양상을 바탕으로 문화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접목해서 TV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 서열문화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및 절차를 제시하려고 한다.

TV 드라마는 흥미 유발 교육 자료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TV 드라마의 특성은 문자 텍스트보다 이해가 쉽고 짧은 시간에 시청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며 집중하게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장점은 수업에서의 참여도와 몰입도를 증진시킬 수 있게 한다.

언어로만 구성된 텍스트를 학습할 때에는 학습자들이 교사의 설명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언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인지와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반해 TV 드라마와 같은 영상매체는 이미지와 소리 등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여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친숙한 정보를 파악하기가 수월하다. 학습자가 이미 지니고 있는 시청각 인지 능력을 활용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은 지식과 언어 중심의 수업에서 벗어나 학습자 개인의 특성에 따라 문화이해를 증진하고 상호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게 할 수 있는 교육적 제재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TV 드라마는 한국 서열문화를 바라보게 하는 실제적인 자료인 동시에 서열문화에 대한 지식을 발휘해서 학습자의 해석과 비판을 이끌어내게 하는 매개 자료로서 기능한다.

TV 드라마의 장면은 마치 실제 상황처럼 현실감이 있기 때문에 유용한 교육 자료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이란 학습자의 수용 유형에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TV 드라마에 나타난 한국 서열문화 요소들을 인지하고 그에 대해 유의미한 해석을 하도록 안내하고, 교사가 학습자의 해석과 비판에 대해 적절한 피드백을 제시한다.

베리 (1997)의 이론에 의하면 문화적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접촉 이전의 시기, 접촉기, 갈등기, 위기기, 적응기 5단계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이란 학습자들은 모두 한국문화와 접촉하고 한국에서 살아 본 적이 있었지만, 나머지 4단계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는 없었다. 그 이유는 첫째, 살펴보게 된 학습자의 반응 양상이 한국문화 일반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특정 문화인 서열문화에 한정된 반응이었으며, 둘째, 학습자들의 수용 유형과 한국문화와의 접촉 기간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학습자들은 문화적응의 어느 단계에서든 한국 서열문화를 수용하는 사례도 있고 그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응 단계와 학습자의 한국문화와의 접촉 기간에 상관없이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중심으로 교육 방안을 마련하였다.

1. TV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 서열문화 교육의 목표

Ⅲ장에서는 TV 드라마에 나타난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이란 학습자들의 수용 유형 및 반응 양상과 이들에서 얻은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TV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 서열문화 교육은 서열문화에 대한 이란 학습자의 거부감을 줄이고, 문화적인 자존감을 지키면서 한국 사회에서 방법론적으로 혹은 임시방편적으로 서열문화를 수용하고 맞춰서 행위를 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데 목표를 둔다.

한국의 특유한 서열문화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문화 교육이 언어 교육과 통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서열문화 교육은 단순히 단편적인 전통문화나 관례적인 표현, 피상적인 제스처 학습에 그쳐서는 안 된다. 또한, 단순히 한국 사회의 긍정적 측면만을 과장하거나 선별적으로 학습하는 것도 옳지 않다. 모든 사회의 긍정적 측면은 동전의 양면처럼 어둡고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적어도 나이 어린 학습자가 아닌 성년 이상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의식적으로 학습자들이 한국 서열문화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지게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객관적이고 심화된 이해와 균형 잡힌 태도를 습득하는 데에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열문화 학습은 문화적 우월성을 과시하거나 긍정적 문화만을 전달하는 편파적 피드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 대한 전반적이고 총

체적인 이해를 위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학습자는 한국 서열문화를 적절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서열 관계에서 서로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 적합하게 행동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서열과 관련하여 한국인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갈등이 생기더라도 갈등을 생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특히 이란 한국어 학습자의 수가 급증하여 이들의 사회 적응 및 현실 적응이 문제가 되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학습자는 TV 드라마의 시청각 요소를 통해 한국 서열문화의 속성을 인식하고, 이와 함께 서열문화를 사회적 맥락에서 파악하며, 자국의 문화적 경험을 활용하여 한국에 대한 경험을 연상하고 특수한 점을 추론하는 상호 문화적 이해와 해석을 필요로 한다. 학습자의 문화 경험을 활용한 이해는 TV 드라마에 제시된 서열문화와 서열문화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비교하고 새롭게 인식하게 된 점이 무엇인지 검토하는 성찰적 이해, 자신의 인식에 영향을 준 문화들을 사회적인 시각에서 해석하는 사회 맥락적 이해, 타인의 해석과 자신의 해석 간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비교하고 문화 간 대화를 모색하는 소통적 이해를 통해 서열문화에 대한 해석 능력을 심화할 수 있다.

문화교육에서는 TV 드라마에 나타난 서열문화에 대한 학습자의 다양한 반응 양상을 공유하면서 인식을 확장하고 서로 다른 경험과 해석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견해를 수용하고 소통하며 학습자들이 교류하는 활동은 상호 문화적 이해와 소통으로 나아가게 된다.

2. TV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 서열문화 교육의 내용 및 방법

한국의 서열문화에 대한 이해는 한국 사회 생활을 위해 필수적이며, 따라서 이러한 서열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Ⅲ장에서 분석한 TV 드라마 장면들의 내

용 분석을 바탕으로 서열문화 교육에 적합한 TV 드라마 장면의 선정 기준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서열문화 요소를 현실적으로 잘 보여 주는가. 둘째, 서열문화의 다양한 관계와 상황들이 드러나는가. 셋째, 서열문화의 요소들이 언어적 양식과 비언어적 양식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가. 넷째,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과 관계없이 상황과 내용이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은가.

본 수업에서는 모란 (Moran)의 설계[92]를 적용하여 서열문화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설계하였다. 우선 학습자로 하여금 TV 드라마 장면에 나타난 서열문화 요소들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TV 드라마에 나타난 서열문화와 자신이 경험한 서열문화 그리고 이란문화를 비교하여, 제시된 장면에 대한 비판적 해석을 토의와 토론을 통해 다른 학습자들과 공유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학습자의 태도 형성을 위해 역할극을 통해 서열문화를 실제로 체험해보는 활동으로 수업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에서 서열문화에 대한 수용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일반적인 한국어·한국문화 수업에서는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학습자의 수용 유형을 미리 알아보기가 어렵다. 교수·학습의 과정에서 학습자의 생각과 서열문화에 대한 반응이 제시되어야 그것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학습자의 수용 유형을 파악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문화 교육 과정이 시작하기 전에는 교사가 먼저 수업 주제를 도입하며 서열문화를 간단히 소개한 뒤, 학습자의 수용 유형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처음부터 학습자를 수용 유형에 따라 분류하지 못하더라도, 시청 후 단계에서 교사가 학습자의 반응 양상에 따라 한국 서열문화를 수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학습자들을 찾아낼 수 있고 그들에게는 추가적인 서열문화 교육을 강조하는 방식의 보완이 가능하다.

TV 드라마와 같은 시청각 교재를 활용한 교육단계는 크게 시청 전·중·후로 구분된다. 교육 과정에서 보완이 가능한 단계는 시청 후 단계

92) P. R. Moran, & Z. Lu (2001). *Teaching culture: Perspectives in practice*. Heinle & Heinle Boston.

가 될 것이다. 이는 시청 전이나 시청 단계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고안해 내기 어려운 반면, 시청 후 단계에서는 얼마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가에 따라, 혹은 교사의 상상력과 유연성, 순발력 여하에 따라 다양한 연계 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TV 드라마를 시청하기 전 단계에서는 교사가 먼저 수업에 사용하는 TV 드라마 장면에 나타난 사회 배경, 줄거리, 등장인물과 상황에 대한 설명한 후 교육 과정에 대한 안내를 제시한다. 시청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TV 드라마 내용을 이해하고 서열문화 요소에 집중하기 위해 페르시아어로 번역된 자막을 활용하는 방법이 적합하다. 언어능력의 한계로 TV 드라마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들의 문제를 자막으로 해결할 수 있다.

Ⅲ장에서 TV 드라마에 나타난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이란 학습자들의 반응 양상에서 얻은 교육적 시사점 중 하나는 지식 부족이다. 학습자들이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란 학습자가 한국인과의 상호작용에 필요한 서열문화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고 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적절히'라는 표현을 정의하자면, 꼭 한국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오해나 마찰이 없을 정도의 수준을 말한다. 이러한 지식을 교사가 주로 시청 후 단계에서 학습자의 반응을 살펴본 뒤에 제시한다.

1)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인지 향상 활동

TV 드라마를 통한 한국 서열문화 교육의 첫 번째 활동은 인지 향상을 위한 활동이다. TV 드라마를 시청하기 전에 인지 향상 활동 안내에서 교사가 주로 주목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 TV 드라마 장면에서 한국 서열문화 요소들을 찾고 기억하거나 메모하세요. - 등장인물들의 대화뿐만 아니라, 몸짓, 말투, 행동 등에도 주의하세

요. - 반복적으로 나타난 요소 외에, 한 번만 나타난 요소에도 주목하세요. - 이란문화와 비슷하거나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요소더라도 서열문화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무시하지 마세요.

시청 후 단계에서는 교사가 아래와 같은 질문에 대한 학습자의 답변을 수집한다.

- TV 드라마에서 한국 서열문화가 어떤 식으로 나타났나요? - 찾아본 서열문화 요소들을 각각 어느 장면에서 포착했나요? - 그러한 서열이 어떠한 관계 혹은 상황에서 생겼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 서열문화의 언어적인 요소와 비언어적인 요소에는 각각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 무엇에 초점을 두어 그 요소를 인지했나요? - 이란문화에도 한국과 같은 서열 요소들이 있나요?

인지 향상 활동은 공통적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학습자의 인지 수준에 따른 맞춤형 활동을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 서열문화 요소를 잘 인지하지 못한 학습자의 경우, TV 드라마 장면에 나타난 서열문화 요소들을 적어 보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이것은 각 장면의 서열문화 요소들을 언어적·비언어적 양식으로 구분하며 이를 설명함으로써 사람들의 관계, 상황, 특징 등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활동이다. 서열문화 요소를 그보다 많이 인지한 학습자의 경우, 교사가 학습자들이 알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서열문화 요소를 언급하고 학습자들로 하여금 그에 대한 지식을 표현하도록 하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서열문화 요소를 잘 인지한 학습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는 것이 적합하다. 학습자들은 발표를 통해 서로가 알고 있는 서열문화에 대한 지식을 비교하고, 교사는 TV 드라마에 나타난 서열문화 요소를 분석한다. 이를 하기 위해 TV 드라마 <미생>의 경우, Ⅲ

장의 표 7에서 제시된 각 장면에 대한 분석 틀을 사용할 수 있다.

학습자의 서열문화 인식은 자국 문화와 한국 서열문화에 관한 지식으로 구성된다. 서열문화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TV 드라마에 나타난 서열문화 내용을 넘어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 교사가 실제 상황의 서열문화 활용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제시해 서열문화 내용을 정리한다.

한국 사회는 개개인을 위아래로 나누려는 문화가 매우 강해요. 심지어 나이 1살 차이까지도 서열을 따지려는 경우가 있어요. 서열문화는 직위 계급에 따라 독립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직위와 함께 연령 계급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도 해요. 한국 기업에서의 직급을 높은 순서부터 낮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회장, 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부장, 차장, 과장, 계장, 대리, 주임, 비정규직 등이 있어요. 직급은 나이, 학력, 입사순서보다 최우선이에요. 예를 들어 18년차 A 차장과 28년차 B 과장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A 차장이 이겨요. 같은 직급인 경우, 나이, 학력, 업무능력보다는 입사순서가 우선이에요. 예를 들면 28년차 고졸 B 과장은 10년차 석사졸 C 과장을 이겨요. 직급이 존재하지 않는 아르바이트에서도 이를 따지는 경우가 있어요. 더 오래 일한 사람이 쉬운 일을 맡고는 해요. 직급과 입사순서가 같다면 그 다음은 나이예요. 물론 한 사원이 먼저 승진하면 달라지겠지만 직급이 같은 동안에는 나이도 중요하게 작용해요.[93]

교사는 또한 학습자 반응을 바탕으로 각각의 상황에 적합한 장면을 제시할 수 있다. TV 드라마 장면이 한국 서열문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면서 교사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전개할 수 있다. 이는 서열문화의 특징에 대해 심층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93) 나무위키, 서열. www.namu.wiki/w/서열(검색일: 2020년 6월 24일).

2)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해석과 비판 활동

본 교육의 목적은 TV 드라마에 나타난 한국 서열문화를 학습자들이 모두 온전하게 수용하도록 하는 데에 있지 않다. 오히려 본 연구는 각각의 서열문화 요소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지식 및 이해 능력을 점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TV 드라마는 그 내용 자체의 타당성보다도 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해석력과 비판 능력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매체로써, 이란 학습자의 한국 서열문화 인식과 해석 능력의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좋은 수단이 된다.

해석과 비판 활동에서는 교사가 서열문화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기보다 아래와 같은 질문에 관한 토의를 통하여 학습자의 자유로운 해석과 비판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TV 드라마에서 한국 사람들은 서열에 따라 상대방을 어떻게 대우했나요? - 이러한 모습을 보고 여러분은 한국 서열문화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거나 비판했나요? - 어느 장면에서 어떤 요소를 그렇게 해석했나요? - 해석과 비판을 할 때는 한국 서열문화를 이란문화와 비교했나요? - 이란문화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서열문화는 이란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나요?

토의를 통한 교육은 학습자가 단순히 읽기만 진행했을 때보다 풍부한 상호문화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학습자들은 공통적으로 TV 드라마에 나타난 서열문화와 이란문화를 비교하고 장면에 대해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비평 행위, 그리고 다른 학습자들과 이를 비교하고 공유하는 토의를 통해 실천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한국 서열문화와 이란문화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문화가 각 나라의 사회에서 하는 역

할과 생활방식에 미치는 영향도 비교할 수 있다.

Ⅲ장에서 도출된 결과에 의하면 이란 학습자 중 한국 서열문화를 '윗사람을 존중한다'는 것과 '아랫사람을 마음대로 대우한다'는 것으로 해석한 응답자가 많았고 대부분 이에 대해 '엄격하다'고 평가했다. 수업 과정에서도 유사한 양상의 해석과 비판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지만, 학습자들은 교사와 다른 학습자들과의 토의를 통해 서로의 관점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자신의 해석과 비판뿐만 아니라,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측면에서도 서열문화를 바라볼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학습자의 해석과 비판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교사가 토의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관점을 파악하고 반응을 검토하며 개별 학습자에게 적절한 보충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한국 서열문화 교육 과정에서 학습자의 수용 유형은 해석과 비판 활동을 하는 시점부터 드러나기 시작한다. 교사는 한국 서열문화를 상대적 긍정적으로 판단한 학습자와 이를 상대적 부정적으로 판단한 학습자를 구분하여 같은 비판적 관점을 가진 학습자들을 묶어서 그룹을 만든 후, 서로 관점이 다른 그룹 사이에 토론을 주도할 수 있다. 토론을 통해 학습자들은 한국 서열문화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더욱 자세히 비교함으로써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3)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태도 형성

문화적응은 목표문화에 몰입하거나 편입되지 않고, 그 안에서 편안하게 느끼며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행동 양식에 적응하는 것으로 일종의 역할 놀이에 해당한다. 학습자가 한국 사회에 살면서 발생할 수 있는 서열과 관련된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적응적 태도를 형성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적응적 태도의 형성을 위해서는 우선 학습자들로 하여금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서술하여 발표하도록 한다. 교사가 할 질문은 다음과 같다.

- 한국 서열문화와 관련된 개인적인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했었는지 설명해주세요. -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나 행동은 어땠나요? - 경어법과 호칭을 쓰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던 적이 있나요? - 서열에 대한 지적이나 칭찬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 TV 드라마를 시청한 후 한국 사람을 만났을 때 한국 서열문화에 따라 행동할 건가요?

학습자는 TV 드라마에 나타난 서열문화를 자신의 경험과 비교하는 위와 같은 질문들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연상해보며 인식을 확장시킨다. 또한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설명, 인식, 그리고 성찰의 과정에서 TV 드라마를 시청할 때는 지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떠올리며 심층적 이해를 전개하게 된다.

한국에서 서열을 중시하는 이유는 서열이 한국어와 관련이 깊기 때문이다. 한국어의 경어법과 호칭은 서열에 의해 결정된다. TV 드라마는 한국어 경어법과 호칭 학습에도 도움이 된다.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은 서열에 따라 경어법과 호칭을 쓴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자신이 경어법과 호칭을 올바르게 사용하는지 돌아볼 수 있다. 교사는 TV 드라마에서 등장인물들이 사용하는 경어법과 호칭, 그리고 그것을 쓰는 맥락을 주의하여 학습자들에게 시청하라고 요구하고, 시청 전과 후에는 학습자의 경어법 사용의 변화를 검토하기 위해 같은 질문을 물어본다. 예를 들면, 학습자들이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경어법을 사용할 것인지에 답하게 한 후 TV 드라마 <미생>의 [V5S1]~[V5S3]을 시청하게 한다. 시청이 끝난 후 교사가 다시 학습자들에게 같은 질문을 한 뒤, 시청 전과 후에 학습자의 생각이 경어법 사용에 대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준다.

TV 드라마 <미생>의 [V3S3]에서 천과장은 김대리가 회사에서 장난을 치고 위계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벌을 준다. 한국인과의 접촉에서 서열과 관련한 지적을 받아본 적이 있는 학습자의 경우 이 장면을 보면서 공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장면에 내재된 서열문화

교육의 내용, 곧 “전에는 친한 친구였더라도 회사에서는 공과 사를 구별하여 상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라는 점을 더욱 잘 학습하고 염두에 두게 될 것이다.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태도 형성 활동을 할 때에는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학습자의 수용 유형을 알아볼 수 있다. 이때 공통적인 교육 이외에는 개별 유형에게 맞춰진 교육을 진행할 필요도 있다. 만일 학습자의 태도를 형성시키기 위한 교육을 하더라도, 문화에 대한 태도는 금방 변하지 않고 형성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 그래서 교사가 개별적인 학습자들의 태도와 수용 유형을 고려해서 그에 따라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르게 제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학습자들의 태도 형성을 도와주는 공통적인 교육 활동으로는 역할극이 적합하다. 수업에서 TV 드라마에 나타난 서열 상황과 비슷한 역할극을 만들어 학습자들로 하여금 등장인물이 되어보도록 하는 것이다. 교사는 역할극을 수행하는 학습자들이 적절하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검토하며 여기에 대한 피드백을 제시한다. 따라서 역할극은 학습자로 하여금 체험과 연습을 통해 자신의 태도를 형성할 좋은 기회가 된다.

역할극 활동에서는 학습자가 수업 내용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본다. 역할극 대본은 교사가 미리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학습자 수에 맞게 준비한다. 이때 대사는 학습자들의 수준에 맞추어 적정한 난이도의 어휘와 되도록 짧은 문장으로 이루어지게끔 조절해야 한다. 너무 단순한 장면보다는 대화자의 감정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장면을 선택하여야 하며 TV 드라마 <미생>의 [V1S1]~[V1S10]처럼 다른 서열에 위치한 인물들 간의 교류가 충분히 드러나는 장면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직위와 나이에 따른 서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학습자의 기대와 어긋날 상황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역할극을 하기에 앞서 교사는 학습자들이 이 장면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극에 몰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습자들이 대사를 연습하는 시간으로는 10~15분 정도를 배분하고 완벽하게 외우지 못하더라도 대사를 실감 나게 하는 데 목적을 둔다. 학습

자가 연습할 때 교사는 돌아다니면서 학습자의 질문에 대답해 준다. 서열문화에 대한 이해와 체험이 이 활동의 목표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휘에 대한 설명을 따로 할 필요는 없다. 교사는 등장인물들의 서열적 관계와 대사에서 명시된 서열문화의 언어적·비언어적 요소에 학습자의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교사는 학습자들이 역할극을 하면서 서열에 따라 적절하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살펴보고 역할극이 끝난 후에 피드백을 준다.

한국 서열문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스스로 따르기로 한 학습자는 '능동적 수용', 전반적으로 서열문화를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지만 어쩔 수 없이 따르려고 한 학습자는 '수동적 수용', 서열문화를 부정적으로 보고 따르지 않겠다고 한 학습자는 '능동적 거부', 그리고 서열문화를 긍정적으로 보지만 따르지 못한 학습자는 '수동적 거부' 유형으로 분류된다. 능동적 수용 유형은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고 경험을 쌓으면 스스로 자신의 태도를 형성하려는 경향이 있어 공통적인 교육 활동을 유지하되, 개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은 거의 없다. 수동적 수용 유형의 경우 역시 한국 서열문화를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수용할 필요성을 알고 있어 능동적 수용 유형과 마찬가지로 부가적인 개별 교육 활동이 필수적이지 않다. 다만 해석과 비판 활동에서 한국 서열문화의 긍정적인 측면들을 보는 경험은 서열문화를 보다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반면, 능동적 거부 유형과 수동적 거부 유형에게는 공통적인 교육 활동 이외에 추가적인 개별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능동적 거부 유형은 태도뿐만 아니라 서열문화를 바라보는 관점마저 부정적이라서 태도 형성 활동만을 지속한다면 효과가 없을 가능성도 있다.

한국 서열문화를 거부하는 학습자들에게 개별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은, 능동적 거부 유형과 수동적 거부 유형 간의 차이점이다. 수동적 거부 유형은 한국문화보다 이란문화 지향성이 높아서 아직 한국문화를 수용하지 못한 학습자들인데, 한국 서열문화 교육의 목표를 잘 습득하고 한국 사람과 접촉할 때 서열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습이 필요하다. 수업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 활동을 할 때 충분한 기회가 없을 수도 있지만, 역할극에서 교사가 서열적 교류의 관점에서 최대한 도전적인 역할을 수동적 거부 유형의 학습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추가적인 과제로 교사는 TV 드라마 <미생>과 같은 한국 서열문화가 많이 나타난 영상 매체를 학습자들에게 추천하며 시청하라고 요구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서열문화 교육 수업에서 수행했던 활동들을 수업 밖에서도 어느 정도 스스로 연습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반복학습은 서열문화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한국 서열문화를 능동적으로 거부하는 학습자들은 보통 자국문화를 더 선호하고 그대로 행동하려고 한다. 이들은 이란문화와 한국문화가 여러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한국 생활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큰 문제를 겪지 않는다 할지라도, 서열문화에 관해서는 한국문화와 이란문화가 너무 달라서 이로부터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교사는 우선 능동적 거부 유형의 학습자에게 한국 서열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잘 알려서 학습자가 한국에서 유학하거나 취직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람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서열 관계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적절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서열 상황에서는 자신이 선호하는 이란문화와 한국문화가 어떻게 다른지를 학습자에게 자세히 제시하게 한다. 예를 들어 학습자는 시청한 TV 드라마 장면이나 역할극 대본에 나타난 상황이 똑같이 이란에 나타났으면 학습자가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같은 상황에서 한국 서열문화에 적절한 태도와 비교하고 두 문화 사이의 차이점을 말해볼 수 있다. 이때 거론한 차이점들 중 한국 서열문화에서 심한 문제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교사가 지적한다. 학습자가 한국 서열문화를 완전히 수용 못하더라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오해를 발생하는 행동을 가능한 한 피하도록 노력한다. 학습자는 최종적으로 자신의 태도를 한국 서열문화에 따라 형성하지 않는다고 해도, 유연성 있고 중간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한국 사회에 살면서 한국 사람들과 서열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Ⅴ. 결론

본 논문은 TV 드라마를 활용한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국 서열문화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고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Ⅰ장에서는 문화교육의 필요성과 한국문화에 있어 서열문화의 이해에 대한 중요성을 살폈다. 또한, 이론을 참고하여 연구 방법론을 설정하였다. Ⅱ과 Ⅲ장 그리고 Ⅳ장에서는 분석 대상이 되는 자료의 특성과 수집 경로를 밝혔다.

Ⅱ장에서는 먼저 한국어 교육에서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살펴보고 2절에서는 '문화교육과 문화적응'에 대해 검토하며 호프스테드의 이론에 입각하여 한국과 이란의 '문화간 차이'와 공통점을 밝혔다. 따라서 '서열문화'가 이란과 한국에서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여 이란 한국어 학습자에게 한국 서열문화 교육의 필요성이 있음을 검증했다. 이어서 '문화적응의 개념 및 이론'을 근거로 해서 본 연구에서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이란 학습자의 수용 유형과 반응 양상을 살펴볼 이론과 틀을 도출했다. 3절에서는 'TV 드라마를 활용한 문화교육'에 대해서 논의하여 영상매체의 특성과 문화교육에서 TV 드라마의 효과를 살펴봤다. 마지막으로 한국 TV 드라마가 이란인 학습자에게 관심을 이끌어내고 흥미를 유발하는 적절한 문화교육 수단임을 확인했다.

Ⅲ장에서는 한국 생활 경험이 있는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들의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수용 유형과 반응 양상을 살펴봤다. 이란 학습자들에게 TV 드라마 <미생>의 장면을 시청하게 하고 그 직후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서술형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설문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서열문화에 대한 학습자의 수용 유형을 능동적 수용, 수동적 수용, 능동적 거부, 수동적 거부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실험 참여자들 중에 한국 서열문화를 수동적으로 거부하는 학습자는 없었지만, 대상자들은 나머지 세 가지 유형으로 적당히 분포되었다. 실험에 참여한 학습자 수가 많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수용 유형을 이분법적으로 분류했다는 점을 본 연구의 난점으로 들 수 있다.

이란과 한국의 문화 차이가 커서 한국 서열문화를 수용하는 학습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한국 생활 경험이 있는 이란 학습자들은 대부분 한국 서열문화를 수용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스스로 한국에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한국문화에 적응하고자 결심한 것에 연유한다.

통계분석에 따르면 '수용 유형'과 '한국어 급수', '한국 거주 기간', '한국문화나 한국인과의 접촉 기간'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변수들이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수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성격, 사고방식, 신념과 관념, 경험한 세계, 가치관, 세대,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경험, 접촉한 한국인들의 태도와 행동 방식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수용 유형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란 학습자들은 TV 드라마 장면의 내용을 분석하고 서열 요소를 인지하는 동시에 해석과 비판을 전개했다. 따라서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학습자들의 반응 양상을 분석하여 유형별로 인지, 해석 및 평가 양상을 살펴봤다. 전반적으로 능동적 수용 유형과 수동적 수용 유형의 응답자들은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인지 양상이 서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능동적 거부 유형의 응답자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서열문화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능동적 수용 유형의 응답자는 수동적 수용 유형의 응답자보다 미묘한 서열문화 요소들을 조금 더 잘 포착했다는 특징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높을 때 TV 드라마를 통한 서열문화 인식 수준도 더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해석 양상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이란 학습자들은 서열문화를 '윗사람을 존중한다'는 의미와 '아랫사람을 마음대로 대우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능동적 수용 유형은 한국 서열문화를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반면 능동적 거부 유형은 한국 서열문화를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하였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좋다’는 측면에서 한국 서열문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엄격하다’는 측면에서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수용 유형별 한국 서열문화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를 비교하면 수용성이 높을수록 평가를 더 긍정적으로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한국 서열문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학습자일수록 이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자 했고, 한국 서열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학습자일수록 이를 능동적으로 거부하고자 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학습자가 실제 상황에서 한국 서열문화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지는 유형별로 차이가 난다. 능동적 수용 유형은 대부분 한국 서열문화를 좋은 문화로 보고, 어떤 나라에 살면 그 나라의 문화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여 한국 서열문화도 따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 수동적 수용 유형은 대부분 한국 서열문화가 옳거나 좋은 문화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잘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국문화에 적응하고 한국 서열문화를 수용하기로 했다. 능동적 거부 유형은 대부분 한국 서열문화를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것을 따라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며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Ⅳ장에서는 TV 드라마 장면의 분석과 학습자의 수용 유형 및 반응 양상을 바탕으로 문화교육의 목표,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TV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 서열문화 교육은 서열문화에 대한 이란 학습자의 거부감을 줄이고, 그것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데 목표를 둔다. 서열문화에 대한 학습자들의 수용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통적인 교육 외에는 각 유형의 학습자에게 적합한 개별적인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이론과 실험을 바탕으로 했을 때 교육적 접근과 활동을 거치면서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이란 학습자로 하여금 기존에 알고 있던 한국 서열문화를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하거나 이전과는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효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학습자들이 이란문화와 차이점이 많은 한국 서열문화를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행동의 자원으로 삼는 동시에 적절하게 비판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 논저

강승혜(2012), 「한국 문화교육 연구 동향 분석: 주제와 방법론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9(1), 1-38.

강유진(2018), 「이란의 태권도 변천과정과 여성태권도의 성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국민호(2007), 『동아시아 발전과 유교문화』, 전남대학교 출판부.

권복순(2009), 「한국어능력, 자아존중감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구지역 베트남, 필리핀, 중국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1(2), 5-32.

권오경(2009),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 내용 구축 방안」, 『언어와 문화』,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5(2), 49-72.

권오현(2003), 「의사소통중심 외국어교육에서의 '문화' -한국의 학교 외국어교육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2.

김귀석・이수경(2003), 「초등 영어 문화 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향」, 『언어학』, 11(2), 61-90.

김귀옥(2000), 『월남인의 생활환경과 정체성』,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대행(2003), 「한국어교육과 언어문화」, 『국어교육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2.

김대행(2008), 「언어교육과 문화인식」, 『한국어문화학』,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5(1), 1-62.

김수은(2008),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어문화 수업 개발 연구」,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3, 81-90.

김수진(2009), 「문학작품을 활용한 한국어문화교육 연구 -맥락 활성화에 기반한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국제한국어교

육학회, 20(3), 31-58.
김양순(2014), 「TV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방안 연구: 중상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염(2013),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문학 영상텍스트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정숙(1997), 「한국어 숙달도 배양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교육한글』, 한글학회, 10, 317-326.
김정은(2008), 「문화 간 의사소통의 갈등 양상 분석」, 『한국어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9(2), 155-192.
김태동(2009), 「탈북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홍매(2019), 「사회문화적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 교재의 언어문화 교육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훈태(2017), 「한국의 대중문화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과 문화교육의 사례 -루마니아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드라마'의 활용사례를 중심으로-」, 『국제학술발표논문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7, 46.
당영화(2015), 「TV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 문화교육 방안 연구」, 세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류우진(2018), 「TV 드라마 <미생>을 활용한 한국 직장 호칭 문화 교육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영순(2003), 「한국어교육으로서의 문화 교육에 대하여」, 『이중언어학』, 이중언어학회, 23, 67.
박우진(2015), 「문화적응 어려움을 겪는 중국유학생의 소시오드라마 경험 연구」, 『학술발표논문집』,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2015(5), 261-290.
배현숙(2002),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육 현황 및 문제점」, 『이중언어학』, 이중언어학회, 21, 178-199.

배현숙(2007),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 문식성(literacy) 격차 해소 방안」, 『언어와 문화』,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3(1), 107-120.
서경혜(2013), 「한국 문화교육을 위한 한국인의 가치체계 연구: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현지(2010), 「TV드라마를 활용한 한국 문화교육 방안 연구-드라마<가문의 영광>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하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성기철(2001), 「한국어교육과 문화교육」, 『한국어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2(2).
성기철(2004), 「언어와 문화의 접촉-언어문화」, 『한국어문화학』,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1(1), 105-123.
우인혜(2004),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항목 선정」, 『이중언어학』, 이중언어학회, 25, 149.
유수연(2008), 『문화간 의사소통의 이해: 다문화시대의 소통방법』, 문화사.
윤여탁・최미숙・김정자・정현선・송여주(2008), 『매체언어와 국어교육』,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윤여탁(2015), 「한국 언어문화 교육의 질적 향상 방안」, 『한국언어문화학한국언어문화학』,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12(1), 1-22.
이길원(2007), 「한국 문화의 교육 내용과 교육방법 연구」, 『언어와 문화』,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3(3), 159-175.
이미혜(2005), 「대중문화 교육을 통한 한국 언어문화 교육-문화 중심의 언어 통합 교육 모형 설계」, 『학술대회』,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371-385.
이석주(2002), 「이중언어교육과 문화교육: 한국어 문화의 내용별, 단계별 목록 작성 시고」, 『이중언어학』, 이중언어학회, 21, 19.
이수미(2008), 「텍스트 읽기를 통한 한국 문화 이해의 제양상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5(1), 273-291.
이수진(2019), 「국가홍보영상을 활용한 한국문화교육 연구」, 서울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은정(2009), 「한국어 학습자의 숙달도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타찌야나(2012), 「러시아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문화교육 연구: 비지니스 맥락의 간문화적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경순(2006), 「문화 중심 언어와 문화의 통합 교수・학습 방법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한중인문학회, 19, 293-320.
장청원(2018), 「문학작품을 활용한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 관념문화 교육 연구: 집단주의 문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정희(2006), 「결혼이주여성 자녀의 기초학습 능력증진과 정체성 강화를 위한 교육방안」, 『대구 경북연구원』.
조정래(2007), 「〈대장금〉의 서사적 특성 연구」, 『현대 문학의 연구』, 한국문학연구학회, 31, 333-356.
조창환(1996), 「한국어교육과 연계된 한국 문화 소개 방안」, 『한국어 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7, 109-119.
조항록(1998), 「한국어 고급 과정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한국어 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9(2), 223-237.
조항록(2004), 「한국 언어문화와 한국어교육」, 『한국언어문화학』, 국제한국언어문화학, 1(2), 193-210.
최송현(2006), 「서열적 교류에서 나타나는 대인평가의 준거차이」,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윤희(2003), 「이문화관리와 문화적 가변성의 차원에 관한 일 고찰」, 『국제지역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7(4), 209-234.
최정순(2004), 「한국어교육과 한국 문화교육의 등가적 통합」, 『언어와 문화』,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 63-81.
최정순(2013), 「한국어교육의 현황 및 발전 방향: 언어교육에서 문화교

육까지 문화 간 의사소통적 접근법을 제안하며」, 『한국고전연구』, 한국고전연구학회, (27), 5-28.
푸옹마이(2009), 「베트남 학습자들의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 언어・문화 교육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6(1), 191-211.
푸옹마이(2016), 「베트남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화교육 연구: 텔레비전 드라마 활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국언론학회 미디어교육위원회(2005), 『학교로 간 미디어』, 다할미디어.
한규석(2009), 『사회심리학의 이해(3판)』, 학지사.
황인교(2008),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 문화교육 연구」, 『언어와 문화』,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4(3), 265-287.

2. 국외 논저

Adler, N. (2002). *International Dimensions of Organizational Behavior*, Cultural Difference Studies, South Western Press.
Berry, J. W. (2003). *Conceptual approaches to acculturation*. In K. M. Chun, P. B. Organista, & G. Marin (Eds.), Acculturation: Advancesin Theory, measurement, and applied research, 17-39.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Berry, J. W. (2006). Acculturation: A conceptual overview. In M. C. Bornstein & L. R. Cote(Eds.), Acculturation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Measurement and development.
Berry, J. W., Kim, U., Power, S., Young, M., & Bujaki, M. J. (1989). Acculturation attitudes in plural societies. *38*(2), 185-206.
Brown, H. D. (2001) [권오량・김영숙・한문섭 역(2002), 『원리에 의한 교수: 언어교육에의 상호작용적 접근법(제2판)』, 피어슨에듀케이션 코리아].

Cabassa, L. J. (2003). Measuring acculturation: Where we are and where we need to go,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25*(2), 127-146.

Castro, V. S. (2003). Acculturation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Greenwood Press: Westport · Connecticut · London.

Dougill, J. (1987). *Drama activities for language learning*, London and Basingstoke: Modern English.

Fiske, A. P. (1990). Relativity within Moose ("Mossi") culture: Four incommensurable models for social relationships. *18*(2), 180-204.

Fowler, S. M., & Blohm, J. M. (2004). An analysis of methods for intercultural training. *3*, 37-84.

Gibson, M. A. (2001). Complicating the immigrant / minority typology, Anthropology and Education Quarterly Review, *28*(3), 431-454.

Hall, S., Hobson, D., Lowe, A., & Willis, P. (1980). *Culture, Media, Language: Working Papers in Cultural Studies* [임영호 편역(1996), 『스튜어트 홀의 문화이론』, 한나래].

Hofstede, G., Hofstede, G. J., & Minkov, M. (2010).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Revised and expanded 3rd Edition.

Hogan, R. T., & Emler, N. P. (1978). The biases in contemporary social psychology, Social research. *45*, 478-534.

Kang, S. (2006). Measurement of acculturation, scale formats, and language competence: Their implications for adjustment,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7*(6), 669-693.

Moran, P. R., & Lu, Z. (2001). *Teaching culture: Perspectives in practice*: Heinle & Heinle Boston.

Neuman, J. (2001). *Individual, environmental, and culture predictors of college adjustment for Asian, Latino, and White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chtl, E., & Lund, A. D. (2007). Intercultural competence and assessment: perspectives from the INCA Project.

Rivers, W. M. (2018). *Teaching foreign language skill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Ruben, B. D. (1992). *Communication and human behavior*: Prentice Hall.

Samovar, L. A., & Porter, R. E. (2007). *Communication between cultures(6th ed.)* [정현숙・김숙현・최윤희 역(2013),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북스].

Sapir, E. (1921). *Language: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speech*. Harcourt Brace.

Smart, J. F., & Smart, D. W. (1995). Acculturative Stress of Hispanics: Loss and Challeng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3*, 390-396.

Uba, L. (1994). *Asian American: Personality patterns, identity and mental health*. New York, NY: Guilford Press.

Unger, J. B., Ritt-Olson, A., Wagner, K., Soto, D., & Baezconde-Garbanati, L. (2007). A comparison of acculturation measures among Hispanic/Latino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36*(4), 555-565.

마지디・후쉬만드(2010), 「한국 TV 드라마가 이란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이유에 대한 검토」, 『이란의 문화연구 저널』, *11*(11), 167-195.

مجیدی، ن. و هوشمند، ز. (۲۰۱۰/۱۳۸۹). بررسی دلایل پرمخاطب بودن سریال‌های [کره‌ای در بین جوانان. پژوهش‌نامه فرهنگی، ۱۱(۱۱)، ۱۶۷-۱۹۵.]

사퍼르 모가담(2009), 「한국어와 페르시아어에서의 예절 요소 비교」, 『이란의 문화연구 저널』, *2*(1), 77-97.

صفار مقدم، ا. (۲۰۰۹/۱۳۸۸). مقایسه‌ی عناصر ادب در زبان‌های کره‌ای و فارسی. [فصل‌نامه‌ی تحقیقات فرهنگی، ۲(۱)، ۷۷-۹۷.]

3. 영상 자료

<미생>(Misaeng, 2014), 감독: 김원석.
<진심이 닿다>(Touch Your Heart, 2019), 감독: 박준화.

4. 인터넷 자료

나무위키, 서열. www.namu.wiki/w/서열(검색일: 2020년 6월 24일).

부록 1. 설문조사 문항

TV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 서열문화 교육 연구
-이란 학습자를 대상으로-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할애해서 본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연구생이며 TV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의 서열문화 교육 연구를 수행 중입니다.

본 설문지는 정답이 없으니 솔직하고 편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 전공
석사과정 마희열 드림

2020년 03월

인적사항:

성별:

출생 연도:
(예:1992)

학적:

1. 언어연수생(언어교육원, 어학당 학생)
2. 학부생(대학생)
3. 대학원생
4. 기타:

한국에 거주한 총 기간:
(예: 1년 3개월)

한국문화와의 접촉 총 기간 (한국어를 학습한 기간이나 한국인과의 접촉 기간):
(예: 3년 5개월)

언제부터 한국 TV 프로그램,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하셨나요?
(예: 6년 전부터)

한국어 수준:
1. 초급 2. 중급 3. 고급

연락처:
연구에 필요한 요청을 위한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한국에서는 서열문화가 사회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TV 드라마를 보시고 느끼신 점을 솔직하게 적어주세요.

1. 드라마 장면에서 한국 서열문화가 어떤 식으로 나타났나요?
2. 드라마 장면에서 한국 사람들은 나이와 지위에 따라 상대방을 어떻게 대우했나요?
3. 드라마를 통해 한국 서열문화를 보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4. 드라마에서 본 한국 서열문화가 필요한 문화라고 생각하시나요?
5. 이란에도 비슷한 서열문화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한국과의 차이를 말씀해 주세요. 둘 중에 어느 것을 더 선호하시나요?
6. 한국의 서열문화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나요?
7. 한국에서는 한국의 서열문화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8. 귀하께서는 서열에 대한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평소에 한국 사람들을 만났을 때 서열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셨나요?
9. 드라마 시청 후 한국 사람을 만났을 때 한국 서열문화에 따라 행동을 하시겠나요?
10. 한국문화를 이해하는데 드라마 시청 방식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설문 종료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2. TV 드라마 장면의 내용

<표 27> 영상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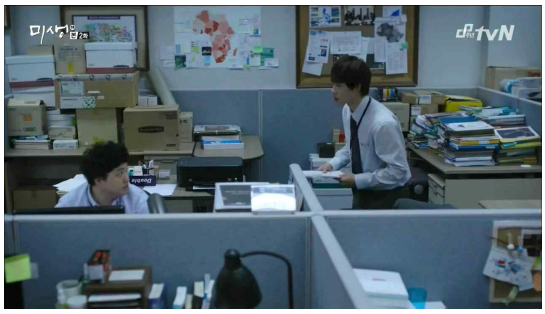
활용 장면	제2회 37:08~43:05 (총 길이 05:55)

장면 1 (V1S1)

외근 갔던 오과장 들어 온다.

동식 잘 다녀 오셨어요?
그래 (멈칫, 본다)
상식 (힐끔 보고 동식에게) 응 (자리로 가고)
동식 어? 장그래씨, 밑에 그거 뭐야?
그래 네? (보면서) 운송장 이면지들입니다.
동식 그럼 안돼에! 잘못하면 다른 종이에 들러 붙어서 같이 돌아다닌다구.
그래 아, 네 (이면지 문서들 빼낸다)
동식 서류들 함부로 이면지함에 넣지 말고, 꼭 업무 기밀 체크한 담에 버려.
웬만하면 파쇄하고.
그래 네.
동식 요즘 문서 보안 문제 때문에 분위기 아주 안 좋아.
얼마 전에 큰 사고 한번 있었거든? 팀장부터 대리급까지 전무님한테

단체로 불려가서 옴팡 깨졌다구.
그래 네. 알겠습니다. (영수증 붙인 종이들 들고) 총무팀 다녀오겠습니다.
(급히 나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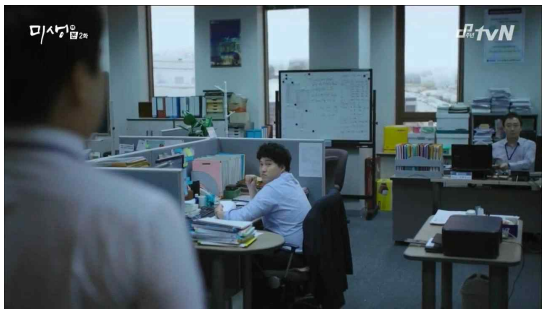
장면 2 (V1S2)
영업3팀 앞 통로 / 낮

서류봉투와 주간인턴보고서와 보고서에 첨부할 표그림을 들고 급히 들어오는 석호
그래를 보고 다급하게

석호 그래씨, 나 풀 좀 빌릴 수 있어요?
그래 아, 제 책상 위에 있어요
석호 우리 팀은 비품함을 왜 열쇠로 잠가 놓는지...매번 구걸해요
그래 (웃으며 책상 가리키고 간다)

장면 3 (V1S3)

영업3팀 안/ 낮



석호, 들어서며 상식과 동식에게 꾸벅꾸벅

석호 안녕하십니까, 인턴 김석호입니다.

상식/ 동식 (본다)

석호 풀 좀 빌리겠습니다 (그래 책상으로 가며) 아, 여기 있다.

이면지 위에 <주간인턴보고서> 중 하나를 뒤집어 올려놓고 풀칠을 한 후

들어서 후후 분다. 다시 이면지 위에 <제안1> 이라고 써 있는 빈 종이를 놓고

그 위에 풀칠한 종이를 바로 놓아 붙인다. 꾹꾹 눌러 붙이는 석호.

결재내역이 있는 영업3팀의 운송장이 석호의 제안서 뒷면에 척 붙는다.

모르는 석호, 상식과 동식에게 '가보겠습니다' 꾸벅하고 서둘러 간다.

장면 4 (V1S4)

원인터 로비 / 낮

엘리베이터에서 급히 내리는 석호.

손에 든 주간 인턴 보고서를 다시 보다가 딸려 온 종이가 풀럭풀럭하는 게 보인다.

석호 어? 이건 또 뭐가 딸려 온 거야? (다른 응대 하고 있는 안내데스크에 건성 으로 올려두며) 죄송한데, 이거 좀 버려주세요 (허둥지둥 가는 결에 종이 가 팔랑 바닥에 떨어진다)

장면 5 (V1S5)
탕비실 / 낮

그래, 서류를 파쇄기에 넣는다. 드르르르 갈리는 서류들.

장면 6 (V1S6)
원인터 로비 / 낮

떨어져 있는 문제의 이면지... 그 앞으로 슥 나서는 고급 신사화.
바닥의 문서를 내려다 보고 있는 최전무. 뒤에는 수행 부장.
최전무, 기안서에 있는 <영업3팀명>을 말없이 쳐다 본다.

장면 7 (V1S7)
15층 사무실 입구 / 낮

최전무와 수행부장이 들어선다. 눈앞에 쭉 펼쳐진 사무실 풍경.
주저 없이 영업 3팀 쪽으로 저벅저벅 걸어가는 최전무.
마주 오던 사원들이 깜짝 놀라 멈춰 서며 급히 인사 한다.
웃으며 받는 전무.
전무를 본 사람들, 벌떡 벌떡 일어나서 인사하면 웃으며 까딱까딱 받는다.
탕비실에서 나오는 그래 앞으로 휙 지나가는 전무와 수행부장.

장면 8 (V1S8)
영업3팀 / 낮

이면지들과 문구로 너절한 회의 테이블 위를 치우는 그래를 기분 안 좋은 얼굴로
쳐다보고 있는 상식.

그래 모르니까, 가르쳐주실 수 있잖아요. 기회를 주실 수 있잖아요.
상식 기회에도 자격이 있는 거다.
그래 무슨 자격이요?

일그러지는 상식. 테이블 다 치우자 모아 둔 이면지 위에 <이면지>

도장을 꽝꽝
찍고 있는 그래를 또 본다.

고과장 난감한 청탁이라 그냥 니 팀에 떠 넘긴 것 같더라.
기가 막힌 상식, 헛웃음이 뱉어진다. 다시 찡그리고 그래를 쳐다보는데

장면 9 (V1S9)
영업3팀 입구에서 걸음을 멈추는 최전무.
멈칫하고 일어나는 상식.. 책상 밖으로 나온다

동식 (봤다. 벌떡 일어나며) 전무님 오셨습니까?
그래 (얼결에 숙이고 본다)

상식을 보고 끄덕하며 들어서는 전무. 상식 앞에 선다.
긴장한 얼굴의 상식과 동식.
영업3팀을 둘러 보는 전무, 그래를 보지만 별다른 기색 없이 다시 상식을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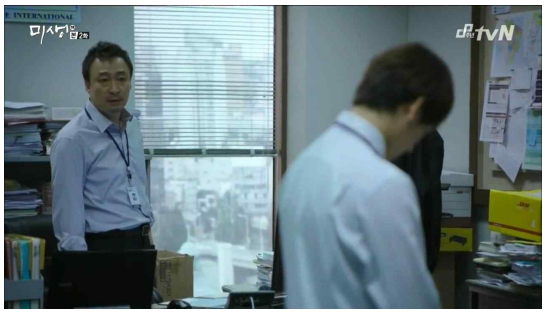
상식 전무님, 무슨 일로 여기까지.
수행부장 (상식 앞으로 예의 이면지를 내민다)
상식 (받아 본다. 영업3팀의 운송장이다. 당황하는데)
수행부장 로비에서 주웠네
상식/동식 !!!!

그래 (본다. 영업3팀의 운송장 이면지다. 당황) !!!
상식 죄.. 죄송합니다.
동식 (화난 얼굴로 그래를 노려 보듯 본다)
그래 아... 그게 왜..(전무에게) 제가 잘못
상식 (무섭게) 가만 있지 못해!
그래 (움찔하고)
전무 (그래를 쳐다 본다)...
그래 (숙이는)
전무 (빙긋 웃으며 상식에게) 잘하자
상식 예.
동식 (난처하고)
그래 (눈 질끈 감는다)

찬물을 끼얹은 듯한 15층 사무실 전체의 시선이 영업3팀에 쏠려있다.
나가는 최전무. 그래를 흘깃 보고 간다.
그래, 고개 들어 보면 전체 사무실 사람들 일어나서 또 인사하고 있다.

장면 10 (V1S10)
동식 (화난) 너 새대가리야?
그래 죄송합니다.
동식 내가 문서 보안 몇 번 말했어?! 엉?!!
그래 죄송,
상식 나 가.

동식/그래 (놀라 보면)
상식 (버럭) 나가라구! 이 새끼야!!



섬유3팀의 영이도 놀란 얼굴로 본다. 자원팀의 백기도 본다.

상식 이제 분명히 알겠지? 너한테 기회도 안 주는 이유, 니가 자격 없는 이유!
그래 (하얗게 된 얼굴로 숙이고 있는..)
상식 (노려 보며) 안 나가?!
동식 장그래.
그래 (보면)

굳은 얼굴로 그래를 보는 동식.

<표 28> 영상 2

활용 장면	제5회 15:15~16:12 (총 길이 00:54)

장면 1 (V2S1)

자원팀/ 낮

굳은 얼굴로 서 있는 영이를 깨고 있는 하대리
하대리 미팅메모 정리 따윈 같잖아서 못 하겠디? 아니, 나랑 한 미팅이 같잖았어?
영이 급하단 말씀이 없으셔서 사업계획서 먼저 처리하고 드리려고 했습니다.
재무팀에서 연락이 와서 오늘 중으로 넘겨야 예산 처리가 된다고 해서요.
하대리 그럼 밤을 새서라도 해야 될 거 아냐? 업체선정회의 들어가는데 어쩔거야?
영이 (고개를 조금 떨구고 듣고 있다) ...
하대리 아효.. 이래서 내가 여자랑 일이 안 된다는 거야!
영이 ....
하대리 희생정신도 없고 말이야. 뭘 기대해 뭘!
영이 ....
하대리 뭐가 이렇게 뻣뻣해? 죄송하다고 안 해?!

영이 죄송합니다. 하대리 가 봐! 꼴 보기 싫다! 영이 (꾸벅 하고 돌아 선다)

<표 29> 영상 3

활용 장면	제11회 44:05~44:36 / 45:08~46:18 (총 길이 01:40)

장면 1 (V3S1)

원인터 외경 /낮

동식 (반갑게) 과장님, 오셨어요?!

영업 3팀 /낮

그래와 동식 앞에 서 있는 출근 차림 천과장
천과장 (웃으며) 응. 나도 오늘부터 3팀원 (그래를 보면)
그래 (인사한다) 안녕하십니까?
천과장 응 (자리 쪽으로 가서 가방 놓으며) 장그래씨.
그래 네
천과장 아무래도 내가 가장 많이 업무 지시할 사람은 그래씨가 될 것

같죠?
그래 네.
천과장 나 격식 따져대는 사람 아니니까 편하게 지내요. 스타일은 맞춰 가면 되고
그래 네, 감사합니다.

장면 2 (V3S2)
전과장 어.. (웃으며) 김대리. 업무 브리핑 좀 받읍시다.
동식 예.
천과장 회의실로 가지.
동식 여기서 바로 드려도 되는 데요.
천과장 (웃으며) 이것저것 밀린 얘기도 좀 하고 말이지 … 눈치가 없어~ (간다.)
동식 (보고 웃으며 일어나 따라가면서) 에~이~ 천과장님, 뭔지 알겠다. 우리 팀 간보시려는 거죠?
천과장 (허허허 웃으며) 아이고~ 오차장님 스타일 다 아는데 뭘 간을 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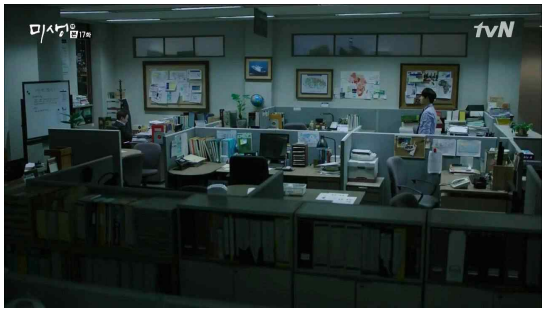
장면 3 (V3S3)

소회의실1/낮

블라인드 쳐져 있는 내부.
경직된 얼굴로 서 있는 동식을 싸하게 쏘아보고 있는 천과장.

천과장 장난 하냐? 동식 (굳은) 아닙니다. 천과장 회사가 장난이야? 내가 니 친구냐? 동식 아닙니다. 천과장 새로운 사람 왔으면 긴장 좀 타자. 동식 네. 천과장 3년 전, 너랑 나랑 빵이쳤던 즐거운 기억은 그것대로 두라고, 구질구질하 게 평생 가져가지 말고.. 동식 (당황스러운) 네 (천과장 쳐다 보다가) 저.. 과장님.. 천과장 왜? 동식 우리 팀 오신 거.. 다른 이유 있으신 건 아니시죠? 전과장 (보다가) 적어도 나는 이유 없다. 보낸 사람들 생각은 모르겠지만. 동식!

<표 30> 영상 4

활용 장면	제17회 31:00~31:38 (총 길이 00:38)
장면 1 (V4S1)  영업 3팀 / 밤	

상식 장그래!
그래 예?
상식 뭐하는거야? 일이 많아?
그래 아니요.
상식 왜 안 들어가고 그러고 있어?
그래 차장님이 안 가시니까.
상식 가!
그래 차장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상식 없어! 가!
그래 네.

<표 31> 영상 5

활용 장면	제9회 52:44~55:38 (총 길이 02:54)

장면 1 (V5S1)

그래 집 앞.
어색하게 서 있는 두 사람. 약간 어색한 얼굴로 그래의 집을 보는 동식.
문을 열고 먼저 들어서는 그래. 뒤따라 들어 가는 동식.

장면 2 (V5S2)
마당/ 밤

찜질방 빨래 옷을 잔뜩 널고 있는 그래모. 빨래 너느라 여념이 없다.
그래와 동식이 들어오는데 돌아보지도 않고.

그래모 일찍 왔네에~ 씻고 밥 먹어라. 고등어조림 해 놨다. 양념을 잘못해서
꼬리 쪽은 비리더라.
그래 (동식을 보고 빙긋 웃었다가) 맨날 비려
그래모 그러니까 오늘은 꼬리 쪽을 누가 먹을란가 꼭 정하고 들어가자고.
엄마라고 비린 것도 막 주워 먹을 수 있을 거란 고정관념은 버리고.
가위 바위 보 하자 (손을 털며 돌아 서다가 동식을 보고 깜짝 놀란다)
응?
그래 저희 팀 대리님이세요
동식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그래모 (환하게 웃으며 손을 덥썩 잡고) 아이구. 상사분이 여기까지. 저녁은요?
동식 아닙니다. 곧 갈 껍니다. 장그래씨가 뭘 보여줄 게 있다해서요.
그래모 (그래 보며) 응? 뭘?
동식 (넉살 좋게) 글쎄요? 감춰 둔 색시 같은데요?
그래모 (농담 안 받고 꿈벅꿈벅 동식을 본다)

동식 어... (당황하는데)
그래모 (갑자기 들고 있던 빨래로 그래를 때리면서) 너 이놈의 자슥! 뭔 짓을 하 고 돌아다니는 거니?! 응? 뭔 짓을 하고 돌아 다니기에 그런 추잡한 소문이나 흘리고 다녀?!
그래 (태연하게 한숨 쉬고 있고)
동식 (당황해서 말리며) 아..아.. 아녜요! 어머니! 농담이에요. 농담입니다
그래모 (동식을 확 보며) 농담?
동식 (쫄아서) 네. 농담이요
그래모 (보다가 멀쩡한 얼굴로) 알아요
동식 (당황하는) 네?
그래모 나도 농담이야. 농담이 이 정도 수준은 돼야지. 상사 대리님껀 아주 못 쓰겠더만. 재미도 없고 감동은 더 없고.
동식 (멍~)
그래 들어 가요. 대리님(들어 간다)
동식 (멍~)

장면 3 (V5S3)
그래의 방 / 밤

문이 열리며 물과 잔이 든 쟁반을 들고 그래 모가 웃으며 들어 온다.
밥을 다 먹은 그래와 동식.

그래모 어떻게 입맛에 맞나 모르겠네
동식 아주 맛있었습니다.
그래모 다행이네

상을 보는데 고등어 조림 꼬리 쪽은 남았다.
그대로 빤~ 히 남은 꼬리를 보고 있는 그래모.

동식, 그래모의 시선을 따라 보며 당황하는데

동식 아.. 그게

그래 (심드렁하게) 진짜 비려서 못 먹겠어

그래모 .... 그래? 그럼 뭐 엄마가 먹어야지.. (동식을 본다)

동식 아.. 아니,

그래모 난 또 손님 취향은 좀 다른가 싶어 내놨더니

동식 아.. 아니,

그래 (상을 들고 일어나 나간다)

그래모 (다시 공손하게) 그럼 편히 있다 가세요 (나간다)

동식 (엉거주춤 일어나고)

그래 다시 들어오면 멍~하게 서 있는 동식

그래 우리 엄마식 유머예요. 당신은 재밌다고 저러시는데, 하나도 안 웃겨요

동식 어..허허(어색하게 웃으며 방을 휙 돌아 보며)

Abstract

A Study on the Education of Korean Hierarchical Culture by Using TV Drama

-Focusing on the Iranian Learners-

Mahyar Mohammadzadeh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ise an educational plan for improving the ability of the Iranian learners of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to deal with the hierarchical culture (seo-yeol) in South Korea more efficiently, with the growing popularity of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in Iran along with the rest of the world due to the Korean Wave (hallyu). This study chooses to investigate the subject of the Korean hierarchical culture, since the hierarchical culture has been one of the most unfamiliar and difficult cultural code for most of the Korean learners in Iran. In addition, this paper attempts to adopt the visual media, Korean television series (Korean TV drama) as a medium of delivering the hierarchical culture. This study views the learner's capacity of reading the codes of the hierarchical culture as a crucial factor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culture, and examines which elements of the hierarchical culture the learners recognize or recall

and how the learners understand, interpret and criticize the hierarchical culture. Lastly, the paper attempts to specify and suggest the teaching strategy of the hierarchical culture through the research.

This study adopts and reformulates John W. Berry's multicultural accumulation framework appropriate for the experiment.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with the 30 participants, all Iranian learners of Korean who have had living experience in South Korea. At first the study conducted the survey to classify the participants according to the different types of cross cultural acceptance. During the survey, subjects were asked to watch the scene from Korean TV drama <Misaeng> which includes the different elements of the Korean hierarchical culture.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 respondents were categorized to four different types of cross-cultural acceptance of the Korean hierarchical culture: the active acceptance, the passive acceptance, the active rejection, and the passive rejection.

This paper then analyzes how the learners response upon the Korean hierarchal culture and applies it to how they recognize, interpret and evaluate based on their types of cross-cultural acceptance of the Korean hierarchical culture. In general, both of the respondents from the group of active acceptance and the passive acceptance show little difference in their way of recognition, while the respondents from the active rejection group succeed to recognize comparatively few elements of the hierarchical culture. Furthermore, respondents from the active acceptance group were able to catch the subtler elements than the passive acceptance group. Therefore, the experiment has proved that the learner's level of receptivity is of importance in recognizing Korean hierarchical culture in the Korean TV drama.

During the process of the interpretation and evaluation of the Korean hierarchal culture, most of the Iranian learners interpreted the

hierarchical culture positively in that it "shows respect to their superiors" and negatively in that it "treats their subordinates unjustly". Also on the one hand, the learners have shown broadly positive responses towards the hierarchical culture as this culture "underlines respecting the other", but on the other hand, the learners have shown broadly negative responses toward it because of its "rigidity". While the active acceptance group has shown relatively more positive responses in interpreting and evaluating the hierarchical culture, the active rejection group has shown much more negative responses. That is, the more positive the learner's response to the Korean hierarchical culture is, the more actively she/he seeks to accept the culture; similarly, the more negatively the learners interpret or evaluate it, the more actively they decide to reject it.

Chapter IV aims to provide the goal, contents and the methods of cultural education based upon the categorization of learners' cross cultural receptivity and their way of responding to the elements of the hierarchical culture, along with the analysis of the scenes from Korean TV drama.

The study designs the educational plan which focuses in reducing resistance of the Iranian learners against the Korean hierarchical culture and leading them to accept the culture by using television series as a major teaching resource. Considering the need for a differentiated instruction according to the learner's type of cross cultural acceptance of the Korean hierarchical culture, the study proposes the individualized approach in which the teaching method differs based on the type of the acceptance, except the general education. In conclusion, this study expects to contribute to Iranian learner's effective acquisition of the Korean hierarchical culture, with which most of the learners from the Iranian cultural background are

unfamiliar, and furthermore allow them to understand, accept, and criticize appropriately.

……

Keywords: Cultural Education, Korean Hierarchical Culture, Korean TV drama, Iranian Learners of Korean Language, Cross-Cultural Acceptance, Acceptance Type, Response

Student Number: 2017-29726